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2013.



머 리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라진 대형투자은행들의 빈틈을 메꾸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제도적 개선이나 정책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은 제도적·물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금융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수급관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의 선진화·세계화가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임을 고려하면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최우선적인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금융인력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모든 국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종사자별, 직무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예상 채용규모, 우리나라 경제전망 및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필요한 금융인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결과가 향후 효율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요 약

I. 연구배경	1
II.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3
1. 조사	3
가. 조사대상	3
나. 조사방법	6
2. 분석	14
가. 개요	14
나. 세부 분석결과	19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66
가. 조사현황 및 개요	66
나. 조사결과	67
III.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83
1. 실물경제 성장 전망	83
2. 금융산업 성장 전망	86
IV.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90
1. 금융인력 수요 전망	90
가. 금융인력 수요 전망 추정방법	94
나. 금융인력 수요 전망	102
다.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103
라.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111
마.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115

2. 금융인력 공급 전망	116
가. 금융인력 공급 추정방법	116
나. 금융인력 공급규모 전망	119
다.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126
라.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126
마. 학력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129
3.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129
가. 금융인력 수급차	130
나.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131
다.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133
V. 시사점	140
1. 미래의 금융수요 변화를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140
2.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145
3. 국제적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48
4.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150
5. 금융인력 인프라 구축	151
부 록	153

표 목 차

<표 II-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3
<표 II-2> 조사일정	4
<표 II-3>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응답기관 인원	5
<표 II-4> 조사항목	6
<표 II-5> 금융업 직무 해설표	8
<표 II-6> 자격증 분류표	11
<표 II-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12
<표 II-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13
<표 II-9>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20
<표 II-10> 직무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21
<표 II-11> 세부직무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22
<표 II-12> 업권별 여성 고용 비중	23
<표 II-13> 직무별 여성 고용 비중	24
<표 II-14> 세부직무별 여성고용 비중	25
<표 II-15> 여성의 직무 분포 비율	26
<표 II-16> 업권별 외국인 고용 비율	27
<표 II-17> 외국인의 직무 분포	28
<표 II-18> 업권별 직무 비중	30
<표 II-19> 업권·성별 직무 비중	31
<표 II-20> 연령별 직무 비중	32
<표 II-21> 학력별 직무 비중	33
<표 II-22> 직무별 대졸 전공 분포	34
<표 II-23>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35
<표 II-24> 직무별 급여 수준 비중	36
<표 II-25> 세부직무별 급여 수준 비율	38
<표 II-26> 업권별 연령 비중	39
<표 II-27> 직무별 연령 비중	40
<표 II-28> 세부직무별 연령 비중	41
<표 II-29> 업권별 총 근무 기간 비율	42
<표 II-30> 직무별 총 근무 기간 비율	43

<표 II-31> 세부직무별 근무기간 비율	44
<표 II-32> 업권별·직무별 현 직무 5년 연속 근무자 비중	45
<표 II-33> 업권별 학력 비중	47
<표 II-34> 직무별 학력 비중	48
<표 II-35> 세부직무별 학력 비중	49
<표 II-36>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50
<표 II-37>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51
<표 II-38> 직무별 대졸자 전공 비중	52
<표 II-39> 세부직무별 대졸자 전공 비중	53
<표 II-40> 직무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54
<표 II-41> 세부직무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율	55
<표 II-42> 업권별 영어능력 비중	56
<표 II-43> 업권별 제2외국어 능력 비중	57
<표 II-44> 직무별 영어능력 비중	58
<표 II-45> 직무별 제2외국어능력 비중	59
<표 II-46>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중	60
<표 II-47> 직무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	61
<표 II-48> 업권별 연수 비중	62
<표 II-49> 직무별 연수 비중	63
<표 II-50> 업권별·직무별 해외학위 취득자 비중	64
<표 II-51> 업권별·직무별 해외금융기관 근무경력자 비중	65
<표 II-52>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기관	66
<표 II-53>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68
<표 II-54>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68
<표 II-55>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69
<표 II-56>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0
<표 II-57>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1
<표 II-58>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2
<표 II-59>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2
<표 II-60>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3
<표 II-61> 영어능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4
<표 II-62>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예정규모	75
<표 II-63> 업권별 정규직·비정규직 예상규모 및 비율	76

<표 II-64>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7
<표 II-65>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8
<표 II-66>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79
<표 II-67>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80
<표 II-68>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80
<표 II-69> 영어능력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81
<표 II-70>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예정규모	82
<표 III-1>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86
<표 III-2>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89
<표 III-3>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89
<표 IV-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96
<표 IV-2> 고용탄력성	97
<표 IV-3> 취업계수	98
<표 IV-4>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2)	100
<표 IV-5> 금융인력 수요 전망	102
<표 IV-6>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102
<표 IV-7> 업권별 인력비중	103
<표 IV-8>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104
<표 IV-9>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104
<표 IV-10>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105
<표 IV-11>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106
<표 IV-12>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107
<표 IV-13>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109
<표 IV-14>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110
<표 IV-15>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110
<표 IV-1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111
<표 IV-17>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112
<표 IV-18>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113
<표 IV-19>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114
<표 IV-20>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1	115
<표 IV-21>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2	115
<표 IV-22>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3	115
<표 IV-23> 2013년중 전공별 졸업상황	120

<표 IV-24> 입학생 추이	121
<표 IV-25> 입학생 증가율 추이	122
<표 IV-26>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 기준	123
<표 IV-27> 성별 희망직종 현황	123
<표 IV-28> 향후 5년간 졸업생 규모 추정	124
<표 IV-29> 금융인력 공급규모 : 희망 직종 기준	125
<표 IV-30>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 전공 기준	126
<표 IV-31>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 희망 직종 기준	126
<표 IV-32>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 전공 기준	127
<표 IV-33>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 희망 직종 기준	128
<표 IV-34> 학력별 금융인력 공급	129
<표 IV-35>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전공기준	130
<표 IV-36>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희망직종 기준	130
<표 IV-37>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1 & 전공기준	131
<표 IV-38>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1 & 희망직종기준	131
<표 IV-39>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2 & 전공기준	132
<표 IV-40>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2 & 희망직종기준	132
<표 IV-41>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3 & 전공기준	133
<표 IV-42>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시나리오3 & 희망직종기준	133
<표 IV-43>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1 & 전공 기준	134
<표 IV-44>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1 & 희망직종 기준	135
<표 IV-45>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2 & 전공 기준	136
<표 IV-46>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2 & 희망직종 기준	137
<표 IV-47>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3 & 전공 기준	138
<표 IV-48>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3 & 희망직종 기준	139
<표 V-1>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인력수요 전망	143

그 립 목 차

<그림 II-1> 고용 형태별 인력 비중	14
<그림 II-2> 성별 인력 비중	14
<그림 II-3> 직무별 인력 비중	15
<그림 II-4> 급여 수준별 인력 비중	15
<그림 II-5> 연령별 인력 비중	16
<그림 II-6>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16
<그림 II-7> 학력별 인력비중	17
<그림 II-8> 전공(대졸)별 인력비율	17
<그림 II-9> 영어 능력별 인력비율	18
<그림 II-10> 재직자 직무연수 인력비중	18
<그림 II-11> 해외학위 취득자 및 해외근무 경력자 인력비율	19
<그림 III-1> 경제성장률	83
<그림 III-2> 잠재성장률 전망치	84
<그림 III-3>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85
<그림 III-4>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86
<그림 III-5> 주요국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87
<그림 III-6>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88
<그림 IV-1> 금융업 취업자수	94
<그림 IV-2> 금융업 부가가치	95
<그림 IV-3>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101
<그림 IV-4>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	107
<그림 V-1>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연도별 추이	140
<그림 V-2> 주요국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141
<그림 V-3> 베이비부머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142
<그림 V-4> 탄력적 임금체계로 전환	151

요 약

I. 연구배경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 등을 위해서는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한 이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제10조) 하였음.

○ 또한, KAIST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06)하여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09~)·녹색금융특화 MBA사업('10~'13)을 통해 재직자교육 강화와 신성장산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금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금융전문인력 수요·공급 예측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설문조사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의 금융전문인력 규모를 추정하였음.

II.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분석

1. 조사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개 업권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력구조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총 1,070개 금융회사가 참여함.

■ 조사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직무, 근무기간, 직무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 이내 추가 채용 예상규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짐.

○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7개 그룹으로 대분류한 후, 이를 다시 27개 직무로 세분류하였음.

2. 분석

가. 금융인력 고용

1) 고용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정규직 비중은 90.6%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4%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 업권별로는 은행과 신탁(각각 93.8%)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상호저축(78.2%)과 여신전문(79.6%)은 낮은 수준임.

○ 직무별로는 보험과 자산관리 및 영업·마케팅의 정규직 비율(각각 95.3%, 92.4%, 92.1%)이 높게 나타남.

2) 여성 고용

-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고용비중(44.7%)은 과반에 미치지 못함.
 - 업권별로는 보험(49.5%)과 은행(47.1%)에서 높게, 자산운용(26.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직무별 여성 종사자의 고용비중은 영업·마케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투자은행 직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금융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3) 외국인 고용

- 조사대상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외국인 비중은 0.6%로 매우 낮아 국제적인 금융인력의 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자산운용/신탁과 증권/선물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종의 경우 0.5% 미만으로 매우 낮음.

나. 금융인력 관리

1) 직무

-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율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68.3%)임.
 - 업권별로도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는 영업·마케팅 직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의 인력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특히, 은행과 상호저축에서 여성의 영업·마케팅 직무 비율과 20대 이하의 영업·마케팅 직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영업·마케팅 직무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영관리, 자산운용, 자산관리, 투자은행 직무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2) 급여수준

- 금융권 급여수준은 전체 고용자의 30.8%가 2,500~5,0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에서 1.5억 이상 고액 연봉자의 비율(9.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무별 급여수준은 투자은행, 자산운용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마케팅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3) 연령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구조는 30대(38.6%)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3%), 20대(19.2%), 50대 이상(10.2%), 20대 이하(0.7%) 순으로 항아리 형태임.
 -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무별로 모든 직무에서 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투자은행의 경우 20대 비중이 타 직무에 비해 낮게 나타남.

4) 근무기간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무기간별 인력구조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4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년 미만(31.1%), 5~10년(21.7%) 순임.
 - 10년 이상 장기 근속 인력 비중은 업권별로는 은행(54.3%),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49.0%) 부문에서 가장 높음.
- 금융업 전체에서 현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비중은 12.4%에 불과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46.0%)에서 가장 높고, 직무별로는 보험(36.3%), 자산관리(31.4%), 자산운용(23.4%) 직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다. 금융인력 교육

1) 학력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율을 보면, 대졸이(59.5%)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
 -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93.5%)에서, 직무별로는 투자은행 직무(9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 전공(대학/대학원)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28.0%, 경제 12.4%, 전산 5.4%, 법학 5.3%의 순으로 조사됨.
 - 특히,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상경계열(경영/회계, 경제)의 비율이 50.4%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0.8%, MBA 16.5%, 전산 4.9%로 나타남.

3) 영어 능력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33.9%가 영어능력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영어구사능력은 하위수준이 58.5%를 차지한 반면, 상위수준은 16.0%에 불과함.

- 업권별로는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에서, 직무별로는 투자은행, 자산운용 직무에서 영어 능력 상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제2외국어 능력의 경우,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1.3%만이 제2외국어 능력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4) 자격증

- 조사대상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복수자격증 소지자 포함)은 86.41%이며, 국제통용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3.34%였음.

- 은행과 증권/선물 업권의 경우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100%를 상회하여 복수의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5) 직무연수

-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직원 교육에 직무연수를 활용하는 비율은 25.5%로 낮은 수준임.

- 업권별로는 은행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 부문이 29.9%로 가장 높게 조사됨.

6) 해외경력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해외학위 취득자 비율은 2.20%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9.81%)에서, 직무별로는 자산운용(12.43%)과 투자은행(12.12%) 직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외근무 2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은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의 0.2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이 1.57%로 가장 높았고, 직무별로는 자산운용 부문이 2.06%로 가장 높음.

3. 금융인력 채용 전망

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1) 조사개요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83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3년 8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신입직의 경우 186개 기관에서, 경력직의 경우 116개 기관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조사 결과

① 전체

■ 향후 1년 이내 총 추가 채용 예상 규모는 7,642명으로 이 중 신입직은 6,236명, 경력직은 1,406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입직을 더 많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됨.

○ 업권별로는 보험 업권에서,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② 신입직

■ 신입직의 경우,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은행의 정규직 예상 채용 비율은 97.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신입직의 채용은,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구간, 연령대별로는 25~30세 미만,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채용 예정 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에서 채용예정 인력에 대해 요구하는 영어 구사 능력은 하위 수준이 45.5%로 가장 높으며,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은 12.6%로 나타남.

③ 경력직

■ 경력직의 채용 형태를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정규직의 채용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남.

■ 경력직의 경우, 급여수준별로는 5,000~7,500만원 구간, 연령대별로는 30대,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채용 예정 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Ⅲ.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1. 실물경제 성장 전망

- 우리나라 실질 GDP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2년에는 3.6%이지만 2038년에는 1.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추정결과 우리경제는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3.9%, 2016년에는 3.8%, 2017년과 2018년에는 모두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3/4분기 이후 경제성장 흐름이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2. 금융산업 성장 전망

- 2012년중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104.2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72.7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6.58%를 차지함.
 - 1970년 이후 전산업 부가가치중 금융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6.4%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 시나리오 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 다만 각 시나리오별 상·하한은 2000~2013년중 변동폭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상한은 '2013년 비중 + 2×표준편차', 하한은 '2013년 비중 - 2×표준편차'로 정하였음.

■ 2014~2018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4~2018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3년중 75.5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18년에는 95.2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90.7조원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86.3조원으로 증가함.

IV.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1. 금융인력 수요 전망

가. 추정방법

■ 201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86.1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만명 증가함.

-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3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7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함.
 - 2000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38조원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5.3%씩 성장하여 2012년에는 73조원까지 성장함.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 이는 고용탄력성이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임.

- 1993년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1.9%씩, 부가가치는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1.9/5.9$ 로 약 0.32로 추정되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32% 늘어남을 의미함.
 - 2012년 현재 금융업 취업자수가 84.2만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업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금융업 취업자수는 $84.2\text{만명} \times 0.32\%$ 에 해당하는 2,7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 수요전망

-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업 취업자수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16,341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10,579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4,505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1.7~1.9%, 시나리오 2는 1.1~1.3%,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4~0.6% 정도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위의 취업자수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금융업권별 수요전망

(1)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불변인 경우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취업자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은행권 취업자수 비중은 전체에서 47.4%를 차지하는 등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8년이 되면 은행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448,576명, 시나리오 2에서는 434,931명, 시나리오 3에서는 420,546명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2)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

①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 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5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6%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6월말에는 60.3%로 10%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29%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57%p 씩, 증권/신탁은 매년 0.55%p 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8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8%로, 보험 비중은 23.7%로 증권/신탁 비중은 11.4%로 달라지게 됨.

○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3년에 60.3%이었으나 매년 1.29%p 하락하여 2014년에는 59.0%, 2015년에는 57.7% 등으로 낮아지게 됨.

②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전망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
 -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data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
- 또한 자산의 변화가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취업자수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취업자수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취업자수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함.

○ 즉 은행의 경우 2014년에 자산비중이 2.1% 하락했는데 이 때 취업자수 비중도 동일하게 2.1% 하락한 것으로 가정함.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8년이 되면 은행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389,437명, 시나리오 2에서는 377,590명, 시나리오 3에서는 365,102명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2. 금융인력 공급 전망

가. 추정방법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금융산업의 성장을 감안하면 더욱 엄밀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향후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본 보고서는 우선 금융인력 공급은 주로 청년층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물론 금융인력 공급은 장년층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전직 등을 통해 신규공급이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청년층에서 노동공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청년층의 희망직종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학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교육부의 「교육통계 DB」를 활용하였음.

나. 금융인력 공급규모 전망

1) 전공기준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사회계열 졸업자는 152,485명인 것으로 파악되며, 2010년 이후 입학생 추이를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0%씩, 석사는 2.4%, 박사는 6.5% 증가한 반면 전문대는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은 입학생의 추세적인 변화가 졸업생 규모에도 앞으로도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매년 152,634명의 금융인력이 공급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152,494명, 2015년에는 152,541명, 2016년에는 152,625명, 2017년에는 152,748명, 그리고 2018년에는 152,908명으로 추정됨.

2) 희망직종기준

■ 2011년 「청년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년중 31.2%가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가 여자는 34.5%가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이 매년 졸업생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매년마다 163,489명의 졸업생이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앞서 입학생이 1999년 이후 매년 0.12%씩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입학생이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졸업생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졸업생 규모를 추정해 보면 매년 164,087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163,688명, 2015년에는 163,888명, 2016년에는 164,087명, 2017년에는 164,287명, 그리고 2018년에는 164,487명으로 추정됨.

다.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 이와 같은 전체 금융인력 공급규모에 업권별 인력 비중을 적용하여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 및 희망직종 기준에 따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은행권 금융인력은 전공기준으로 72,422명, 희망직종 기준으로는 77,906명으로 추정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3.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금융인력 수급차는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인력 수요를 현재 총인원이 아니라 신규수요 규모를 계산하여 금융인력 수급차를 제시하고자 함.

○ 즉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신규 공급 - 금융인력 신규 수요』로 정의함.

가.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기준으로 보면 2014년에는 시나리오 1의 경우 13.6만명, 시나리오 2의 경우 14.1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14.7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인력 공급을 희망직종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시나리오 1의 경우 14.7만명, 시나리오 2의 경우 15.3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15.8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 은행권의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기준으로 보면 2014년 시나리오 1의 경우 6.4만명, 시나리오2의 경우 6.7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7.0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 은행권의 금융인력 공급을 희망직종 기준으로 보면 2014년 시나리오 1의 경우 7.0만명, 시나리오2의 경우 7.2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7.5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V. 시 사 점

1. 미래의 금융수요 변화를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을 중심으로 위험기피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또는 미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예금 및 현금, 주식, 그리고 채권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금 및 보험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령층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주식, 채권 등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안전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금융업권별로 다음과 같은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1의 경우 향후 5년간 8.2만명의 금융권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권별로는 은행에서는 3.7만명, 보험에서는 1.7만명, 증권에서는 1.2만명 등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업계 전체 금융인력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의 수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권별 인력의 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업권별 협회(연합회·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인력, 향후 비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표하여 구직자들에게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인력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금융서비스의 수요변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감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금융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 개인정보보호와 IT보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증권사 M&A, 우리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개편 등 금융권의 M&A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노후대비 교육, 금융상품 가입, 증권투자 등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력
- 기술평가 수요에 맞추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 설립이 추진중인데, 기술평가와 관련된 인력수요도 늘어날 전망
- 진입·설립·운용규제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규제가 합리화되면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이 나타날 전망이다.

2.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금융기관들이 교육투자를 통해 필요 금융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스카우트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필요인원의 신규 공급 없이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과당경쟁만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기존 전문인력의 과다 보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금융권은 외부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되, 내부 직원 중에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자체적인 또는 외부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는 직무중심의 사내 연수를 내실화하여야 함.

■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다수의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들 교육기관들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독특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제공할 필요

○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 전문 금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과도 연계하여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학과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취업 희망인력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학문적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대학과 연계하여 인턴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 등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국제적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은행, 금융투자사 등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외진출관련 업무에 능숙한 인력은 배출·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해당 기관들은 해외진출 관련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

■ 따라서 금융기관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 금융법제, 비즈니스 문화 등을 교육함으로써 해외진출 업무 전문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업무 적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서의 금융 실무에 필요한 현지어를 교육하고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평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현지어 수업 및 과제 수행을 진행
- 다만 이와 같은 교육은 특화 교육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노력과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공관, KOTRA 등 해외진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진출 업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 우선 금융기관은 교육투자를 경영여건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의 원천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금융기관은 인력관리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입사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순환제를 시행하더라도, 중간관리자 이상부터는 상당기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공급 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생산성 연계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직적 임금체계로부터 탄력적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금융인력 인프라 구축

■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익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민관이 공동으로 육성해야 할 한시적 공공재라 할 수 있음.
- 이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 성장과실이 해당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전문인력은 국가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인력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전문인력의 집중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익목적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인력양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인력구조와 직종별·수준별 인력수요에 대한 기초통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력수급전망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임을 인식하고 조사의 신뢰도 향상, 인력수급 전망능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재 금융인력전망조사는 전수 조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출률이 낮아 통계적 오류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업체 또는 담당자에 대한 포상 실시 등을 통해 금융인력전망조사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도 있음.

I.연구배경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함.
 -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CFCI)와 WEF Financial Development Index에서도 인적 경쟁력을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 중임.
 -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 등을 위해서는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 전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들은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 영국은 주요 금융기관, 대학교, 연수기관 등으로 구성된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를 설립하여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기금 조성 등을 추진 중임.
 -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금융교육을 담당할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와 Wealth Management Insititute(WMI)의 협력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중임.
-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한 이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제10조)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초통계 및 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3년에는 금융연구원「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에서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또한, KAIST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06)하여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09~)·녹색금융특화 MBA사업('10~'13)을 통해 재직자교육 강화와 신성장산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금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금융전문인력 수요·공급 예측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설문조사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의 금융전문인력 규모를 추정하였음.

Ⅱ.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1. 조사

가. 조사대상

1) 국내 금융기관 현황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13년 6월 말 기준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탁(신탁협동조합)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의 금융회사 수는 1,38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은행 32개사, 보험 28개사, 증권/선물 41개사, 자산운용/신탁 74개사, 상호저축은행 90개사, 여신전문 52개사 등 총 1,070개 금융회사가 이번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음.

<표 II-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단위: 개, %)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	여신			신탁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신용카드	리스할부	신기술		
영업기관	57	24	31	62	85	7	11	91	8	46	12	949	1,383
응답회사	32	17	11	34	65	7	9	90	8	34	10	753	1,070
회수율(%)	56.1	70.8	35.5	54.8	76.5	100.0	81.8	98.9	100.0	73.9	83.3	79.3	77.4

2) 조사 현황

<표 II-2>

조사일정

일자	조사 현황
2013. 8. 5	기초통계 조사 협조를 위한 관계자 회의
8. 7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 보고
8. 9	인사담당자 e-mail 파악
~10. 1	설문조사
~11. 1	조사독려
~11.15	추가조사 및 조사종료

□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83개의 금융기관 중 1,070개의 기관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77.4%의 참여율을 기록함.

○ 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서 1,041개 기관의 148,935명이 응답한 데 비해 2013년에는 1,070개 기관(29개 기관 증가)에서 206,699명(57,764명 증가)이 응답함.

<표 II-3>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응답기관 인원¹⁾

(단위: 개, 명, %)

	영업기관수	고용인원 ²⁾	응답기관수	응답기관 인원
은행	57	138,042	32	113,531 (82.2)
보험	55	63,522	28	47,003 (74.0)
증권/선물	69	41,525	41	12,237 (29.5)
자산운용/신탁	96	5,557	74	3,833 (69.0)
상호저축	91	7,297	90	6,907 (94.7)
여신전문	66	25,774	52	15,331 (59.5)
신탁	949	9,739	753	7,857 (80.7)
총 계	1,383	291,456	1,070	206,699 (70.9)

주 : 1) 영업기관수 및 고용인원은 2013년 6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신탁의 경우 협회자료 이용

2) 고용인원은 비상근임원을 제외한 총임직원과 기타 및 직원의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2013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시 비정규직(계약직)에 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근을 제외한 총임직원과 직원의 인원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 직원의 인원은 촉탁 및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함. 단, 은행의 경우 총임직원과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의 인원, 해외근무임직원, 국외은행 임직원을 합한 수치에 비상근임원을 뺀 수치임.

3) ()의 수치는 고용인원 대비 조사기관 인원의 비율임.

1) <참고> 금융통계월보 상 고용인원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탁	총계
고용인원	137,124	63,522	42,796	5,948	7,570	25,909	18,091	300,960

자료: 금융통계월보

주: 금융권역별 고용인원은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금융월보」에 공시되어 있으나, 취합된 업무보고서가 상이하여 고용인원의 총합이 다를 수 있음.

나. 조사방법

- 금변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 직원의 70.9%를 대상으로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12년 기준 외국계기관의 고용인원은 전체금융기관 인력의 약 5.7%에 불과하여 국내기관과 외국계기관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표 II-4>

조 사 항 목

구 분	세 부 내 용
성별	남/여
직무	경영관리/영업·마케팅/영업지원/자산운용/자산관리/보험/투자은행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총근무기간	5년 미만/5~10년 미만/10~15년 미만/15~20년 미만/20년이상
현직무 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사내연수/외부연수/해외연수
자격증	변호사/회계사/국가기타/법정/공인/비공인/AICPA/CFA/FRM/국제기타
급여	2,500만원 미만/2,500~5,000만원 미만/5,000~7,500만원 미만/ 7,500~1억원미만/1억원~1.5억원 미만/1.5억원 이상
연령	20대이하/20대/30대/40대/50대 이상
국적	내국인/외국인
학력	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전공	(대학) 경영·회계/경제/전산/법학/기타
	(대학원) MBA/경영·경제/전산/기타
어학능력	(영어) 상/중/하
	(제2외국어) 중국어/일본어/기타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7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7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12년도에는 10개 그룹, 41개의 세분류된 직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13년도에는 직무의 재분류, 불필요한 세부 직무항목의 통폐합 및 항목 개선을 거쳐 7개 그룹, 27개 직무로 조정하였음.

- 금번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부가조사와 채용현황 조사 대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전년의 경우 기초통계 조사와 더불어 시행된 부가조사에서 해외학위 취득자, 해외근무 경력자, Specialist²⁾ 현황, 산학협력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학위 취득자 및 해외근무경력자와 직무연수 현황 조사가 기초통계 조사에 포함 되었음.
 - 또한, 2012년 조사에서 시행되었던 전년도 채용현황 조사 대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신입직/경력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한편, 금융회사 인력 채용시 성별로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각 세부직무별 성별분류는 하지 않았음.

2) 2012년에 이루어진 Specialist 현황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Specialist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제시된 것이 없으나 금융권의 전문가 협의회 결과 각 금융사에서 일반 직무그룹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표 II -5>

금융업 직무 해설표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정보기기관리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영업지원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참고>

2012년 금융업 직무 해설표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영지원	일반 경영 지원	기획, 인사, 교육, 비서, 홍보, 서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조사 연구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보 시스템 관련 기획, 개발, 운영, 정보기기 관리 등 관련 업무
	재무관리	회계, 결산, 세무, 이익 관리 등
	법무/감사	법무, 감사 등 관련 업무
	사후관리	Back Office 업무(결제, 회계, 기표, 대사, 원리금 회수 등), 여수신 및 카드 사후관리, 부실채권 관리 및 정리 등 관련 업무
마케팅	상품 개발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 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영업기획·지원	상품 마케팅, 영업활동 지원, 채널관리를 수행
보험	Claim 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 내용과 청약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 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연금	연금계획 관리	고객의 연금투자 계획 및 지급 등 연금 계획과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
	퇴직연금 자문	퇴직연금 관련 총체적 자문을 수행
영업	개인 일반 영업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또는 펀드/보험상품, 신탁상품 및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 고객지원(콜센터) 업무
	PB	거액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
	기업 영업	기업여신 및 기업 대상 방카슈랑스 상품, 기타 금융상품 판매
	기업여신 심사	개별 기업의 여신을 분석,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
	유가증권 중개	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 파생상품 중개
	투자 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 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리스크 관리	자산부채관리(ALM)	장부상 자산, 부채를 기반으로 유동성 및 향후 현금흐름 예측, 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
	시장리스크관리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내 위험요소들을 측정, 관리
	신용리스크관리	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 판단 정책 수립, 신용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고객신용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운영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 통제
자금조달	창구영업 외 자금조달	원화, 외화자금조달 기획, 조달, 조달자금 관리 등 업무

	세부직무	직무개요
자산 관리	펀드관리	펀드 거래 및 수익 평가, 포트폴리오 관리 등의 펀드운용에 관한 제 반 업무를 수행
	주식운용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채권운용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운용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화자금 운용	단기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 표시 유가증권 의 매매, 해외발행 외화 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신탁관리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기타 자산 투자(부동산 등)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평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준법 감시	준법감시	법규준수와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 감시 및 예방을 수행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를 예방, 포착하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투자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을 수행
	자산유동화	비유동성 자산을 유가증권/채무증서로 전환, 자산유동화 과정에의 참 여 및 자문 수행
	Principal Investment	자사가 보유한 고유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및 M&A에 직접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
	국제 투융자	고객의 해외사업 관련 금융 자문, 차입 주선 및 참여와 해외사업 관 련 여신 등을 수행
	유가증권 인수	유가증권(주식/채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을 수행
	M&A, IPO 등 자문	M&A, 구조 조정, IPO 등의 업무 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 관리를 수행
	Private Equity	소수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

□ 상기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
통용자격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 자격증의 분류는
다음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표 II-6>

자격증 분류표

구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 조사항목 중 ‘어학능력(영어)’ 부분은 아래의 참고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조사함.

○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고, TOEFL과 TEPS 및 OPIc의 성적은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표 II-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TOEFL			TEPS	OPIc	TOEI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 업권 간의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를 거쳐 분석을 시행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좌우되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표 II-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업 권	가 중 치
은 행	1.215897
보 험	1.351446
증권/선물	3.393397
자산운용/신탁	1.449778
상호저축	1.056464
여신전문	1.681169
신협	1.239532

주 : 가중치는 업권별로 [고용인원/응답기관인원]의 방법으로 산출함.

□ 분석결과는 각 업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권 간 직접 비교는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2.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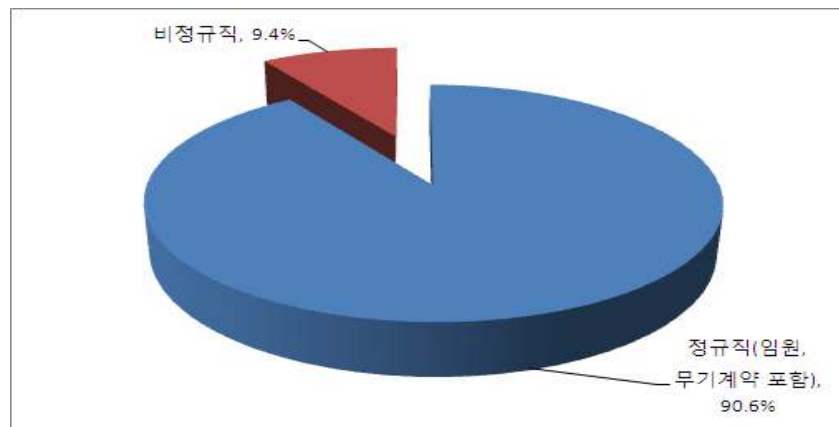
가. 개요

1) 금융인력 고용

□ 고용 형태별 인력 비중

- 고용 형태별로는 조사대상의 90.6%가 정규직이고, 9.4%가 비정규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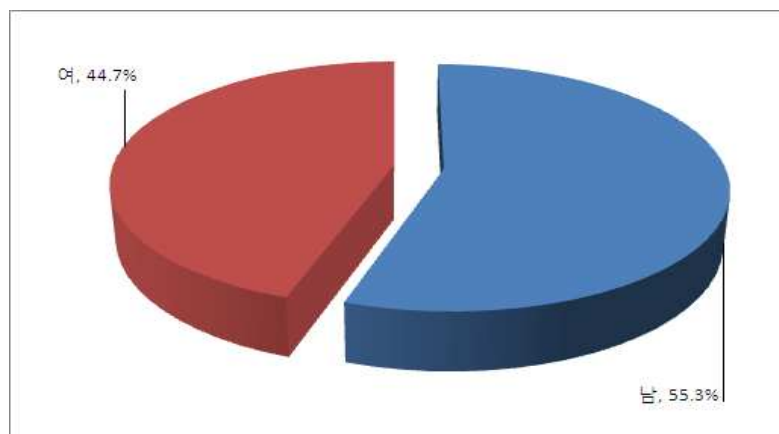
<그림 II-1> 고용 형태별 인력 비중



□ 성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의 55.3%가 남성이고, 44.7%는 여성임.

<그림 II-2> 성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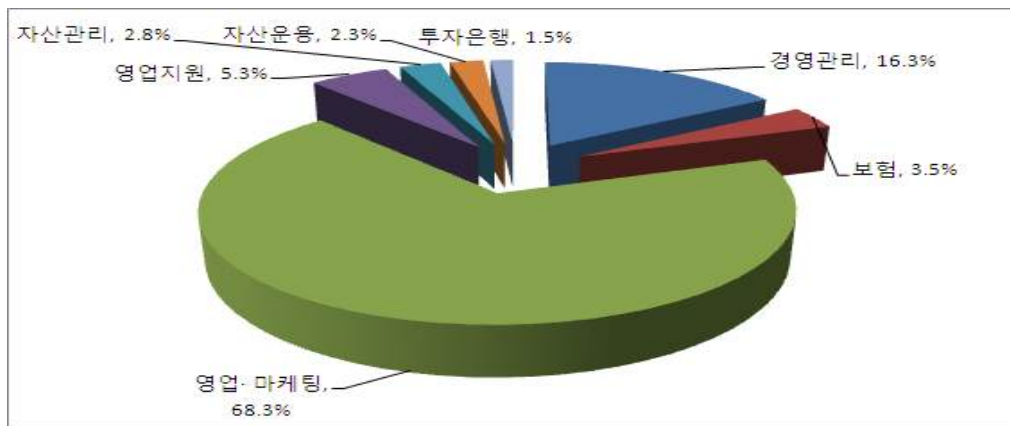
2) 금융인력 관리

□ 직무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 금융인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 (68.3%)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6.3%), 영업지원(5.3%), 보험(3.5%), 자산관리(2.8%), 자산운용(2.3%), 투자은행(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

직무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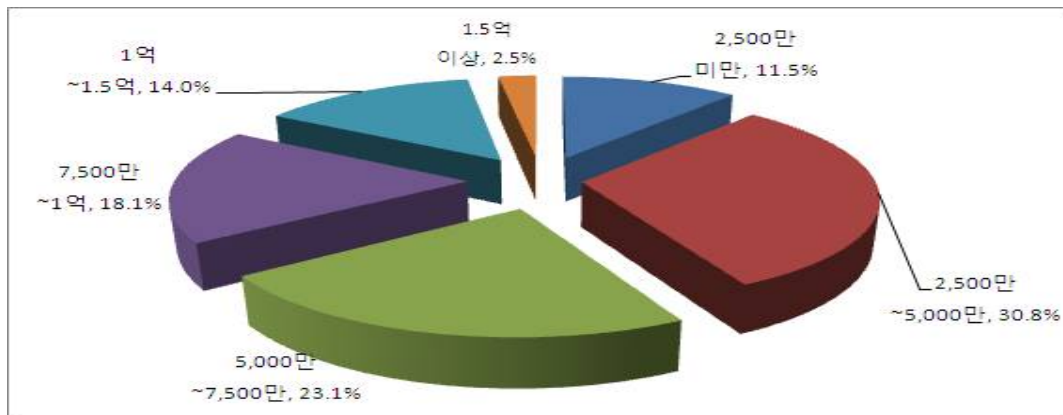


□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소득자가 전체의 30.8%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5,000~7,500만원(23.1%), 7,500만원~1억원(18.1%), 1억~1.5억원 (14.0%), 2,500만원 미만(11.5%), 1.5억 이상(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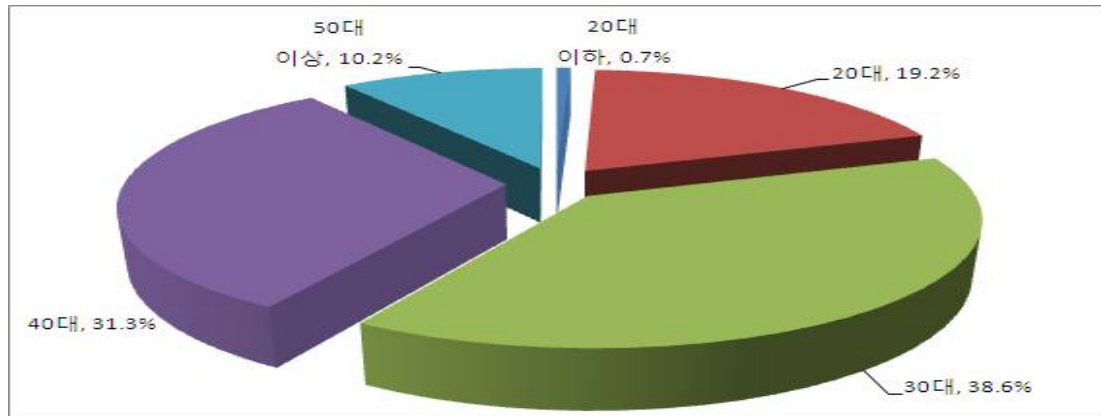
급여 수준별 인력 비중



□ 연령별 인력 비중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40대(31.3%), 20대(19.2%), 50대 이상(10.2%) 순이고 20대 이하는 소수(0.7%)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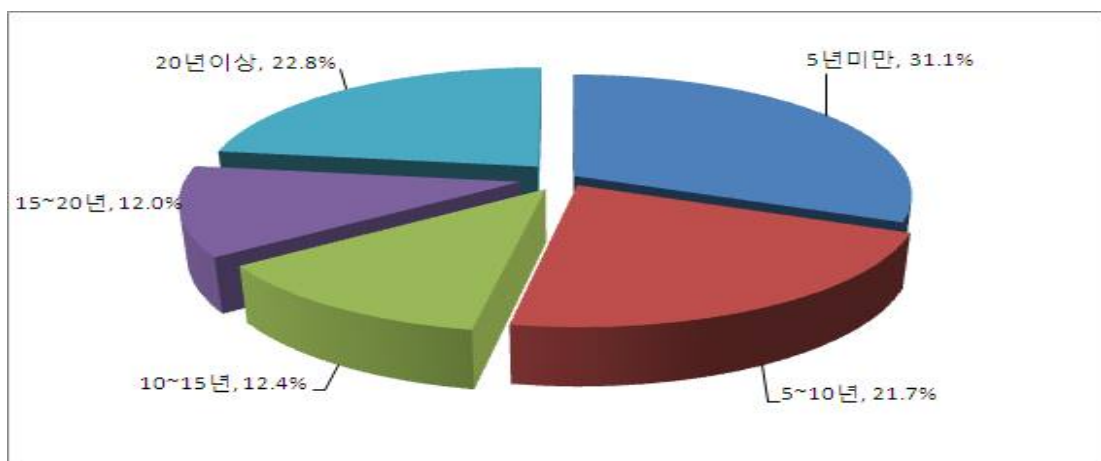
<그림 II-5> 연령별 인력 비중



□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 금융업 총근무 기간별로는 근무기간 5년 미만인 금융인력의 비중이 전체의 31.1%이고, 20년 이상 22.8%, 5~10년 21.7%, 10년~15년 12.4%, 15~20년 12.0%로 나타남.

<그림 II-6>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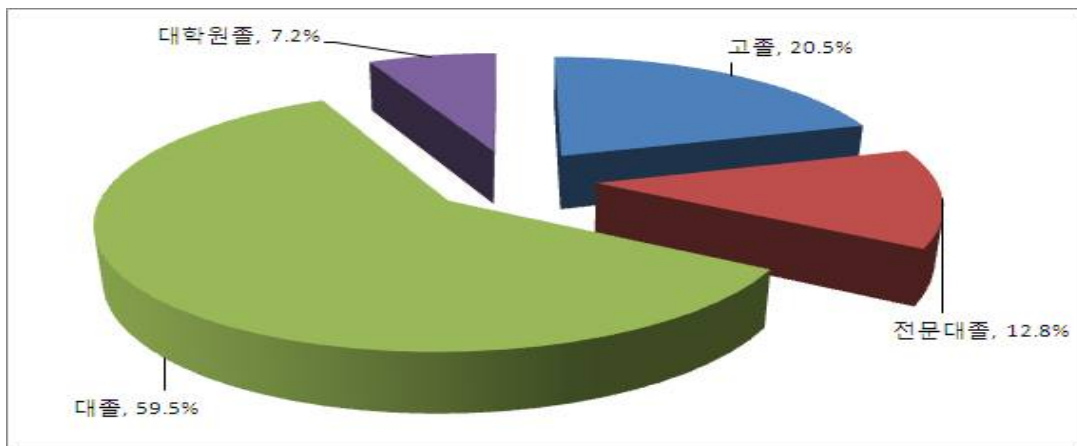


3) 금융인력 교육

□ 학력별 인력 비중

- 학력별로는 대졸이 과반 이상(59.5%)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고졸(20.5%), 전문대졸(12.8%), 대학원졸(7.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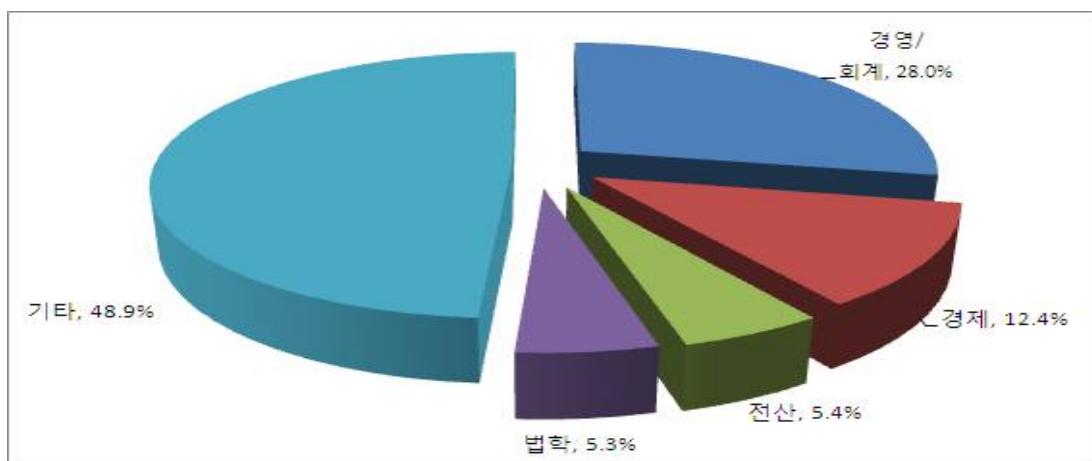
<그림 II-7> 학력별 인력비중



□ 전공(대졸)별 인력 비중

- 대졸자의 전공별 인력 비중은 경영/회계(28.0%), 경제(12.4%), 전산(5.4%), 법학(5.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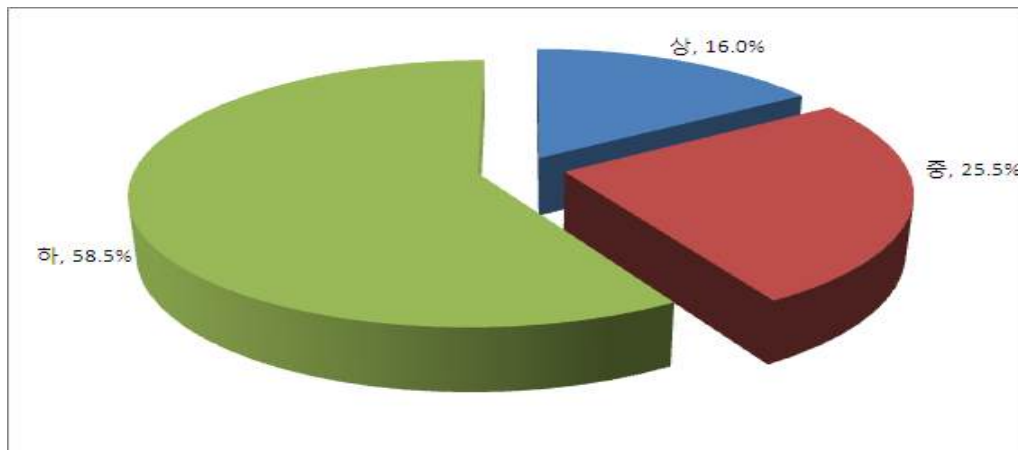
<그림 II-8> 전공(대졸)별 인력비율



□ 영어능력별 인력 비중

- 영어능력 기준으로 '상'에 해당하는 인력비중은 전체 인력의 16.0%에 불과하고, '중'이 25.5%, '하'가 58.5%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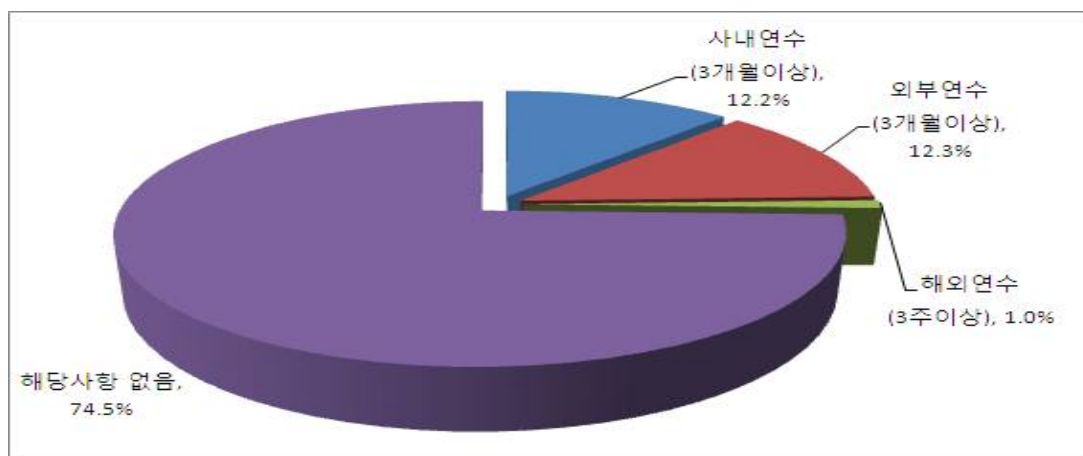
<그림 II-9> 영어 능력별 인력비중



□ 재직자 직무연수 인력 비중

-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보면, 외부연수(3개월이상) 경험이 있는 인력의 비중이 12.3%로 가장 많고, 사내연수(3개월이상) 12.2%, 해외연수(3주이상) 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0> 재직자 직무연수 인력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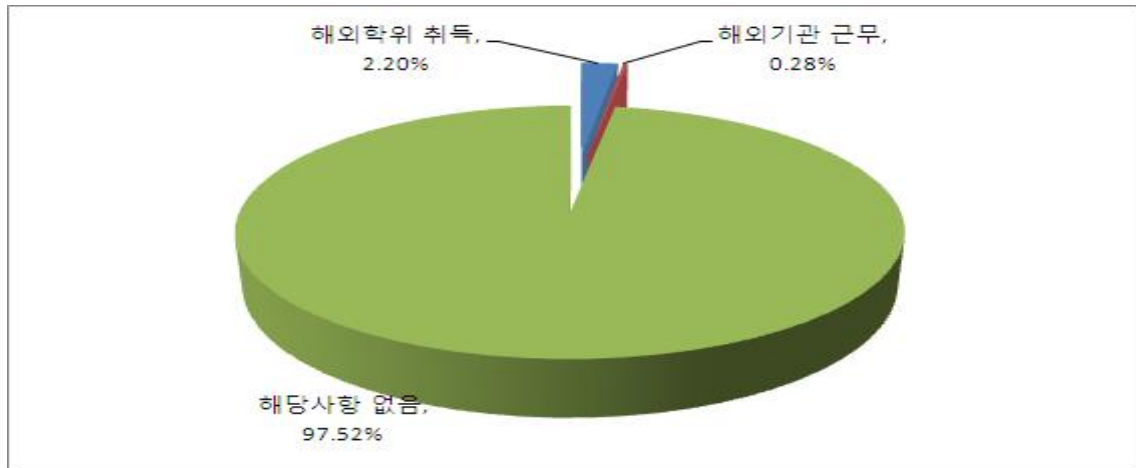


3) TOEIC점수를 기준으로 환산함. 상(TOEIC 875이상), 중(TOEIC 725~875), 하(TOEIC 725미만)

□ 해외학위 취득자 및 해외근무 경력자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해외학위 취득자와 해외근무 경력자의 비중은 각각 2.20%와 0.28%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II-11> 해외학위 취득자 및 해외근무 경력자 인력비중



나. 세부 분석결과

1) 금융인력 고용

(1) 고용형태

① 업권별 고용형태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정규직 비중은 90.6%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4⁴⁾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업권별로는 은행과 신탁(각각 93.8%)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상호저축(78.2%)과 여신전문(79.6%)은 낮은 수준임.

4)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참조

- 2013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비중이 90.7%, 비정규직 비중이 9.3%로 은행(93.8%), 신탁(93.8%), 보험(92.9%)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여신전문(79.6%), 상호저축(78.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 -9>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신탁
정규직	90.6	93.8	92.9	85.3
비정규직	9.4	6.2	7.1	14.7
계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정규직	89.4	78.2	79.6	93.8
비정규직	10.6	21.8	20.4	6.2
계	100.0	100.0	100.0	100.0

*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 형태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정규직	67.4	38.5	86.1	63.0	48.7	66.3	61.1	72.3
비정규직	32.6	61.5	13.9	37.0	51.3	33.7	38.9	2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3년 8월 기준)

② 직무별 고용 형태

직무별로는 보험과 자산관리 및 영업·마케팅의 정규직 비율(각각 95.3%, 92.4%, 92.1%)이 높게 나타남.

□ 직무별로는 보험과 자산관리 및 영업·마케팅의 정규직 비중(각각 95.3%, 92.4%, 92.1%)이 높게 조사됨.

○ 한편 투자은행과 영업지원 직무의 정규직 비중(각각 77.5%, 80.4%)은 비교적 낮게 조사됨.

<표 II-10> 직무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정규직	90.6	88.6	92.1	80.4	86.2	92.4	95.3	77.5
비정규직	9.4	11.4	7.9	19.6	13.8	7.6	4.7	2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 보면 보험직무 중에서도 Claim 관리 및 손해사정, 보험 계리 직무의 정규직 비중이 각각 95.7%, 95.4%, 95.4%로 높게 나타났고, 영업지원 직무의 채권추심 부분의 정규직 비중이 70.1%로 가장 낮게 조사됨.

<표 II-11>

세부직무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세부직무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93.8	6.2	100.0
	인사·총무·홍보	87.3	12.7	100.0
	조사 연구·리서치	79.1	20.9	100.0
	IT/보안	92.1	7.9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80.9	19.1	100.0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92.5	7.5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93.1	6.9	100.0
	상품개발	92.1	7.9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88.0	12.0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83.0	17.0	100.0
	결제	90.1	9.9	100.0
	채권추심	70.1	29.9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89.7	10.3	100.0
	파생상품	75.1	24.9	100.0
	외환	91.3	8.7	100.0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86.8	13.2	100.0
자산관리	신탁	93.0	7.0	100.0
	연금	89.8	10.2	100.0
	투자자문	84.9	15.1	100.0
	PB	93.1	6.9	100.0
보험	Claim관리	95.7	4.3	100.0
	언더라이팅	94.4	5.6	100.0
	손해사정	95.4	4.6	100.0
	보험계리	95.4	4.6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73.6	26.4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80.7	19.3	100.0
	M&A	82.0	18.0	100.0

(2) 여성 고용

① 업권별 여성 고용현황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고용비율(44.7%)은 과반에 미치지 못함. 업권별로는 보험(49.5%)과 은행(47.1%)에서 높게, 자산운용(26.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사대상 전체에 금융업권의 여성 고용 비율은 44.7%로 나타남.

○ 이는 201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여성 취업자 비율인 42.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업권별 여성 고용 비율은 보험이 49.5%로 가장 높고, 은행(47.1%), 신탁(41.6%) 순으로 나타남.

○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6.8%)로 조사됨.

<표 II-12>

업권별 여성 고용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신탁
남성	55.3	52.9	50.5	63.7
여성	44.7	47.1	49.5	36.3
계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남성	73.2	62.4	59.1	58.4
여성	26.8	37.6	40.9	41.6
계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여성 고용 현황

직무별 여성 종사자의 고용 비율은 영업·마케팅(50.0%)에서 가장 높게, 투자은행(17.9%)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남녀 구성비로 보았을 때 영업·마케팅 부문의 여성 고용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금융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투자은행 직무의 여성고용 비율은 17.9%로 다른 직무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13>

직무별 여성 고용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남성	55.3	67.3	50.0	60.8	77.8	57.6	67.0	82.1
여성	44.7	32.7	50.0	39.2	22.2	42.4	33.0	1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는 영업지원 부문의 결제 직무와 보험 부문의 언더라이팅 직무, 영업·마케팅의 개인영업 직무에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고용비율은 결제 직무에서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더라이팅 61.2%, 개인영업 55.2% 순임.
 - 반면, 투자은행 직무 중에서 M&A 부문의 여성고용 비율은 14.8%로 가장 낮게 조사됨.

<표 II-14>

세부직무별 여성고용 비중

(단위 : %)

	세부직무	남	여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72.4	27.6	100.0
	인사·총무·홍보	52.7	47.3	100.0
	조사 연구·리서치	70.1	29.9	100.0
	IT/보안	78.4	21.6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78.2	21.8	100.0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44.8	55.2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74.9	25.1	100.0
	상품개발	66.0	34.0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51.5	48.5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62.4	37.6	100.0
	결제	29.4	70.6	100.0
	채권추심	78.2	21.8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76.6	23.4	100.0
	파생상품	83.0	17.0	100.0
	외환	65.0	35.0	100.0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84.6	15.4	100.0
자산관리	신탁	70.3	29.7	100.0
	연금	62.1	37.9	100.0
	투자자문	80.5	19.5	100.0
	PB	51.1	48.9	100.0
보험	Claim관리	70.6	29.4	100.0
	언더라이팅	38.8	61.2	100.0
	손해사정	77.9	22.1	100.0
	보험계리	55.7	44.3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82.7	17.3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80.8	19.2	100.0
	M&A	85.2	14.8	100.0

- 여성의 직무 분포를 업권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여성인력이 주로 영업·마케팅 직무에 편중(각각 84.6%, 77.9%)되어 있음.

<표 II -15>

여성의 직무 분포 비율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경영관리	11.9	8.8	11.6	19.4
영업·마케팅	76.6	84.6	75.6	56.3
영업지원	4.6	3.5	1.2	6.9
자산운용	1.1	0.6	0.6	3.2
자산관리	2.6	2.1	0.6	11.0
보험	2.6	0.0	10.3	0.0
투자은행	0.6	0.4	0.0	3.2
계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경영관리	34.4	14.4	12.6	23.1
영업·마케팅	19.5	77.9	67.8	72.3
영업지원	9.1	7.1	18.4	1.7
자산운용	26.2	0.2	0.1	0.6
자산관리	10.7	0.1	0.1	1.9
보험	0.0	0.2	0.8	0.3
투자은행	0.0	0.1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3) 외국인 고용

① 업권별 외국인 고용현황

조사대상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외국인 비율은 0.6%로 매우 낮아 국제적인 금융인력의 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종사자 중 외국인 비중은 0.6%로 매우 낮음.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2.4%)과 증권/선물(1.5%)의 외국인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종의 경우 0.5% 미만의 고용비율을 보임.

<표 II-16>

업권별 외국인 고용 비율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내국인	99.4	99.6	99.7	98.5
외국인	0.6	0.4	0.3	1.5
계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내국인	97.6	99.6	99.7	100.0
외국인	2.4	0.4	0.3	0.0
계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외국인 고용 현황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업·마케팅에 직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고, 자산운용, 경영관리, 투자은행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무별 고용분포를 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자산운용, 경영관리, 투자은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영업·마케팅, 자산관리, 보험, 영업지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외국인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분포하는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 것은 동 직무의 대고객 업무 비중이 높은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II-17>

외국인의 직무 분포

(단위 : %)

	전체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내국인(A)	100.0	16.1	68.7	5.2	2.2	2.8	3.5	1.4
외국인(B)	100.0	22.6	53.7	4.7	9.4	1.5	2.5	5.6
B-A	-	6.4	-14.9	-0.5	7.2	-1.3	-1.0	4.2
계	100.0	16.2	68.6	5.2	2.2	2.8	3.5	1.5

2) 금융인력 관리

(1) 직무

① 업권별 직무 현황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걸쳐 영업·마케팅 직무의 인력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자산운용/신탁은 영업·마케팅의 인력 비중이 낮고, 자산운용 직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 (68.3%)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6.3%), 영업지원(5.3), 보험(3.5%), 자산관리(2.8%)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도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는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의 영업·마케팅 직무에 투입된 인력 비율이 높은 것은 대고객 창구를 통한 개인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은행의 특성을 반영함.
-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인력투입이 높은 부문은 자산운용(33.8%) 직무이며, 이어 경영관리(24.5%), 영업·마케팅(24.2%) 순임.

<표 II-18>

업권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경영관리	16.3	12.2	16.4	23.7
영업·마케팅	68.3	79.8	64.0	49.8
영업지원	5.3	4.2	1.3	4.5
자산운용	2.3	1.0	1.3	5.5
자산관리	2.8	1.8	1.2	9.5
보험	3.5	0.1	15.7	0.0
투자은행	1.5	0.9	0.1	7.0
계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경영관리	24.5	22.3	17.4	31.0
영업·마케팅	24.2	60.1	61.9	61.7
영업지원	5.1	16.6	19.1	5.5
자산운용	33.8	0.4	0.5	0.6
자산관리	12.4	0.1	0.2	1.0
보험	0.0	0.2	0.5	0.2
투자은행	0.0	0.5	0.5	0.0
계	100.0	100.0	100.0	100.0

② 성별 직무 현황

자산운용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영업·마케팅 부문이 가장 높게 조사됨.

□ 대부분의 업권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영업·마케팅과 경영관리 직무의 인력 비중이 높게 조사됨.

○ 특히, 은행과 상호저축에서 여성의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은 각각 84.6%, 77.9%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은행, 상호저축이 대고객 창구영업에 여성을 집중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응답기관 중 고용인원에 대한 성별구분이 누락된 기관이 있어 <표 II-18>의 업권별 직무비중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 II-19>

업권·성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경영관리	19.8	11.9	16.2	15.2	8.8	12.2	21.1	11.6	16.4	25.7	19.4	23.4
영업·마케팅	61.9	76.6	68.5	75.5	84.6	79.8	52.6	75.6	64.0	46.9	56.3	50.3
영업지원	5.8	4.6	5.2	4.8	3.5	4.2	1.4	1.2	1.3	2.8	6.9	4.3
자산운용	3.2	1.1	2.3	1.3	0.6	1.0	2.1	0.6	1.3	6.9	3.2	5.6
자산관리	2.9	2.6	2.8	1.6	2.1	1.8	1.8	0.6	1.2	8.9	11.0	9.7
보험	4.3	2.6	3.5	0.1	0.0	0.1	20.9	10.3	15.7	0.0	0.0	0.0
투자은행	2.2	0.6	1.5	1.4	0.4	0.9	0.2	0.0	0.1	8.8	3.2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허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경영관리	20.8	34.4	24.5	25.6	14.4	21.4	20.7	12.6	17.4	36.6	23.1	31.0
영업·마케팅	25.9	19.5	24.2	51.6	77.9	61.5	57.7	67.8	61.9	54.0	72.3	61.7
영업지원	3.7	9.1	5.1	21.4	7.1	16.0	19.6	18.4	19.1	8.3	1.7	5.5
자산운용	36.6	26.2	33.8	0.5	0.2	0.4	0.9	0.1	0.5	0.6	0.6	0.6
자산관리	13.0	10.7	12.4	0.0	0.1	0.1	0.2	0.1	0.2	0.3	1.9	1.0
보험	0.0	0.0	0.0	0.1	0.2	0.2	0.3	0.8	0.5	0.2	0.3	0.2
투자은행	0.0	0.0	0.0	0.8	0.1	0.5	0.7	0.2	0.5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연령별 직무 현황

모든 연령대에서 영업·마케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령의 직무 분포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영업·마케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업·마케팅 종사비율은 낮아지고 경영관리 부문의 종사비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20대 이하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영관리 직무비중은 50대 이상에서 23.7%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에서 5.4%로 가장 낮음.

* 응답기관 중 고용인원에 대한 연령구분이 누락된 기관이 있어 <표 II-18>의 업권별 직무비중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 II-20>

연령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2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영관리	16.7	5.4	12.5	17.0	15.3	23.7
영업·마케팅	68.2	83.0	74.5	65.1	69.5	66.4
영업지원	5.2	1.9	4.6	6.0	4.9	4.4
자산운용	2.3	0.4	1.8	3.0	2.2	0.7
자산관리	2.8	8.6	2.1	2.9	3.2	2.1
보험	3.4	0.3	3.3	4.3	3.3	1.6
투자은행	1.4	0.3	1.1	1.7	1.5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교육정도(학력, 전공, 자격증)별 직무 현황

학력별 인력 비중을 보면, 경영관리, 자산운용, 자산관리, 투자은행 직무는 학력이 높을수록, 영업·마케팅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졸자의 전공분포에 있어서는 모든 업권에서 상경계(경영·경제)가 가장 높은데,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57.6%, 56.8%에 달하여 가장 높은 반면, 보험 직무에서는 27.8%로 가장 낮음.

□ 학력별로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비중을 보면, 영업·마케팅은 학력이 낮을수록, 경영관리, 자산운용, 자산관리, 투자은행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고졸 학력자의 대다수(81.1%)가 영업·마케팅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졸 학력자는 47.5%가 영업·마케팅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 학력자의 자산운용과 자산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각각 0.3%, 1.5%에 그친 것에 비하여, 대학원졸 학력자는 각각 8.5%, 4.1%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관 중 고용인원에 대한 학력별 구분이 누락된 기관이 있어 <표 II-18>의 업권별 직무비중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 II-21>

학력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경영관리	16.1	10.3	12.4	17.7	26.4
영업·마케팅	68.7	81.1	73.4	66.0	47.5
영업지원	5.2	5.1	5.5	4.9	7.0
자산운용	2.2	0.3	0.5	2.6	8.5
자산관리	2.8	1.5	1.6	3.3	4.1
보험	3.5	1.6	6.4	3.8	1.9
투자은행	1.4	0.2	0.2	1.7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편, 직무별로 대학 전공 분포를 보면, 모든 직무에서 상경계가 가장 높는데 직무별로는 자산운용 직무가 57.6%로 가장 높고, 보험 부문이 27.8%로 가장 낮음.

○ 이는 모든 직무 중에서 투자은행 직무 부문이 전문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을 암시함.

<표 II -22>

직무별 대졸 전공 분포

(단위 : %)

	전체	상경계			전산	법학	기타
			경영/회계	경제			
경영관리	100.0	35.6	25.0	10.6	15.4	6.0	43.1
영업·마케팅	100.0	41.1	28.5	12.6	3.2	4.8	50.9
영업지원	100.0	37.9	25.8	12.0	3.9	8.7	49.5
자산운용	100.0	57.6	38.2	19.4	4.1	2.3	36.0
자산관리	100.0	47.7	33.7	14.0	2.8	4.6	44.9
보험	100.0	27.8	18.8	9.0	4.9	9.0	58.2
투자은행	100.0	56.8	37.5	19.3	1.4	4.2	37.6
계	100.0	40.4	28.0	12.4	5.4	5.3	48.9

(2) 급여수준

① 업권별 급여 수준 현황

금융권 급여수준은 전체 고용자의 30.8%가 2,500~5,0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남.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에서 1.5억 이상 고액 연봉자의 비중(9.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57.7%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율은 2,500만원 미만 11.5%, 2,500~5,000만원 30.8%, 5,000~7,500만원 23.1%, 7,500만원~1억원 18.1%, 1억~1.5억원 14.0%, 1.5억원 이상이 2.5%이었음.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증권/선물 등 금융투자업권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각각 9.4%, 5.3%)이 전체 평균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1억 이상 연봉자의 비중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6.5%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고액연봉자가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고액 연봉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응답비중이 금년도 조사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의 응답인원은 2012년 74,919명에서 2013년 113,531명으로 약51.5%(38,612명 증가) 증가하였으며,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은행의 업권별 비중도 2012년 40.7%에서 2013년에는 47.4%로 증가함.

<표 II -23>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2,500만원 미만	11.5	13.3	11.5	6.9	2.6	14.4	5.5	20.6
2,500~5,000만원 미만	30.8	22.2	35.8	33.5	27.9	58.8	46.6	52.2
5,000~7,500만원 미만	23.1	18.5	26.1	31.3	28.1	18.4	30.5	20.5
7,500만원~1억 미만	18.1	22.6	14.9	16.2	18.7	5.0	11.9	5.8
1억~1.5억 미만	14.0	20.9	10.2	6.8	13.4	2.6	4.7	0.9
1.5억 이상	2.5	2.4	1.6	5.3	9.4	0.7	0.8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급여수준 현황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직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마케팅 직무가 상대적으로 낮음.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관리의 경우 2,500~5,000만원, 자산운용, 보험, 투자은행의 경우 5,000~7,500만원 임금대가 가장 많음.

- 직무별 급여 수준은 투자은행, 자산운용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마케팅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관리 직무에서는 2,500~5,000만원 (각각 28.1%, 31.2%, 39.5%, 34.0%), 자산운용, 보험, 투자은행 직무에서는 5,000~7,500만원 (각각 29.3%, 37.6%, 26.8%)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II -24>

직무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2,500만원 미만	11.5	8.2	13.2	8.1	4.6	6.0	7.4	7.6
2,500~5,000만원 미만	30.8	28.1	31.2	39.5	22.0	34.0	31.2	16.7
5,000~7,500만원 미만	23.1	27.9	20.8	23.5	29.3	28.3	37.6	26.8
7,500만원~1억 미만	18.1	18.6	17.9	15.8	20.2	18.1	18.9	23.4
1억~1.5억 미만	14.0	13.0	15.0	11.3	14.3	11.8	4.2	14.4
1.5억 이상	2.5	4.2	1.9	1.8	9.7	1.9	0.5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는 투자은행 부문의 기업금융과 M&A 직무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자의 비중이 각각 13.7%, 13.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영업·마케팅 부문의 개인영업 직무에서 2,500만원 이하 비중은 14.9%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여성의 고용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던 결제, 개인영업과 언더라이팅 직무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자의 비중은 각각 1.8%, 1.4%, 0.5%로 낮게 나타난 반면, 2,500만원 이하 비중은 각각 12.0%, 14.9%, 11.2%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 -25>

세부직무별 급여 수준 비율

(단위 : %)

	세부직무	2,500 만원 미만	2,500 ~5,000만원 미만	5,000~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1억 미만	1억~ 1.5억 미만	1.5억 이상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6.2	26.4	25.6	19.6	13.6	8.5	100.0
	인사·총무·홍보	13.8	37.4	23.4	13.9	9.7	1.9	100.0
	조사 연구·리서치	5.7	23.1	27.6	17.6	15.8	10.1	100.0
	IT/보안	3.1	24.2	35.6	20.9	14.4	1.8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6.4	13.6	31.2	27.0	17.8	4.1	100.0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 (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14.9	32.4	18.9	17.5	14.9	1.4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5.5	21.7	26.3	22.6	18.9	5.0	100.0
	상품개발	3.8	29.7	36.3	17.8	10.3	2.1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12.9	34.4	23.7	15.2	12.2	1.7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8	36.0	24.8	17.8	14.9	2.7	100.0
	결제	12.0	43.4	24.2	11.4	7.3	1.8	100.0
	채권추심	12.4	42.4	21.4	15.2	8.2	0.5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3.2	24.2	28.9	20.0	14.9	8.8	100.0
	파생상품	7.2	18.9	30.4	18.5	12.7	12.3	100.0
	외환	8.4	23.9	28.5	21.7	9.7	7.8	100.0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1.8	17.4	29.6	22.1	18.4	10.7	100.0
자산관리	신탁	6.0	22.5	28.1	22.5	16.9	4.0	100.0
	연금	5.5	22.1	31.0	24.0	14.2	3.1	100.0
	투자자문	4.4	10.2	22.4	33.0	28.2	1.8	100.0
	PB	6.2	41.1	28.3	14.8	8.6	1.0	100.0
보험	Claim관리	2.9	25.9	33.6	31.0	5.8	0.7	100.0
	언더라이팅	11.2	37.0	34.3	14.6	2.5	0.5	100.0
	손해사정	8.7	31.0	42.3	14.4	3.5	0.1	100.0
	보험계리	4.5	37.0	30.9	16.2	8.0	3.4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6.3	18.0	27.3	23.4	16.0	9.0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8.6	17.7	27.4	21.4	11.2	13.7	100.0
	M&A	11.4	4.0	21.6	31.9	18.0	13.2	100.0

(3) 연령

① 업권별 연령 현황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구조는 30대(38.6%)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3%), 20대(19.2%), 50대 이상(10.2%), 20대 이하(0.7%) 순으로 향아리 형태임.

업권별로는 신탁과 은행에서 50대 이상 비율이 각각 15.2%, 14.3%로 타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금융권 종사자의 연령층 분포는 30대(38.6%)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3%), 20대(19.2%), 50대 이상(10.2%), 20대 이하(0.7%)의 순으로 중간층이 두터운 향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업권별로 50대 이상의 연령 비중을 보면, 신탁과 은행이 각각 15.2%, 14.3%로 업권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어 자산운용/신탁(8.9%), 상호저축(8.0%), 증권/선물(7.9%), 보험(4.7%), 여신전문(3.95) 순으로 나타남.

<표 II -26>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20대 이하	0.7	0.8	0.6	0.7	0.1	0.4	0.4	0.7
20대	19.2	18.2	20.4	18.1	14.8	22.5	21.1	25.9
30대	38.6	32.4	43.1	44.1	48.1	48.7	49.2	33.6
40대	31.3	34.3	31.2	29.1	28.0	20.4	25.4	24.7
50대 이상	10.2	14.3	4.7	7.9	8.9	8.0	3.9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연령 현황

모든 직무에서 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투자은행의 경우 20대 비중이 타 직무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직무별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직무에서 30대의 비율(38.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40대의 비율(31.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은행(14.0%) 및 자산관리(14.5%), 경영관리(14.8%) 직무 부문에서는 20대의 비중이 타 직무에 비해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다른 부문보다 20대 비중이 낮고 30대와 4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직무 특성상 고학력, 전문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함을 반영함.

<표 II-27>

직무별 연령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 은행
20대 이하	0.7	0.2	0.9	0.3	0.1	2.2	0.1	0.1
20대	19.2	14.8	20.9	17.0	15.4	14.5	18.3	14.0
30대	38.6	40.4	36.6	44.6	50.7	39.9	47.2	45.4
40대	31.3	29.6	31.8	29.6	30.5	35.6	29.7	33.5
50대 이상	10.2	14.8	9.9	8.6	3.2	7.8	4.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도 대부분의 직무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자산운용 부문의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 관련 직무와 보험 부문의 언더라이팅 직무에서는 30대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와 기업영업, PB 직무부문에서는 40대의 비중이 30대 비중보다 높게 조사됨.

<표 II -28>

세부직무별 연령 비중

(단위 : %)

	세부직무	2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0.2	13.6	37.6	29.4	19.2	100.0
	인사·총무·홍보	0.3	18.0	43.9	22.7	15.1	100.0
	조사 연구·리서치	0.0	21.8	44.8	27.5	5.9	100.0
	IT/보안	0.2	13.8	43.3	36.3	6.4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0.1	6.3	28.2	39.4	26.0	100.0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1.1	21.8	35.9	31.1	10.1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0.4	15.5	34.6	39.2	10.2	100.0
	상품개발	0.4	21.0	47.1	28.1	3.4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0.2	21.4	41.6	27.7	9.0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0.1	15.7	45.9	30.0	8.3	100.0
	결제	0.6	27.6	46.6	20.9	4.4	100.0
	채권추심	0.3	12.1	41.4	34.4	11.9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0.0	16.3	48.9	31.3	3.5	100.0
	파생상품	0.1	15.1	53.2	30.2	1.5	100.0
	외환	0.3	14.7	54.3	27.3	3.5	100.0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0.3	14.0	50.2	30.9	4.6	100.0
자산관리	신탁	0.2	17.1	46.5	29.7	6.4	100.0
	연금	0.0	18.3	46.2	30.1	5.5	100.0
	투자자문	0.0	10.0	43.3	42.4	4.2	100.0
	PB	3.3	13.3	36.5	38.0	8.9	100.0
보험	Claim관리	0.1	12.0	42.2	36.7	9.0	100.0
	언더라이팅	0.1	23.5	55.2	19.7	1.4	100.0
	손해사정	0.1	17.2	46.5	31.9	4.4	100.0
	보험계리	0.0	34.0	47.5	17.0	1.5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0.1	13.7	46.1	33.1	7.1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0.2	14.7	44.0	35.3	5.8	100.0
	M&A	0.0	12.0	47.8	28.2	12.1	100.0

(4) 근무기간(총/현직무)

① 총 근무 기간별 인력 현황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무기간별 인력구조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4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년 미만(31.1%), 5~10년(21.7%) 순임. 10년 이상 장기 근속 인력 비중은 업권별로는 은행(54.3%),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49.0%) 부문에서 가장 높음.

□ 금융기관 전체 종사자의 금융업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7.2%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5년 미만 31.1%, 5~10년 21.7%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인력구조의 허리 부분인 10~20년 경력자의 비율이 낮은 표주박형 인력구조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구조 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54.3%)이 가장 높고 이어 신탁(45.5%), 보험(43.4%), 증권/선물(38.8%), 자산운용/ 신탁(38.5%), 여신전문(36.6%), 상호저축(33.3%) 순으로 나타남.

<표 II -29>

업권별 총 근무 기간 비율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5년미만	31.1	27.0	37.2	28.1	29.2	38.2	41.7	33.2
5~10년	21.7	18.7	19.4	33.1	32.3	28.5	21.7	21.4
10년 이상	47.2	54.3	43.4	38.8	38.5	33.3	36.6	45.5
10~15년	12.4	8.2	11.5	20.7	19.3	16.1	19.1	18.5
15~20년	12.0	10.4	19.3	8.0	12.0	7.7	10.1	14.0
20년이상	22.8	35.6	12.6	10.1	7.2	9.4	7.4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무별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비율을 보면, 영업·마케팅(49.0%)이 가장 높고 경영관리(45.8%), 자산관리(42.8%), 보험(41.4%), 영업지원(41.2%), 투자은행(39.2%), 자산운용(34.6%)의 순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직무의 장기 근속자 비율이 낮은 것은 해당 직무의 비율이 높은 증권/선물 및 자산운용/신탁사의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투자직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 -30>

직무별 총 근무 기간 비율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 은행
5년미만	31.1	30.1	30.8	35.7	33.1	33.4	30.9	31.6
5~10년	21.7	24.1	20.2	23.1	32.3	23.8	27.7	29.2
10년 이상	47.2	45.8	49.0	41.2	34.6	42.8	41.4	39.2
10~15년	12.4	16.3	10.9	14.0	17.1	13.8	15.0	16.0
15~20년	12.0	11.8	12.2	10.3	9.8	10.7	15.3	10.5
20년이상	22.8	17.7	25.9	16.9	7.8	18.2	11.0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는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56.2%), 기업영업(55.7%)에서 과반수 이상의 인력이 1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기업영업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인력 비율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세부직무별로 현직무에서 5년 연속 근무한 인력 비율은 손해사정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PB 관련 직무가 40.9%로 높게 조사됨.

<표 II -31>

세부직무별 근무기간 비율

(단위 : %)

	세부직무	5년 미만	5 ~10년	10년 이상				합계	5년 연속
					10~15 년	15~20 년	20년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27.7	23.2	49.0	15.8	13.1	20.1	100.0	23.2
	인사·총무·홍보	28.6	29.9	41.5	14.9	10.3	16.3	100.0	14.8
	조사 연구·리서치	41.0	26.7	32.3	12.5	9.9	9.9	100.0	11.1
	IT/보안	32.9	19.5	47.6	20.5	11.3	15.8	100.0	19.5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28.3	15.6	56.2	15.4	15.5	25.3	100.0	15.3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 (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31.3	19.3	49.4	10.3	12.1	27.1	100.0	7.9
	기업영업(법인브로커)	25.0	19.3	55.7	11.8	14.1	29.7	100.0	11.3
	상품개발	38.9	25.0	36.1	15.7	10.6	9.8	100.0	13.8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33.4	26.0	40.5	13.2	10.9	16.4	100.0	9.9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3.5	25.4	41.1	13.8	10.6	16.7	100.0	15.6
	결제	36.0	30.5	33.5	15.0	7.6	10.9	100.0	20.4
	채권추심	38.6	15.4	46.0	13.8	11.6	20.6	100.0	14.8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30.5	32.5	37.0	18.9	10.3	7.8	100.0	26.8
	파생상품	37.4	33.6	29.0	16.8	7.0	5.2	100.0	17.8
	외환	33.1	30.1	36.7	13.9	11.2	11.7	100.0	11.2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35.6	31.5	33.0	14.4	10.4	8.2	100.0	29.9
자산관리	신탁	34.7	28.9	36.4	16.4	11.2	8.8	100.0	16.6
	연금	37.2	32.6	30.2	8.7	9.9	11.6	100.0	12.3
	투자자문	29.4	25.0	45.6	15.0	12.0	18.6	100.0	9.2
	PB	32.7	20.6	46.7	13.8	10.6	22.4	100.0	40.9
보험	Claim관리	21.2	31.9	47.0	15.0	16.2	15.7	100.0	32.6
	언더라이팅	35.8	25.9	38.3	11.6	18.9	7.9	100.0	29.3
	손해사정	31.4	26.4	42.1	16.7	14.5	10.8	100.0	43.5
	보험계리	53.1	25.1	21.9	13.3	5.9	2.6	100.0	2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35.4	27.4	37.2	12.7	10.6	13.9	100.0	10.2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30.0	29.8	40.1	20.4	11.0	8.8	100.0	13.0
	M&A	18.2	35.9	45.8	12.9	7.2	25.7	100.0	16.6

②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인력 현황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현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의 비중을 보면,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46.0%), 상호저축(28.6%), 신탁(27.2%), 증권/선물(21.0%), 직무별로는 보험(36.3%), 자산관리(31.4%) 자산운용(23.4%) 직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금융업 전체에서 현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비중은 12.4%에 불과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이 46.0%로 가장 높고, 이어 상호저축(28.6%), 신탁(27.2%), 증권/선물(21.0%), 보험(19.9%), 여신전문(15.8%), 은행(3.0%) 순으로 나타남.
 - 은행의 경우,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순환근무제가 일반적임에 따라 현 직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는 보험(36.3%), 자산관리(31.4%), 자산운용(23.4%), 경영관리(17.6%)에서 높게 나타났고, 영업지원(16.3%), 투자은행(11.9%), 영업·마케팅(8.7%) 순임.

<표 II -32> 업권별·직무별 현 직무 5년 연속 근무자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전체	12.4	3.0	19.9	21.0	46.0	28.6	15.8	27.2
경영관리	17.6	8.0	22.9	17.3	41.4	28.9	18.1	38.8
영업·마케팅	8.7	1.6	15.3	18.4	56.1	29.7	15.4	21.5
영업지원	16.3	11.6	22.6	22.1	43.4	23.9	14.6	27.1
자산운용	23.4	11.7	11.6	11.4	50.3	42.3	32.1	32.7
자산관리	31.4	3.9	17.8	52.5	26.8	40.0	66.7	18.7
보험	36.3	0.0	37.2	-	-	36.4	0.0	17.6
투자은행	11.9	9.4	18.8	12.8	-	8.8	17.8	-

3) 금융인력 교육

(1) 학력

① 업권별 학력 현황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을 보면, 대졸이(59.5%)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0.5%), 전문대졸(12.8%), 대학원졸(7.2%) 순으로 나타남. 업권별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자산운용/신탁(93.5%), 증권/선물(82.4%) 업권에서 높게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9.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0.5%), 전문대졸(12.8%), 대학원졸(7.2%)의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93.5%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82.4%), 상호저축(68.8%), 여신전문(66.8%), 은행(65.3%), 보험(60.3%), 신탁(46.8%) 순임.

○ 자산운용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은 동 업종의 업무 난이도가 높아 고학력자가 선호된다는 것 외에도, 과거보다는 고학력자가 많아진 최근 사회적 현상을 타 업권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임.

<표 II -33>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 축	여신전문	신탁
고졸	20.5	25.3	20.8	8.2	3.2	14.4	16.4	26.5
전문대졸	12.8	9.4	18.9	9.4	3.3	16.7	16.9	26.7
대졸이상	66.7	65.3	60.3	82.4	93.5	68.8	66.8	46.8
대졸	59.5	59.1	54.6	70.8	68.8	65.1	58.6	44.1
대학원졸	7.2	6.2	5.7	11.6	24.7	3.7	8.2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학력 현황

직무별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투자은행 직무(95.5%)에서 가장 높고, 이어 자산운용(94.9%), 자산관리(81.6%), 경영관리(77.0%) 순으로 나타남.

□ 직무별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투자은행 직무(9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자산운용(94.9%), 자산관리(81.6%), 경영관리(77.0%) 순임.

○ 투자은행 직무의 고학력자 비중(대졸 72.4%, 대학원졸 23.1%)이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구조화금융(ABS, PF, PBS 등),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 IPO 등) 및 M&A등 투자은행 직무의 난이도가 타 직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가 선호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II -34>

직무별 학력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고졸	20.5	13.1	24.2	20.0	2.4	11.1	9.3	2.8
전문대졸	12.8	9.9	13.7	13.7	2.7	7.3	23.2	1.7
대졸이상	66.7	77.0	62.1	66.3	94.9	81.6	67.5	95.5
대졸	59.5	65.2	57.2	56.6	67.6	71.0	63.6	72.4
대학원졸	7.2	11.8	5.0	9.7	27.3	10.6	3.9	2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는 보험계리 직무의 대졸이상자 인력비중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은행 직무부문과 자산운용 직무부문은 세부직무별로도 모든 직무군에서 대졸이상자의 인력비율이 90%를 넘어, 다른 직무부문에 비해 고학력 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자산운용 직무부문의 Alternative Investment(32.9%)와 파생상품 직무(32.8%)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채권추심과 개인영업 직무의 경우 고졸자의 비중이 각각 31.3%, 28.0%로 다른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 -35>

세부직무별 학력 비중

(단위 : %)

	세부직무	고졸	전문 대졸	대학 이상	대학		합계
					대학	대학 원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9.9	8.2	81.8	65.4	16.4	100.0
	인사·총무·홍보	19.6	15.0	65.3	58.7	6.7	100.0
	조사 연구·리서치	5.8	3.4	90.8	63.2	27.6	100.0
	IT/보안	8.8	7.6	83.7	74.2	9.5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12.1	5.3	82.6	68.5	14.1	100.0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28.0	15.1	57.0	53.5	3.5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14.9	5.8	79.3	70.9	8.4	100.0
	상품개발	5.9	4.4	89.7	74.0	15.7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14.1	15.1	70.8	62.0	8.8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14.5	9.7	75.8	59.7	16.1	100.0
	결제	14.6	14.6	70.8	67.0	3.8	100.0
	채권추심	31.3	19.0	49.7	45.9	3.8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2.4	3.8	93.8	69.3	24.5	100.0
	파생상품	2.3	1.0	96.7	63.9	32.8	100.0
	외환	4.0	1.6	94.3	72.4	22.0	100.0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1.4	2.2	96.4	63.5	32.9	100.0
자산관리	신탁	4.5	5.0	90.5	72.2	18.3	100.0
	연금	5.5	5.2	89.2	78.0	11.2	100.0
	투자자문	4.1	4.4	91.5	62.9	28.6	100.0
	PB	14.7	8.6	76.6	70.0	6.7	100.0
보험	Claim관리	10.8	18.3	70.9	67.0	3.9	100.0
	언더라이팅	14.1	18.3	67.5	62.3	5.2	100.0
	손해사정	7.8	30.4	61.8	60.1	1.7	100.0
	보험계리	0.6	1.2	98.2	82.0	16.2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2.7	1.9	95.5	70.5	25.0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2.3	1.9	95.8	74.0	21.8	100.0
	M&A	6.0	0.0	94.0	75.6	18.4	100.0

(2) 전공(대학/대학원)

① 업권별 전공 현황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28.0%, 경제 12.4%, 전산 5.4%, 법학 5.3%의 순으로 조사됨.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0.7%, MBA 16.6%, 전산 4.8%로 나타남.

① 업권별 대출자의 전공 비중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28.0%, 경제 12.4%, 전산 5.4%, 법학 5.3%, 기타 48.9%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업권에서 대출자 전공 비중은 경영/회계, 경제, 법학, 전산 순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상경계열(경영/회계, 경제)의 비중이 50.4%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표 II -36>

업권별 대출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상경계	40.4	40.1	35.1	49.4	50.4	38.0	36.3	37.6
경영/회계	28.0	28.3	23.8	32.5	36.4	26.3	25.8	29.3
경제	12.4	11.8	11.3	16.9	14.0	11.7	10.5	8.3
전산	5.4	4.4	6.2	7.2	3.7	6.0	6.3	4.8
법학	5.3	5.1	6.1	3.4	7.6	6.8	7.2	4.5
기타	48.9	50.4	52.6	40.0	38.3	49.2	50.2	5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 비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0.8%, MBA 16.5%, 전산 4.9%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상호저축, 은행, 증권/선물에서 경영/경제의 비중(각각 54.0%, 45.6%, 43.6%)이 타 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 -37>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MBA	16.5	18.2	15.7	13.2	18.6	9.7	15.8	36.1
경영/경제	40.8	45.6	31.1	43.6	36.8	54.0	33.0	36.1
전산	4.9	2.9	8.4	5.4	1.4	4.0	9.0	1.0
기타	37.8	33.3	44.8	37.8	43.1	32.3	42.1	2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전공 현황

직무별로는 경영/회계 전공이 자산운용, 투자은행, 자산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학원 전공을 보면, 전 직무에서 경영/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A의 경우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① 직무별 대졸자의 전공 비중

□ 직무별 대학 전공을 보면, 경영/회계 전공자의 비중이 자산운용(38.2%), 투자은행(37.5%), 자산관리(33.7%), 영업·마케팅(28.5%), 영업지원(25.8%), 경영관리(25.0%), 보험(1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산 전공자의 경우 IT업무가 포함된 경영관리(15.4%) 직무에 고용된 비중이 높게 조사됨.

<표 II -38>

직무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경영/회계	28.0	25.0	28.5	25.8	38.2	33.7	18.8	37.5
경제	12.4	10.6	12.6	12.0	19.4	14.0	9.0	19.3
전산	5.4	15.4	3.2	3.9	4.1	2.8	4.9	1.4
법학	5.3	6.0	4.8	8.7	2.3	4.6	9.0	4.2
기타	48.9	43.1	50.9	49.5	36.0	44.9	58.2	3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도 IT/보안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경영/회계 전공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투자은행 직무의 M&A 부문에서 경영/회계 전공자 비중이 46.1%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반면에 보험계리 직무의 경우 경영/회계 전공자 비중이 9.7%, 경제전공자 비중이 6.4%로 상경제 전공자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 -39>

세부직무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세부 직무	경영/ 회계	경제	전산	법학	기타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39.9	15.2	2.8	4.6	37.5	100.0
	인사·총무·홍보	25.1	10.9	3.3	4.7	56.1	100.0
	조사 연구·리서치	35.5	21.3	3.6	1.6	37.9	100.0
	IT/보안	8.7	3.0	49.8	2.0	36.5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25.3	12.0	4.4	21.8	36.6	100.0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27.6	11.9	3.0	4.8	52.7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33.5	16.0	2.5	5.4	42.6	100.0
	상품개발	24.2	12.0	7.0	3.4	53.3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27.8	11.9	4.6	4.7	51.2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27.9	13.5	4.8	7.8	45.9	100.0
	결제	23.7	12.3	2.2	1.7	60.2	100.0
	채권추심	23.8	8.9	3.6	16.4	47.4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41.9	20.1	3.5	2.0	32.5	100.0
	파생상품	31.0	18.8	8.2	2.3	39.7	100.0
	외환	33.8	20.6	2.1	2.5	41.0	100.0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39.1	16.6	2.4	3.3	38.5	100.0
자산관리	신탁	30.2	13.9	3.0	6.8	46.1	100.0
	연금	32.7	14.3	5.1	4.0	43.9	100.0
	투자자문	36.4	18.2	1.1	5.5	38.8	100.0
	PB	34.9	13.6	2.4	4.0	45.1	100.0
보험	Claim관리	22.8	8.9	2.4	7.8	58.1	100.0
	언더라이팅	17.0	10.7	3.0	4.1	65.3	100.0
	손해사정	19.0	8.8	5.3	12.2	54.8	100.0
	보험계리	9.7	6.4	15.4	6.9	61.6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35.8	17.9	1.5	4.9	39.9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37.6	20.9	1.3	3.5	36.7	100.0
	M&A	46.1	19.1	1.3	4.2	29.3	100.0

② 직무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 비중

□ 직무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을 보면 경영/경제 전공이 가장 높는데, 영업·마케팅(44.7%), 자산운용(42.5%), 자산관리(42.8%), 투자은행(37.2%), 경영관리(36.5%), 영업지원(34.2%), 보험(23.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MBA 전공자의 경우 투자은행(26.9%)과 자산운용(1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II -40>

직무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MBA	16.5	16.5	16.7	11.8	18.5	12.9	6.2	26.9
경영/경제	40.8	36.5	44.7	34.2	42.5	42.8	23.3	37.2
전산	4.9	10.3	2.5	8.5	2.7	1.5	4.5	0.8
기타	37.8	36.8	36.1	45.4	36.2	42.8	66.1	3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부직무별로는 대학원 졸업자 중 경영/경제 전공자의 비중은 PB 직무에서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A 전공자 비중은 M&A 직무에서 36.5%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반면, 보험직무의 경우 모든 세부직무군에서 상경계열 전공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41>

세부직무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세부직무	MBA	경영/ 경제	전산	기타	합계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25.0	43.7	3.3	28.1	100.0
	인사·총무·홍보	17.3	34.7	2.0	46.0	100.0
	조사 연구·리서치	13.3	47.9	5.3	33.5	100.0
	IT/보안	6.8	17.1	42.2	33.9	100.0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11.5	35.8	2.3	50.4	100.0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14.1	48.0	1.7	36.2	100.0
	기업영업(법인브로커)	19.7	47.1	2.0	31.2	100.0
	상품개발	16.5	29.6	6.7	47.2	100.0
	마케팅 기획·고객관리	19.7	38.3	3.8	38.2	100.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10.1	33.0	9.9	47.0	100.0
	결제	22.9	38.9	4.6	33.6	100.0
	채권추심	16.5	39.1	1.8	42.6	100.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21.2	49.4	3.4	26.0	100.0
	파생상품	12.6	39.9	3.3	44.3	100.0
	외환	16.8	46.3	0.7	36.3	100.0
	Alternative Investment (헤지펀드, PEF)	21.1	27.8	1.4	49.7	100.0
자산관리	신탁	10.2	35.0	1.3	53.6	100.0
	연금	24.7	36.4	4.2	34.7	100.0
	투자자문	30.1	38.0	2.4	29.5	100.0
	PB	6.9	53.1	0.8	39.2	100.0
보험	Claim관리	5.6	23.3	2.8	68.3	100.0
	언더라이팅	10.3	20.5	2.6	66.7	100.0
	손해사정	4.6	28.2	3.1	64.1	100.0
	보험계리	3.9	22.1	9.1	64.9	100.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ABS, PF, PBS)	22.1	37.7	1.6	38.6	100.0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Mgmt.)	31.9	35.0	0.0	33.1	100.0
	M&A	36.5	45.2	0.0	18.3	100.0

(3) 외국어 능력

① 업권별 외국어 능력 현황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33.9%가 영어능력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영어구사능력은 하위수준이 58.5%를 차지한 반면, 상위수준은 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2외국어 능력의 경우,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1.3% 만이 제2외국어 능력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① 업권별 영어 능력 현황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하위 수준이 58.5%이고, 상위 수준은 16.0%에 불과함.

□ 업권별로는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상위수준이 각각 47.8%, 38.5%를 기록하여 은행(15.5%), 보험(11.4%), 신탁(1.8) 등 타업권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표 II -42>

업권별 영어능력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영어능력 자격증 보유	33.9	33.6	45.0	12.2	52.9	41.8	28.5	57.7
영어 상	16.0	15.5	11.4	47.8	38.5	7.8	19.6	1.8
영어 중	25.5	25.1	17.5	36.7	50.0	44.9	37.8	19.1
영어 하	58.5	59.3	71.0	15.5	11.5	47.3	42.5	7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업권별 제2외국어 능력⁵⁾ 현황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 가운데 제2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비중은 1.3%에 불과한데, 대부분 일본어(42.9%) 및 중국어(39.7%) 능력에 치중되어 있음.

<표 II -43>

업권별 제2외국어 능력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제2외국어능력 자격보유	1.3	1.72	1.17	0.25	1.46	1.66	0.63	1.96
중국어	39.7	37.6	56.1	41.9	48.2	15.7	39.6	11.7
일본어	42.9	47.9	27.5	51.6	26.8	67.0	55.2	18.2
기 타	17.4	14.5	16.4	6.5	25.0	17.4	5.2	7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제2외국어의 경우 각 언어별 어학능력평가시험에서 최소 등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작성

② 직무별 외국어 능력 현황

직무별로 영어 능력 상위자 비중은 투자은행 직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제2외국어 능력의 경우, 경영관리, 자산운용 직무가 각각 1.65%, 1.36%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보험의 경우 0.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① 직무별 영어 능력 현황

□ 직무별로 영어 능력 상위자 비중을 보면, 투자은행이 53.2%, 자산운용이 48.4%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 및 영업·마케팅이 각각 9.6%, 12.5%로 낮게 나타남.

○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 직무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라 외국인과의 접촉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이 해당 인력의 영어능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 -44>

직무별 영어능력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영어능력 자격증 보유	33.9	39.4	32.2	31.1	37.6	24.4	53.7	30.7
영어 상	16.0	20.0	12.5	23.3	48.4	24.2	9.6	53.2
영어 중	25.5	30.1	23.9	32.9	31.9	33.3	16.5	22.7
영어 하	58.5	49.9	63.6	43.8	19.7	42.5	73.9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제2외국어 능력 현황

□ 전체 금융기관 인력 중 직무별 제2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비중을 보면, 경영관리, 자산운용 직무가 각각 1.65%, 1.36%로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보험의 경우 0.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경영관리, 자산운용 직무의 평균학력이 가장 높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II -45>

직무별 제2외국어능력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제2외국어 능력 자격 보유	1.3	1.65	1.25	1.23	1.36	1.14	0.76	1.11
중국어	39.7	38.6	38.5	38.9	65.5	40.1	65.6	29.2
일본어	42.9	38.0	45.2	48.4	29.9	44.0	27.5	35.1
기타	17.4	23.4	16.3	12.7	4.6	15.9	7.0	3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자격증

①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황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중은 86.41%이며, 국제통용자격증 소지자 비중은 3.34%를 차지함.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중은 86.41%이며, 국제통용자격증의 경우 전체 금융업 종사자의 3.34%가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 자격증별로는 국가자격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각각 0.11%, 0.32%이며, 법정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57.1%에 이르고 있음.

□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의 경우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100%를 상회하여 복수의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 -46>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가자격	2.12	1.14	4.50	1.55	6.78	1.53	0.76	4.12
변호사	0.11	0.06	0.12	0.21	0.63	0.06	0.18	0.00
공인회계사	0.32	0.22	0.12	0.70	2.90	0.16	0.40	0.01
기타	1.68	0.87	4.26	0.64	3.26	1.32	0.18	4.11
법정자격	57.10	72.25	35.71	87.97	45.13	20.92	10.40	7.79
민간자격	23.85	37.26	13.63	13.51	7.36	11.58	5.75	11.00
공인	15.71	23.99	6.71	12.83	5.27	7.83	5.37	8.40
비공인	8.14	13.27	6.93	0.68	2.09	3.75	0.38	2.60
국제통용	3.34	1.47	1.94	12.85	9.08	0.75	2.20	0.11
AICPA	0.35	0.36	0.22	0.49	2.17	0.12	0.24	0.00
CFA	0.51	0.21	0.41	1.71	3.37	0.07	0.11	0.01
FRM	0.62	0.64	0.37	1.08	2.56	0.19	0.31	0.00
기타	1.86	0.26	0.94	9.57	0.99	0.38	1.55	0.10
계	86.41	112.12	55.79	115.88	68.35	34.79	19.11	23.02

②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현황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중은 영업·마케팅, 자산운용, 투자은행 직무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국제통용자격증의 소지 비중은 자산운용, 투자은행 직무에서 높게 조사됨.

□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 비중을 직무별로 보면, 영업·마케팅(96.78), 자산운용(95.35%), 투자은행(85.55%), 자산관리(68.91%), 경영관리(62.39%), 영업지원(59.82%), 보험(44.65%) 순으로 나타남.

○ 국제통용자격증의 경우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직무에서 각각 19.05%, 18.53%로 타 직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I -47> 직무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국가자격	2.12	2.94	1.08	1.90	2.86	2.43	16.42	6.11
변호사	0.11	0.60	0.01	0.08	0.05	0.02	0.03	0.20
공인회계사	0.32	0.69	0.08	0.56	2.17	0.32	0.03	4.62
기타	1.68	1.65	0.99	1.26	0.64	2.09	16.37	1.29
법정자격	57.10	37.20	66.80	32.26	59.51	40.00	13.32	49.88
민간자격	23.85	15.95	27.21	20.44	13.93	22.41	13.47	11.03
공인	15.71	9.79	18.11	14.51	9.61	17.06	3.77	9.27
비공인	8.14	6.15	9.09	5.93	4.32	5.35	9.70	1.76
국제통용	3.34	6.31	1.69	5.23	19.05	4.07	1.44	18.53
AICPA	0.35	0.79	0.15	0.36	1.74	0.71	0.07	2.96
CFA	0.51	0.76	0.18	0.67	5.96	1.11	0.05	3.65
FRM	0.62	0.69	0.36	2.11	4.28	0.79	0.16	1.38
기타	1.86	4.06	1.00	2.09	7.07	1.47	1.17	10.55
계	86.41	62.39	96.78	59.82	95.35	68.91	44.65	85.55

(5) 직무연수

① 업권별 연수 현황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직원의 교육에 직무연수를 활용하는 비중은 25.5%로 낮은 수준임.

- 업권별로는 은행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이 3.8%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3개월 이상의 사내연수, 외부연수, 혹은 해외연수를 받은 비중은 25.5%임.

-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받은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사내연수 및 외부연수를 받은 비중은 각각 12.2%와 12.3%임.

□ 업권별 직무연수 비중은 은행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이 3.8%로 가장 낮게 조사된 반면,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보험이 1.8%로 가장 높게 조사됨.

<표 II -48>

업권별 연수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연수경험	25.5	46.6	3.8	7.1	6.1	14.2	10.8	4.2
사내연수 (3개월이상)	12.2	23.5	1.4	0.7	4.6	11.2	1.7	3.3
외부연수 (3개월이상)	12.3	22.0	0.6	6.1	1.4	2.8	8.9	0.9
해외연수 (3주이상)	1.0	1.2	1.8	0.2	0.1	0.2	0.2	0.0
연수없음	74.5	53.4	96.2	92.9	93.9	85.8	89.2	9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직무별 연수 현황

직무별 연수 비중을 보면 영업·마케팅 부문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 부문은 2.8%로 가장 낮음.

□ 직무별 연수현황을 보면, 영업·마케팅 부문이 29.9%로 다른 직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영업지원(18.6%)과 경영관리(18.7%), 자산관리(16.7%), 투자은행(12.6%), 자산운용(11.7%), 보험(2.8%) 순으로 나타남.

○ 해외연수 경험은 투자은행 부문이 2.5%로 다른 직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49>

직무별 연수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연수경험	25.5	18.7	29.9	18.6	11.7	16.7	2.8	12.6
사내연수 (3개월이상)	12.2	8.7	14.5	8.6	4.2	7.1	1.3	3.0
외부연수 (3개월이상)	12.3	8.4	14.6	9.3	5.7	8.8	0.6	7.0
해외연수 (3주이상)	1.0	1.5	0.8	0.7	1.7	0.8	0.9	2.5
연수없음	74.5	81.3	70.1	81.4	88.3	83.3	97.2	8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해외경력

① 해외학위 취득자

해외학위 취득자 비중은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2.20%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의 비율이 9.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무별로는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에서 각각 12.43%, 12.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해외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2.20%임.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의 해외학위 취득자 비율이 9.81%로 타 업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은행과 상호저축의 경우 각각 1.50%,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직무에 따른 해외학위 취득자 비율을 보면,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각각 12.43%, 12.1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관리(3.54%), 자산관리(2.33%), 영업지원(2.06%), 영업·마케팅(1.37%), 보험(1.36%) 순으로 나타남.

<표 II -50> 업권별·직무별 해외학위 취득자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계	2.20	1.50	2.01	4.51	9.81	1.04	2.21	-
경영관리	3.54	2.14	4.76	5.31	7.66	2.34	3.60	-
영업·마케팅	1.37	1.14	0.93	3.12	7.12	0.70	2.01	-
영업지원	2.06	2.10	5.56	4.17	5.61	0.26	1.09	-
자산운용	12.43	7.69	17.69	11.36	14.90	4.00	16.67	-
자산관리	2.33	2.30	8.70	0.34	7.16	0.00	0.00	-
보험	1.36	2.94	1.37	-	-	0.00	0.00	-
투자은행	12.12	12.78	4.17	12.21	-	9.38	8.22	-

② 해외금융기관 근무경력자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해외근무 2년 이상 경력자의 비중은 0.2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1.5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업권에서는 모두 1%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직무별로는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부문이 각각 2.06%, 2.05%로 가장 높고 나머지 부문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해외근무 2년 이상 경력자의 비중은 0.2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1.57%로 다른 업권에 비하여 매우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1%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직무별로는 자산운용(2.06%)과 투자은행(2.05%) 직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 미만의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II -51> 업권별·직무별 해외금융기관 근무경력자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계	0.28	0.07	0.23	0.87	1.57	0.52	0.41	0.01
경영관리	0.58	0.16	0.35	1.41	1.70	1.17	0.71	-
영업·마케팅	0.11	0.03	0.12	0.26	0.54	0.34	0.34	0.02
영업지원	0.46	0.38	0.98	1.45	-	0.17	0.24	-
자산운용	2.06	0.73	2.05	2.21	2.70	-	4.76	-
자산관리	0.14	0.05	0.52	-	0.84	-	-	-
보험	0.29	-	0.28	-	-	-	1.41	-
투자은행	2.05	-	-	3.05	-	6.25	-	-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가. 조사현황 및 개요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83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3년 8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신입직의 경우 186개 기관에서, 경력직의 경우 116개 기관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52>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기관

(단위: 개,%)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저축은행		여신		신탁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조사 기관	57		55		69		96		91		66		949	
응답 기관	10	5	16	16	9	9	18	28	35	24	18	19	80	15
회수율 (%)	17.5	8.8	29.1	29.1	13.0	13.0	18.8	29.2	38.5	26.4	27.3	28.8	8.4	1.6

주: 응답기관의 수는 향후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는 기관만을 표시한 것으로 무응답 기관과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13년에 이루어진 「향후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응답률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음.

나. 조사결과⁶⁾

① 전체 채용 예상 규모

향후 1년 이내 총 추가 채용 예상 규모는 7,642명으로 이 중 신입직은 6,236명, 경력직은 1,406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입직을 더 많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7,564명으로 이중 신입직 채용예정 인원은 6,236명(81.6%),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은 1,406명(18.4%)으로 신입직 채용 규모가 경력직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채용이 예정된 신입직의 경우 전체 인원 중 90%에 가까운 수가 보험과 은행 업권에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됨.
 - 경력직의 경우에도 보험에서 가장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신입직과 달리 은행보다는 여신전문, 상호저축에서 더 많은 채용이 예상됨.
- 업권별로 보면, 은행, 보험, 신탁, 상호저축의 경우에는 신입직(각각 98.2%, 85.6%, 79.1%, 50.3%)을 자산운용/신탁, 증권/신탁, 여신전문의 경우에는 경력직(각각 75.7%, 67.5%, 60.0%)을 더 많이 채용할 예정으로 나타남.

6) 이는 전수화하지 않은 통계임.

<표 II -53>**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신입직	6,236	2,075	3,511	79	28	237	170	136
	(81.6)	(98.2)	(85.6)	(32.5)	(24.3)	(50.3)	(40.0)	(79.1)
경력직	1,406	39	591	164	87	234	255	36
	(18.4)	(1.8)	(14.4)	(67.5)	(75.7)	(49.7)	(60.0)	(20.9)
계	7,642	2,114	4,102	243	115	471	425	1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무별로 보면, 영업·마케팅, 보험, 경영관리 직무의 경우 신입직(각각 88.4%, 87.0%, 61.3%)이 투자은행, 자산운용, 영업지원, 자산관리직무의 경우에는 경력직(각각 84.4%, 84.2%, 56.8%, 56.4%)의 채용이 더 많이 예정되어 있음.

○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II -54>**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보험	투자 은행
신입직	6,196	463	4,981	112	22	34	577	7
	(81.8)	(61.3)	(88.4)	(43.2)	(15.8)	(43.6)	(87.0)	(15.6)
경력직	1,376	292	652	147	117	44	86	38
	(18.2)	(38.7)	(11.6)	(56.8)	(84.2)	(56.4)	(13.0)	(84.4)
계	7,572	755	5,633	259	139	78	663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② 신입직 채용 예상 규모

신입직 채용 예정 인원을 보면, 모든 업권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채용 비율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신입직의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은행(97.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신탁(88.5%), 보험(83.5%), 여신전문(70.0%), 증권/선물(69.2%), 신탁(68.5%), 상호저축(57.1%)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의 정규직 예상 채용 비율은 9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II -55>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정규직	5,253	1,977	2,899	54	23	92	119	89
	(86.5)	(97.1)	(83.5)	(69.2)	(88.5)	(57.1)	(70.0)	(68.5)
비정규직	818	58	572	24	3	69	51	41
	(13.5)	(2.9)	(16.5)	(30.8)	(11.5)	(42.9)	(30.0)	(31.5)
계	6,071	2,035	3,471	78	26	161	170	1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고용형태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급여수준에 따른 신입직 채용예상 인원을 보면, 상호저축과 신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500~5,000만원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65.2%,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는 2,500~5,000만원 구간에 이어 5,000~7,500만원 구간대의 인력을 2,500만원 미만대보다 더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 -56>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1,586	284	1,125	2	3	82	4	86
	(26.5)	(14.0)	(33.2)	(2.6)	(10.7)	(50.3)	(2.4)	(65.2)
2,500~5,000만원	3,262	1,416	1,468	71	25	81	155	46
	(54.4)	(69.6)	(43.3)	(91.0)	(89.3)	(49.7)	(91.2)	(34.8)
5,000~7,500만원	1,009	335	660	3	-	-	11	-
	(16.8)	(16.5)	(19.5)	(3.8)	-	-	(6.5)	-
7,500만원~1억	122	-	120	2	-	-	-	-
	(2.0)	-	(3.5)	(2.6)	-	-	-	-
1억~1.5억	13	-	13	-	-	-	-	-
	(0.2)	-	(0.4)	-	-	-	-	-
1.5억 이상	3	-	3	-	-	-	-	-
	(0.1)	-	(0.1)	-	-	-	-	-
계	5,995	2,035	3,389	78	28	163	170	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급여수준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연령대별로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상호저축과 신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5~30세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20~25세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5~30세 연령대의 채용은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전체 신입직 채용 예정 인원의 8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II -57>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20대 미만	385	148	221	-	-	13	-	3
	(7.2)	(9.3)	(6.9)	-	-	(8.4)	-	(2.4)
20~25세	1,535	570	728	19	-	75	61	82
	(28.8)	(35.7)	(22.8)	(27.9)	-	(48.4)	(35.9)	(64.6)
25~30세	2,773	877	1619	49	25	60	108	35
	(52.0)	(55.0)	(50.8)	(72.1)	(89.3)	(38.7)	(63.5)	(27.6)
30~35세	525	-	513	-	3	5	-	4
	(9.9)	-	(16.1)	-	(10.7)	(3.2)	-	(3.1)
35세 이상	111	-	105	-	-	2	1	3
	(2.1)	-	(3.3)	-	-	(1.3)	(0.6)	(2.4)
합계	5,329	1,595	3,186	68	28	155	170	1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령별 채용 예상규모가 미확정 상태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상 규모와 차이가 있음.

- 학력별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자 다음으로는 은행, 상호저축에서는 전문대졸 (각각 31.3%, 25.5%)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았으며, 보험의 경우에는 고졸의 비율이 27.8%로 다른 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 -58>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¹⁾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1,104 (23.8)	177 (19.6)	886 (27.8)	1 (1.5)	1 (3.6)	19 (12.1)	- (-)	20 (15.5)
전문대졸	1,000 (21.5)	283 (31.3)	644 (20.2)	10 (14.7)	- (-)	40 (25.5)	3 (1.8)	20 (15.5)
대졸	2,459 (53.0)	442 (48.8)	1,594 (50.0)	57 (83.8)	27 (96.4)	98 (62.4)	155 (91.2)	86 (66.7)
대학원졸	81 (1.7)	3 (0.3)	63 (2.0)	- (-)	- (-)	- (-)	12 (7.1)	3 (2.3)
합계	4644 (100.0)	905 (100.0)	3187 (100.0)	68 (100.0)	28 (100.0)	157 (100.0)	170 (100.0)	129 (100.0)

주: 1) 학력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은행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의 인력을 모두 전문대졸 항목으로 처리한 기관이 있음.

□ 대졸자 전공별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보험과 여신전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권에서 경영/회계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험과 여신전문은 특정 전공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59>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회계	639 (26.0)	148 (33.5)	328 (20.6)	25 (43.9)	15 (55.6)	48 (49.0)	36 (23.2)	39 (45.3)
경제	325 (13.2)	106 (24.0)	187 (11.7)	15 (26.3)	3 (11.1)	6 (6.1)	2 (1.3)	6 (7.0)
전산	155 (6.3)	21 (4.8)	124 (7.8)	1 (1.8)	- (-)	4 (4.1)	1 (0.6)	4 (4.7)
법학	261 (10.6)	25 (5.7)	215 (13.5)	2 (3.5)	6 (22.2)	9 (9.2)	3 (1.9)	1 (1.2)
기타	1,079 (43.9)	142 (32.1)	740 (46.4)	14 (24.6)	3 (11.1)	31 (31.6)	113 (72.9)	36 (41.9)
합계	2,459 (100.0)	442 (100.0)	1,594 (100.0)	57 (100.0)	27 (100.0)	98 (100.0)	155 (100.0)	86 (100.0)

주: 학력별 및 전공자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예상 인력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별 분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표 II -60>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MBA	16	-	4	-	-	-	12	-
	(19.8)	-	(6.3)	-	-	-	(100.0)	-
경영/경제	23	2	21	-	-	-	-	-
	(28.4)	(66.7)	(33.3)	-	-	-	-	-
전산	13	-	11	-	-	-	-	2
	(16.0)	-	(17.5)	-	-	-	-	(66.7)
기타	29	1	27	-	-	-	-	1
	(35.8)	(33.3)	(42.9)	-	-	-	-	(33.3)
합계	81	3	63	-	-	-	12	3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주: 학력별 및 전공자별 채용 예상규모가 미확정 상태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상 규모와 차이가 있음.

- 전체 금융기관에서 채용예정 인력에 대해 요구하는 영어 구사 능력은 하위 수준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위수준(36.2%), 상위수준(18.4%)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은행과 보험에서는 하위 수준이 각각 50.7%, 5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 업권에서는 중위 수준(증권/선물 84.6%, 자산운용/신탁 56.3%, 상호저축 54.2%, 여신전문 95.2%, 신탁 68.8%)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61>

영어능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¹⁾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영어 상	397	201	179	9	7	-	1	-
	(18.4)	(25.3)	(17.2)	(13.8)	(43.8)	-	(1.0)	-
영어 중	782	191	340	55	9	32	100	55
	(36.2)	(24.0)	(32.6)	(84.6)	(56.3)	(54.2)	(95.2)	(68.8)
영어 하	984	403 ²⁾	524	1	-	27	4	25
	(45.5)	(50.7)	(50.2)	(1.5)	-	(45.8)	(3.8)	(31.3)
합계	2,163	795	1,043	65	16	59	105	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영어 능력별 채용 예상규모가 미확정 상태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상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은행의 경우, 영어능력 '하' 이상의 인력을 모두 영어능력 '하' 항목으로 처리한 기관이 있음.

□ 전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입직 채용예정 인력의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은 12.6%이며, 이 중 법정자격(5.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이 각각 68.4%, 21.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 -62>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예정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가자격	102	20	77	-	1	1	1	2
	(1.7)	(1.0)	(2.2)	-	(3.6)	(0.4)	(0.6)	(2.4)
변호사	5	4	1	-	-	-	-	0
	(0.1)	(0.2)	(0.0)	-	-	-	-	(0.0)
공인회계사	6	5	-	-	-	-	1	0
	(0.1)	(0.2)	-	-	-	-	(0.6)	(0.0)
기타	91	11	76	-	1	1	-	2
	(1.5)	(0.5)	(2.2)	-	(3.6)	(0.4)	-	(2.4)
법정자격	341	149	175	1	5	2	1	8
	(5.6)	(7.2)	(5.0)	(1.3)	(17.9)	(0.8)	(0.6)	(9.6)
민간자격	199	-	144	51	-	1	-	3
	(3.2)	-	(4.1)	(64.6)	-	(0.4)	-	(3.6)
공인	134	-	79	51	-	1	-	3
	(2.2)	-	(2.3)	(64.6)	-	(0.4)	-	(3.6)
비공인	65	-	65	-	-	-	-	0
	(1.1)	-	(1.9)	-	-	-	-	(0.0)
국제통용	134	96	35	2	-	-	-	1
	(2.2)	(4.6)	(1.0)	(2.5)	-	-	-	(1.2)
AICPA	55	50	5	-	-	-	-	-
	(0.9)	(2.4)	(0.1)	-	-	-	-	-
CFA	33	30	3	-	-	-	-	-
	(0.5)	(1.4)	(0.1)	-	-	-	-	-
FRM	36	16	18	2	-	-	-	-
	(0.6)	(0.8)	(0.5)	(2.5)	-	-	-	-
기타	10	-	9	-	-	-	-	1
	(0.2)	-	(0.3)	-	-	-	-	(1.2)
계	776	265	431	54	6	4	2	14
	(12.6)	(12.8)	(12.4)	(68.4)	(21.4)	(1.7)	(1.2)	(16.9)

③ 경력직 채용 예상 규모

경력직의 채용 형태를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정규직의 채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력직의 고용형태별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정규직의 채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정규직의 채용비율은 보험, 자산운용/신탁,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각각 83.1%, 79.8%, 79.3%, 72.9%, 62.4%)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II -63> 업권별 정규직·비정규직 예상규모 및 비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정규직	929	3	466	44	67	167	159	23
	(68.3)	(7.7)	(83.1)	(27.0)	(79.8)	(72.9)	(62.4)	(79.3)
비정규직	431	36	95	119	17	62	96	6
	(31.7)	(92.3)	(16.9)	(73.0)	(20.2)	(27.1)	(37.6)	(20.7)
계	1,360	39	561	163	84	229	255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고용형태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급여수준에 따른 경력직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상호저축, 신탁,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5,000~7,500만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상호저축은행, 신탁, 여신전문의 경우 2,500~5,000만원인 경우가 각각 70.6%, 51.7%,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급여수준이 5,000~7,500만원인 경우는 보험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권/선물(44.8%), 자산운용/신탁(43.0%), 은행(38.5%) 순으로 나타남.

<표 II -64>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2,500만원 미만	88	-	36	4	-	30	11	7
	(6.6)	-	(6.6)	(2.5)	-	(13.2)	(4.3)	(24.1)
2,500~5,000만원 미만	481	13	114	28	24	161	126	15
	(35.9)	(33.3)	(20.8)	(17.2)	(30.4)	(70.6)	(49.4)	(51.7)
5,000~7,500만원 미만	508	15	253	73	34	32	96	5
	(37.9)	(38.5)	(46.3)	(44.8)	(43.0)	(14.0)	(37.6)	(17.2)
7,500만원~1억 미만	198	11	105	43	14	4	20	1
	(14.8)	(28.2)	(19.2)	(26.4)	(17.7)	(1.8)	(7.8)	(3.4)
1억~1.5억 미만	52	-	31	11	6	1	2	1
	(3.9)	-	(5.7)	(6.7)	(7.6)	(0.4)	(0.8)	(3.4)
1.5억 이상	13	-	8	4	1	-	-	-
	(1.0)	-	(1.5)	(2.5)	(1.3)	-	-	-
계	1,340	39	547	163	79	228	255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급여수준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경력직의 연령대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30대의 채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은행의 경우 40대(43.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상호저축과 여신전문의 경우에는 30대(각각 61.4%, 64.3%)에 이어 20대(각각 25.9%, 28.2%)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 -65>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1	-	-	-	-	1	-	-
	(0.1)	-	-	-	-	0.4	-	-
20대	227	-	84	2	5	59	72	5
	(17.7)	-	(15.7)	(1.4)	(6.9)	(25.9)	(28.2)	(17.9)
30대	768	8	305	86	48	140	164	17
	(59.9)	(34.8)	(57.0)	(60.6)	(66.7)	(61.4)	(64.3)	(60.7)
40대	257	10	136	51	12	26	19	3
	(20.0)	(43.5)	(25.4)	(35.9)	(16.7)	(11.4)	(7.5)	(10.7)
50대 이상	30	5	10	3	7	2	-	3
	(2.3)	(21.7)	(1.9)	(2.1)	(9.7)	(0.9)	-	(10.7)
합계	1,283	23	535	142	72	228	255	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경력직의 학력별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 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상호저축, 신협, 여신의 경우는 전문대졸(각각 37.2%, 36.0%, 19.6%)의 비율이 높았으며, 보험, 자산운용·신탁, 증권·선물의 경우는 대학원졸(각각 16.2%, 13.0%, 4.1%)의 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은행의 경우만 대졸자(87.0%)의 채용예정비율 다음으로 고졸자(13.0%)의 채용예정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II-66>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고졸	70	3	26	-	-	37	-	4
	(5.7)	(13.0)	(4.9)	-	-	(18.9)	-	(16.0)
전문대졸	171	-	37	-	2	73	50	9
	(14.0)	-	(7.0)	-	(2.9)	(37.2)	(19.6)	(36.0)
대졸	879	20	382	117	58	85	205	12
	(72.0)	(87.0)	(71.9)	(95.9)	(84.1)	(43.4)	(80.4)	(48.0)
대학원졸	101	-	86	5	9	1	-	-
	(8.3)	-	(16.2)	(4.1)	(13.0)	(0.5)	-	-
합계	1,221	23	531	122	69	196	255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학력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 경력직의 대졸자 전공별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신탁, 상호저축, 은행, 증권·선물, 여신전문의 경우 경영/회계 전공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기타 전공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I -67>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회계	311 (35.4)	9 (45.0)	96 (25.1)	52 (44.4)	21 (36.2)	44 (51.8)	81 (39.5)	8 (66.7)
경제	116 (13.2)	4 (20.0)	22 (5.8)	35 (29.9)	7 (12.1)	10 (11.8)	36 (17.6)	2 (16.7)
전산	94 (10.7)	2 (10.0)	50 (13.1)	1 (0.9)	2 (3.4)	12 (14.1)	27 (13.2)	-
법학	53 (6.0)	1 (5.0)	23 (6.0)	-	5 (8.6)	7 (8.2)	17 (8.3)	-
기타	305 (34.7)	4 (20.0)	191 (50.0)	29 (24.8)	23 (39.7)	12 (14.1)	44 (21.5)	2 (16.7)
합계	879 (100.0)	20 (100.0)	382 (100.0)	117 (100.0)	58 (100.0)	85 (100.0)	205 (100.0)	12 (100.0)

주: 학력별 및 전공자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경력직의 대학원 졸업자 전공별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대체로 MBA나 경영/경제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68>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MBA	26 (25.7)	-	23 (26.7)	1 (20.0)	2 (22.2)	-	-	-
경영/경제	30 (29.7)	-	27 (31.4)	1 (20.0)	2 (22.2)	-	-	-
전산	10 (9.9)	-	10 (11.6)	-	-	-	-	-
기타	35 (34.7)	-	26 (30.2)	3 (60.0)	5 (55.6)	1 (100.0)	-	-
합계	102 (100.0)	-	86 (100.0)	5 (100.0)	9 (100.0)	1 (100.0)	-	-

주: 학력별 및 전공자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 전체 금융기관에서 경력직 채용예정 인력에 대해 요구하는 영어 구사 능력은 중위 수준이 5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위수준(23.4%), 하위수준(20.7%) 순으로 나타남.

<표 II -69>

영어능력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영어 상	136	3	101	11	16	-	5	-
	(23.4)	(60.0)	(28.8)	(12.2)	(33.3)	-	(10.2)	-
영어 중	324	2	160	79	22	26	33	2
	(55.9)	(40.0)	(45.6)	(87.8)	(45.8)	(81.3)	(67.3)	(40.0)
영어 하	120	-	90	-	10	6	11	3
	(20.7)	-	(25.6)	-	(20.8)	(18.8)	(22.4)	(60.0)
합계	580	5	351	90	48	32	49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영어 능력별 채용 예상규모가 미확정 상태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상 규모와 차이가 있음.

- 전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직 채용예정 인력의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은 21.2%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에서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각각 67.7%, 51.7%로 다른 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70>

업권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예정규모

(단위: 명,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 선물	자산운용 /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가자격	56	1	46	1	-	5	3	-
	(4.1)	(2.6)	(8.2)	(0.6)	-	(2.1)	(1.2)	-
변호사	20	-	17	-	-	2	1	-
	(1.5)	-	(3.0)	-	-	(0.9)	(0.4)	-
공인회계사	8	-	3	1	-	2	2	-
	(0.6)	-	(0.5)	(0.6)	-	(0.9)	(0.8)	-
기타	28	1	26	-	-	1	-	-
	(2.0)	(2.6)	(4.6)	-	-	(0.4)	-	-
법정자격	87	-	9	38	37	2	1	-
	(6.3)	-	(1.6)	(23.2)	(42.5)	(0.9)	(0.4)	-
민간자격	89	1	13	68	5	-	2	-
	(6.5)	(2.6)	(2.3)	(41.5)	(5.7)	-	(0.8)	-
공인	83	-	13	68	-	-	2	-
	(6.0)	-	(2.3)	(41.5)	-	-	(0.8)	-
비공인	6	1	-	-	5	-	-	-
	(0.4)	(2.6)	-	-	(5.7)	-	-	-
국제통용	60	-	53	4	3	-	-	-
	(4.4)	-	(9.4)	(2.4)	(3.4)	-	-	-
AICPA	5	-	4	-	1	-	-	-
	(0.4)	-	(0.7)	-	(1.1)	-	-	-
CFA	3	-	1	2	-	-	-	-
	(0.2)	-	(0.2)	(1.2)	-	-	-	-
FRM	4	-	2	2	-	-	-	-
	(0.3)	-	(0.4)	(1.2)	-	-	-	-
기타	48	-	46	-	2	-	-	-
	(3.5)	-	(8.2)	-	(2.3)	-	-	-
계	292	2	121	111	45	7	6	-
	(21.2)	(5.1)	(21.6)	(67.7)	(51.7)	(3.0)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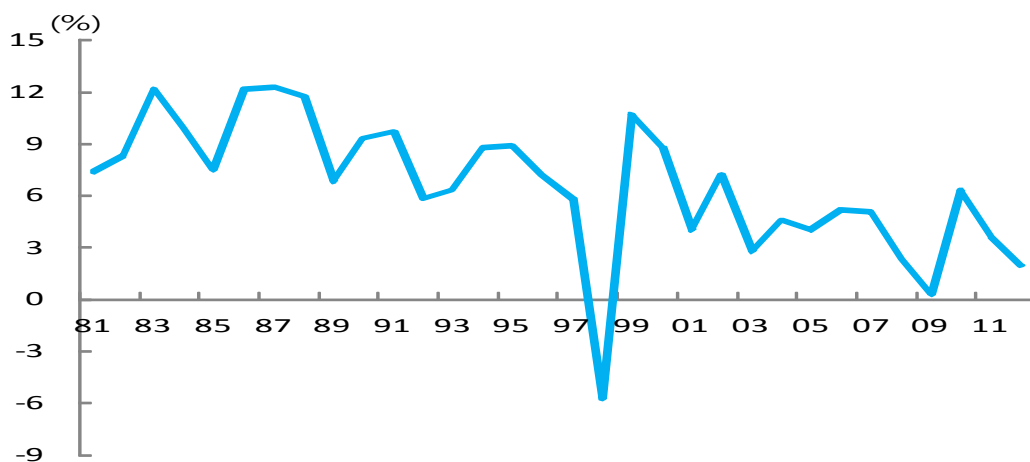
Ⅲ.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1. 실물경제 성장 전망

- 우리나라 실질 GDP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1980년대에는 연평균 8.6%씩 성장하였으나 1990년들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7.7%씩 성장
 -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5.7%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의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0.7% 까지 반등함.
 - 199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2.3%까지 하락하였으며 2004~2007년중에는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
 - 2010년에는 전년대비 6.3% 성장하였으나, 2011년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하락하여 2012년에는 2.0%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반등하여 2.8%를 기록할 전망

<그림 Ⅲ-1>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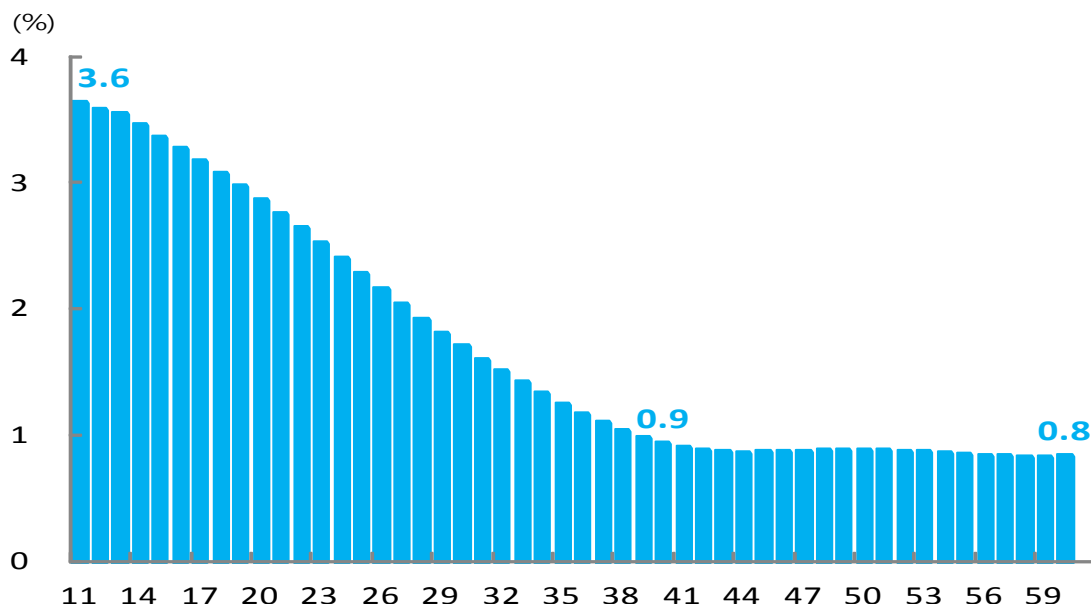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2년에는 3.6%이지만 2038년에는 1.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물론 성장잠재력 수준은 여러 유·무형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더라도, 향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됨.
 - * 잠재성장률은 생산함수접근법, 시계열분석법 등 다양한 통계기법에 따라 추정되고 있는데 각각의 추정방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이는 노동투입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스톡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그림 III-2>

잠재성장률 전망치



자료 : OECD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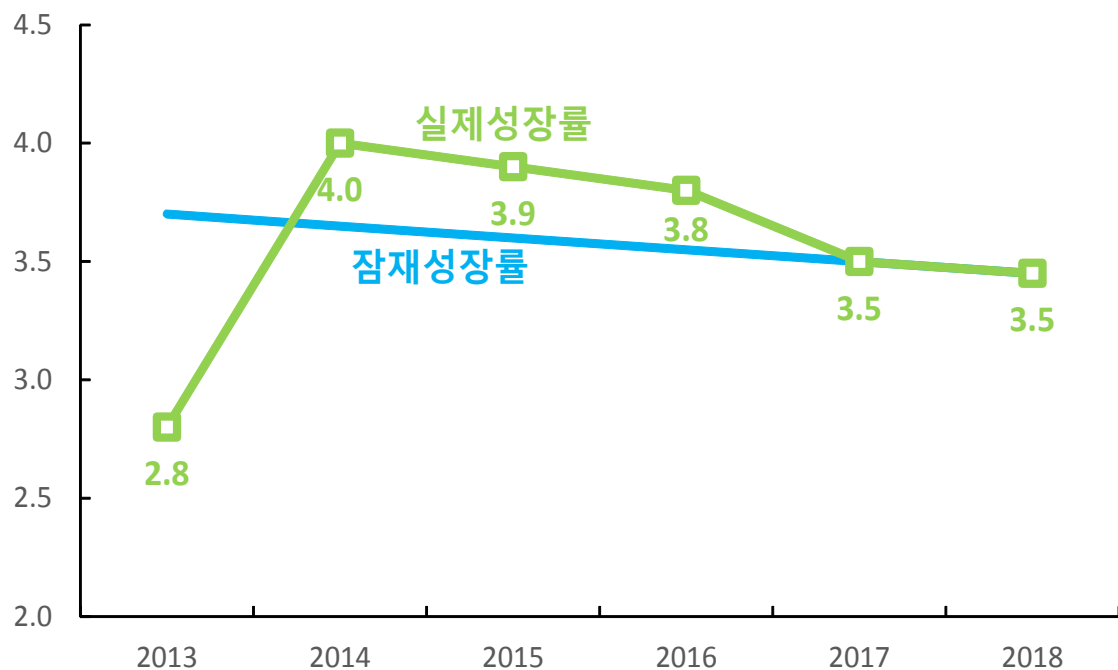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추정결과 우리경제는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3.9%, 2016년에는 3.8%, 2017년과 2018년에는 모두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3/4분기 이후 경제성장 흐름이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III-3>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자료 : 금융연구원 자체 추정

2. 금융산업 성장 전망

- 2012년중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104.2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72.7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6.58%를 차지함.

<표 III-1>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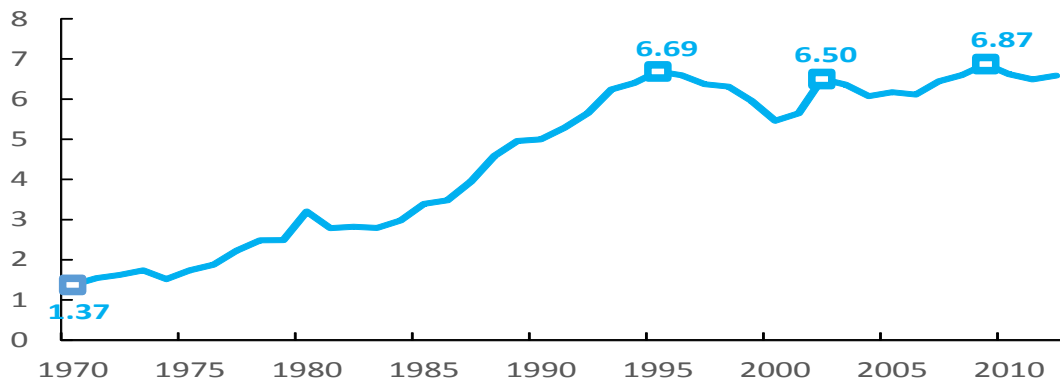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업(A)	55.6	61.6	64.6	67.4	69.1	70.2	72.7
전산업(B)	910.0	956.5	978.5	981.6	1,043.7	1,082.1	1,104.2
비중(A/B)	6.11	6.44	6.60	6.87	6.62	6.49	6.5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6.4%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1970년에는 1.4%이었으나 1995년에 6.7%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로 일시 하락후 다시 반등하는 등 6.4%를 중심으로 등락

<그림 III-4>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¹⁾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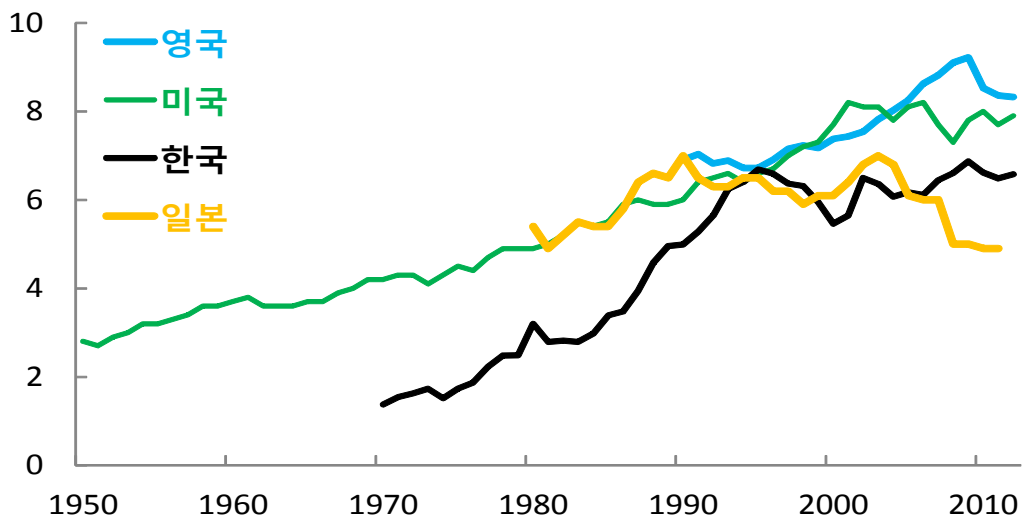
주 :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0년대 또는 2000년 중반대까지는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모습
- 미국의 경우 1950년 이후 2000년까지 상승하다가 2000년 이후 부터는 8%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영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중 큰 폭으로 하락

<그림 III-5> 주요국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¹⁾

(단위 : %)



주 : 1)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자료 : OECD, 단 일본, 미국은 Bloomberg 자료를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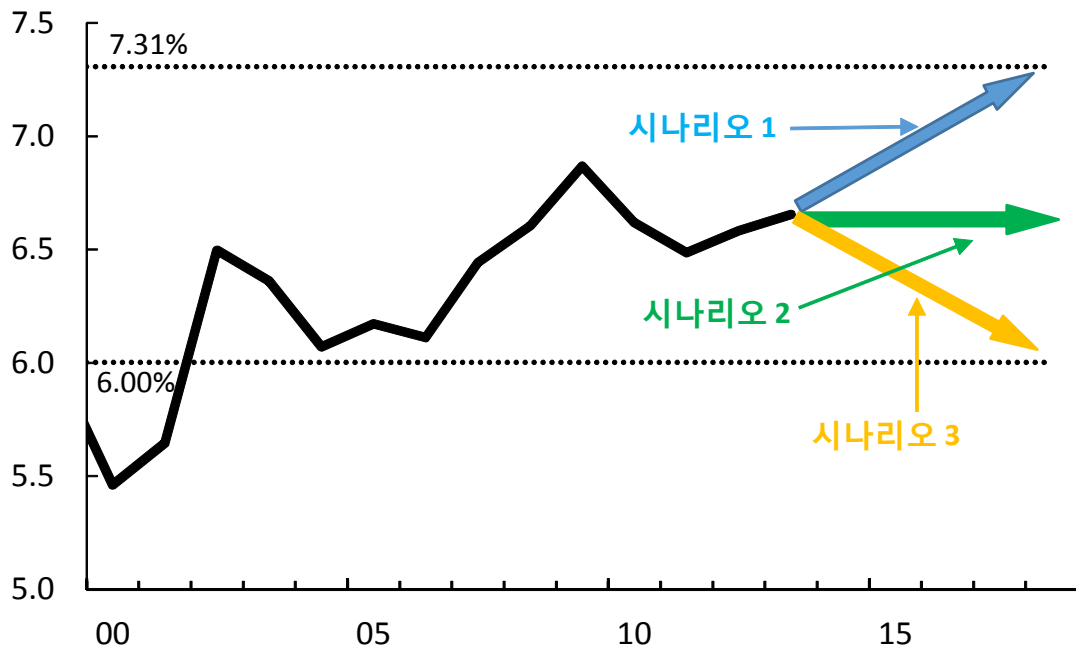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 시나리오 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 다만 각 시나리오별 상·하한은 2000~2013년중 변동폭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상한은 '2013년 비중 + 2×표준편차', 하한은 '2013년 비중 - 2×표준편차'로 정하였음.

<그림 III-6>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주 : 1) 상하한은 '2013년 부가가치 비중(6.65%) ± 2×변동폭의 표준편차(0.32%)'로 설정함.

<표 III-2>**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나리오 1	6.65	6.78	6.92	7.05	7.18	7.31
시나리오 2	6.65	6.65	6.65	6.65	6.65	6.65
시나리오 3	6.65	6.52	6.39	6.26	6.13	6.00

주 : 1) 2013년 실질 GDP 자료는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금융연구원 자체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2012년(6.58%)에 비해서는 2013년중 제조업의 성장성 미흡 등으로 0.07%p 상승함.

□ 2014~2018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4~2018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3년중 75.5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18년에는 99.6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90.7조원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81.8조원으로 증가함.

<표 III-3>**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산업 ¹⁾	1,135.10	1,180.50	1,226.60	1,273.20	1,317.80	1,363.20
금융업						
시나리오 1	75.5	80.1	84.8	89.7	94.6	99.6
시나리오 2	75.5	78.6	81.6	84.7	87.7	90.7
시나리오 3	75.5	77	78.4	79.7	80.8	81.8

주 : 1)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치는 앞서 언급한 「<표>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근거함.

IV.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1. 금융인력 수요 전망

□ 제 IV장에서는 제 III장의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제 III장에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제 IV장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금융기관의 성장에 근거하여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요의 과거 패턴에 근거해 인력수요를 전망함.

-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는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보다, 금융인력 정책측면에서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당국은 2013년 11월 27일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발전방향의 화두로 「금융업의 가치 제고, 10-10 Value-up」을 제시하였음.
-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업의 가치 제고, 10-10 Value-up」은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10-10 Value-up)”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금융계가 함께 노력하여 금융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임.

* 한국 금융 부가가치 비중이 90년대 중반 이후 6%대 수준에서 정체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였음.

- 이에 반해 2012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망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은 '금융인력 현황 조사' 대상 금융기관의 인력수요만을 전망한 것으로 본 보고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원은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고용하는 인력을 추세치를 이용하여 인력수요를 전망함.

□ 물론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만을 전망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 특히 앞서 제 II장에서 분석한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상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이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라고 판단됨.
-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상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4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여신금융업법 제54조, 보험업법 1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인원현황, 기구현황 등 일반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임.
-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의 임직원수는 각금융업권의 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즉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상 금융업권별 고용인원은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중인 국내기관 및 외국기관 지점을 포함한 수치로
 - ① 은행의 경우, 국내은행(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포함)18개 기관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39개 외은지점의 임직원수가 포함된 수치이며,
 - ② 보험의 경우 24개 생명보험회사와 31개 손해보험회사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 ③ 증권/선물의 경우 62개 증권회사와 7개 선물회사 기준이며,
 - ④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85개 자산운용사와 11개 신탁회사 기준이며,
 - ⑤ 상호저축의 경우 91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 ⑥ 여신전문의 경우 신용카드사(8), 리스사(27), 할부금융사(19), 신기술사(12)의 고용인원을 합한 수치이며,
- ⑦ 신탁의 경우 949개 기관(조합)을 기준으로 작성됨.
-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 전망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보고서의 분석은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상 금융기관 전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금융업 관련 종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인 분석이라고 판단됨.

가. 금융인력 수요 전망 추정방법

□ 201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86.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만명 증가함.

○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3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수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으로 2008년 대비 약 5.5만명이 감소하였음.

<그림 IV-1> 금융업¹⁾ 취업자수
(단위 : 만명)



주 : 1) 금융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중 'K 금융 및 보험업(64~66)'에 해당됨.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산업분류가 가능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분류까지의 취업자수만 공개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편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72.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함.

*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부가가치는 일정기간중 산출되는 부가가치로 2012년 금융업 부가가치가 73조원인 것은 2012년중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에서 산출된 부가가치 총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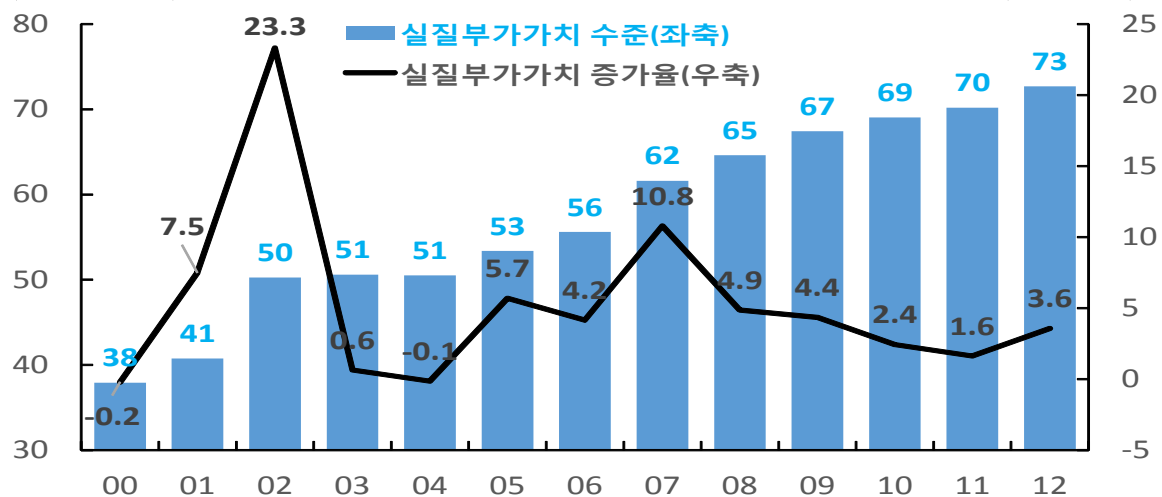
- 2000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38조원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5.3%씩 성장하여 2012년에는 73조원까지 성장함.
-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카드위기 직후인 2004년에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음.

<그림 IV-2>

금융업 부가가치

(단위 : 조원)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공적분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에는 Kremer, Ericsson, Dolado (1992)의 Error-Correction Model, Engle and Yoo(1987)의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Engle and Granger(1987)의 2OLS, 그리고 Johansen(1991, 1995)의 Johansen test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Johansen test를 적용함.

- Johansen test는 모든 변수를 내생(endogenous)변수로 간주하는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분관계를 검정하는 검정법임.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Sample (adjusted): 1993Q4 2013Q3				
Included observations: 80 after adjustments				
Trend assumption: Linear deterministic trend				
Series: EMP GDP				
Lags interval (in first differences): 1 to 2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62362	36.49830	15.49471	0.0000
At most 1 *	0.140949	12.15412	3.841466	0.0005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62362	24.34418	14.26460	0.0009
At most 1 *	0.140949	12.15412	3.841466	0.0005
Max-eigenvalu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 공적분 검정은 『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서 사용한 지수평활 기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2012년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수평활 방법’은 금융업 성장전망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수의 과거 추세만을 연장하여 취업자수를 전망한 기법임.

- 반면에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활용한 ‘공적분 검정’은 금융업 성장 전망을 기초로 금융업 성장과 금융업 취업자수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취업자수를 전망한 기법임.

□ 한편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①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1%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은 70년대에는 0.39, 80년대에는 0.25, 90년대에는 0.37,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0.2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0년 이후 고용탄력성은 연평균으로 0.31을 나타냄.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0.31% 증가하는 것으로, 2012년 현재 취업자수가 2,468.1만명임을 고려할 때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약 7.65만명 증가

<표 IV-2>

고용탄력성¹⁾

(단위 :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²⁾	1970년이후
경제성장률	10.27	8.62	6.68	4.32	7.18
취업자수증가율	3.94	2.60	1.49	1.52	2.29
고용탄력성 ³⁾	0.39	0.25	0.37	0.27	0.31

주 : 1) 기간중 연평균

2) 2000~2012년

3) 취업자수증가율/실질GDP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② 취업계수는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GDP로 나눈 지표임.

-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로 표시하는데 2006년 취업계수는 25.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2.4명으로 하락
- 즉 실질 GDP가 10억원 줄어들면 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는 약 22명임.

<표 IV-3>

취업계수¹⁾

(단위 : 조원, 만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GDP	910.0	956.5	978.5	981.6	1,043.7	1,081.6	1,103.5
취업자수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취업계수	25.4	24.5	24.1	23.9	22.8	22.4	22.4

주 : 1) 실질GDP 10억원당 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③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피용자수)임.

- 이는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를 이용하여 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임.

* 고용표는 각 부문의 생산활동에 1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나타낸 표로써 산업연관표와 연결하여 산업부문간 노동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거나 노동기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음.

* 고용표의 노동량⁸⁾은 연간기준 인원(man-year)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사업체 조업기간과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7) 고용표에서는 취업자와 피용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표에서 취업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며, 피용자는 순수 임금근로자만을 지칭함.

8)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수는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거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이거나,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 고용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취업(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2009년 접속불변표 기준으로 전산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는 15.6명, 고용유발계수는 10.0명으로 나타남.
- 고용유발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교육 및 보건서비스가 17.8명, 음식점 및 숙박업이 16.5명, 도소매업이 16.1명 등으로 서비스업이 대체로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며 일반기계업은 10.0명, 정밀기기업이 9.6명, 전기 및 전자기기업은 5.2명 등으로 제조업이 대체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음.
- 즉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취업(고용)유발계수가 17.8명인 것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가 발생할 경우 교육 및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피용자수)가 17.8명임을 의미함.

<표 IV-4>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¹⁾ 및 고용유발계수²⁾

(단위 :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농림수산물	42.5	7.0
섬유 및 가죽제품	15.4	11.9
석유 및 석탄제품	1.3	1.0
화학제품	7.8	6.2
제1차 금속제품	6.3	4.9
일반기계	12.3	10.0
전기 및 전자기기	6.3	5.2
정밀기기	11.5	9.6
수송장비	10.4	8.6
건설	16.8	14.7
도소매	31.3	16.1
음식점 및 숙박	35.6	16.5
통신 및 방송	10.0	7.5
금융 및 보험	9.7	8.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1	11.3
교육 및 보건	20.7	17.8
사회 및 기타서비스	24.4	15.5
전산업	15.6	10.0

주 : 1)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2)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

3) 2005년 실측표 기준 2009년 연장표(불변가격), 접속불변표 기준 통합대분류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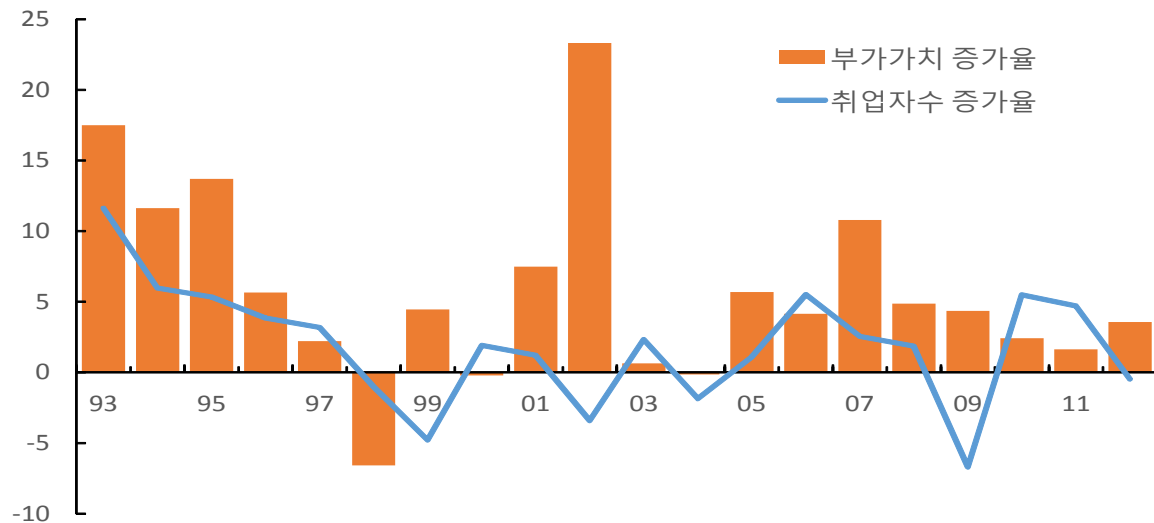
○ 이는 고용탄력성이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임.

□ 산업분류상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최초의 시점인 1993년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1.9%씩, 부가가치는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1.9/5.9로 약 0.32로 추정되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32% 늘어남을 의미함.
- 2012년 현재 금융업 취업자수가 84.2만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업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금융업 취업자수는 $84.2\text{만명} \times 0.32\%$ 에 해당하는 2,7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IV-3>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나. 금융인력 수요 전망

-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16,341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10,579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4,505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1.7~1.9%, 시나리오 2는 1.1~1.3%,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4~0.6%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

금융인력 수요 전망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시나리오 1	882,128 (16,728)	898,780 (16,653)	915,346 (16,565)	931,215 (15,869)	947,104 (15,889)	(16,341)
시나리오 2	876,477 (11,077)	887,416 (10,938)	898,207 (10,791)	908,266 (10,060)	918,294 (10,027)	(10,579)
시나리오 3	870,826 (5,426)	875,900 (5,074)	880,610 (4,710)	884,392 (3,783)	887,923 (3,530)	(4,505)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

<표 IV-6>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나리오 1	1.93	1.89	1.84	1.73	1.71
시나리오 2	1.28	1.25	1.22	1.12	1.10
시나리오 3	0.63	0.58	0.54	0.43	0.40

주 : 전년대비 증가율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2015년 취업자수가 898,780명이고 2014년 취업자수가 882,128명이어서 2015년 취업자수는 16,653명 증가함.
 - 이 때 16,653명 모두가 신규채용된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입직자(신규채용된 자)에서 이직자(퇴직한 자)를 차감한 인원수를 나타냄.
 - 따라서 퇴직자 등 이직자를 감안하면 입직자는 16,653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다.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1)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불변인 경우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은행권 취업자수 비중은 전체에서 47.4%를 차지하는 등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IV-7>

업권별 인력비중

(단위 : %)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저축은행	여신	신협	합계
47.4	21.8	14.2	1.9	2.5	8.8	3.3	100.0

주 : 1) 2013년 금융인력조사 기준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IV-8>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17,801	425,688	433,534	441,050	448,576
보험	192,257	195,887	199,497	202,956	206,419
증권/선물	125,681	128,053	130,413	132,674	134,938
자산운용/신탁	16,819	17,136	17,452	17,755	18,058
저축은행	22,085	22,502	22,917	23,314	23,712
여신	78,008	79,481	80,946	82,349	83,754
신협	29,476	30,033	30,586	31,117	31,647
계	882,128	898,780	915,346	931,215	947,104

<표 IV-9>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15,125	420,306	425,417	430,181	434,931
보험	191,026	193,410	195,762	197,954	200,140
증권/선물	124,875	126,434	127,971	129,405	130,833
자산운용/신탁	16,711	16,920	17,126	17,317	17,509
저축은행	21,944	22,218	22,488	22,740	22,991
여신	77,508	78,476	79,430	80,320	81,206
신협	29,287	29,653	30,014	30,350	30,685
계	876,477	887,416	898,207	908,266	918,294

<표 IV-10>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12,448	414,852	417,082	418,874	420,546
보험	189,794	190,900	191,926	192,751	193,520
증권/선물	124,070	124,793	125,464	126,003	126,506
자산운용/신탁	16,603	16,700	16,790	16,862	16,929
저축은행	21,802	21,929	22,047	22,142	22,230
여신	77,009	77,457	77,874	78,208	78,521
신협	29,099	29,268	29,426	29,552	29,670
계	870,826	875,900	880,610	884,392	887,923

2)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 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5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6%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6월말에는 60.3%로 10%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은행	70.6	70.1	68.9	70.4	66.9	64.3	62.8	60.6	60.3
보험	16.3	16.2	15.9	14.8	16.5	17.7	18.1	20.9	20.8
증권선물	4.3	4.7	5.7	5.4	6.2	7.0	7.5	7.8	8.7
자산운용신탁	0.2	0.2	0.2	0.2	0.3	0.2	0.2	0.2	0.1
저축은행	2.4	2.6	2.5	2.6	3.1	3.0	2.2	1.5	1.2
여신	5.0	5.0	5.7	5.4	5.5	6.1	7.7	7.4	7.3
신탁	1.4	1.3	1.2	1.2	1.5	1.7	1.6	1.7	1.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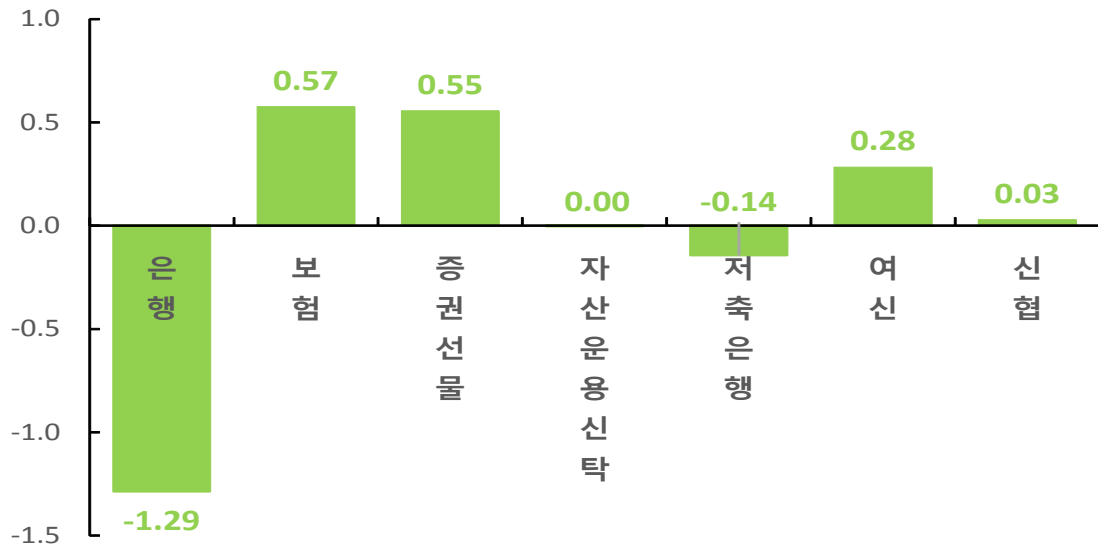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29%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57%p 씩, 증권/선물은 매년 0.55%p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¹⁾

(단위 : %p)



주 : 1) 2005~2012년 기간중 평균값

□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8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8%로, 보험 비중은 23.7%로 증권/선물 비중은 11.4%로 달라지게 됨.

○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3년에 60.3%이었으나 매년 1.29%p 하락하여 2014년에는 59.0%, 2015년에는 57.7% 등으로 낮아지게 됨.

<표 IV-12>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60.3	59.0	57.7	56.4	55.1	53.8
보험	20.8	21.4	22.0	22.6	23.1	23.7
증권/선물	8.7	9.2	9.8	10.3	10.9	11.4
자산운용/신탁	0.1	0.1	0.1	0.1	0.1	0.1
저축은행	1.2	1.1	1.0	0.8	0.7	0.5
여신	7.3	7.5	7.8	8.1	8.4	8.7
신탁	1.6	1.6	1.6	1.7	1.7	1.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
 -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data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
- *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취업자수 전체만을 공표하고 있을 뿐, 금융업권별로 취업자수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금융인력 수요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함.
- 즉 은행의 경우 2014년에 자산비중이 2.1% 하락했는데 이 때 금융인력 수요 비중도 동일하게 2.1% 하락한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가정하에서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을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V-13>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7.4	46.1	44.8	43.6	42.3	41.1
보험	21.8	22.3	22.7	23.2	23.6	24.1
증권/선물	14.2	15.1	15.9	16.7	17.5	18.3
자산운용/신탁	1.9	1.9	1.8	1.8	1.8	1.7
저축은행	2.5	2.2	1.9	1.6	1.3	1.0
여신	8.8	9.1	9.4	9.7	10.0	10.3
신탁	3.3	3.4	3.4	3.4	3.5	3.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전망을 근거로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14>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06,531	402,854	398,850	394,269	389,437
보험	196,401	204,282	212,249	220,155	228,162
증권/ 선물	132,916	142,712	152,680	162,706	172,904
자산운용/ 신탁	16,480	16,450	16,410	16,348	16,280
저축은행	19,458	17,179	14,831	12,408	9,925
여신	80,556	84,643	88,787	92,925	97,124
신협	29,786	30,660	31,540	32,402	33,273
계	882,128	898,780	915,346	931,215	947,104

<표 IV-15>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03,927	397,760	391,382	384,553	377,590
보험	195,143	201,699	208,275	214,730	221,221
증권/ 선물	132,064	140,908	149,821	158,697	167,644
자산운용/ 신탁	16,375	16,242	16,102	15,946	15,785
저축은행	19,333	16,962	14,553	12,102	9,623
여신	80,040	83,573	87,124	90,635	94,169
신협	29,595	30,273	30,949	31,604	32,261
계	876,477	887,416	898,207	908,266	918,294

<표 IV-1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401,323	392,599	383,714	374,445	365,102
보험	193,885	199,082	204,195	209,086	213,905
증권/선물	131,213	139,079	146,886	154,525	162,100
자산운용/신탁	16,269	16,031	15,787	15,526	15,263
저축은행	19,209	16,741	14,268	11,784	9,305
여신	79,524	82,488	85,417	88,252	91,055
신탁	29,404	29,880	30,343	30,773	31,194
계	870,826	875,900	880,610	884,392	887,923

라.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 ☐ 향후 5년간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직무별 인력비중이 2013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

<표 IV-17>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33,680	34,315	34,948	35,554	36,160
	인사·총무·홍보	50,791	51,750	52,704	53,617	54,532
	조사 연구·리서치	9,566	9,746	9,926	10,098	10,270
	IT/보안	32,512	33,125	33,736	34,321	34,907
	감사, 법무 등	17,492	17,822	18,151	18,465	18,780
	합계	144,040	146,759	149,464	152,055	154,650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439,756	448,058	456,316	464,227	472,148
	기업영업	81,134	82,666	84,190	85,649	87,111
	상품개발	10,562	10,761	10,959	11,149	11,340
	마케팅 등	71,300	72,646	73,985	75,267	76,552
	합계	602,752	614,130	625,450	636,293	647,15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22,088	22,505	22,919	23,317	23,715
	결제	9,698	9,881	10,063	10,237	10,412
	채권추심	14,925	15,207	15,487	15,756	16,025
	합계	46,711	47,592	48,469	49,310	50,151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978	10,166	10,354	10,533	10,713
	파생상품	4,314	4,395	4,476	4,554	4,632
	외환	2,473	2,520	2,567	2,611	2,656
	Alt. Investment	3,183	3,243	3,303	3,360	3,418
	합계	19,948	20,325	20,700	21,059	21,418
자산관리	신탁	5,182	5,280	5,377	5,471	5,564
	연금	2,546	2,594	2,642	2,687	2,733
	투자자문	1,066	1,086	1,106	1,125	1,144
	PB	15,687	15,983	16,277	16,560	16,842
	합계	24,481	24,943	25,402	25,843	26,284
보험	Claim관리	7,517	7,659	7,800	7,935	8,071
	언더라이팅	6,120	6,235	6,350	6,461	6,571
	손해사정	15,280	15,568	15,855	16,130	16,405
	보험계리	1,943	1,980	2,017	2,052	2,087
	합계	30,860	31,443	32,022	32,577	33,133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6,272	6,390	6,508	6,620	6,733
	기업금융	5,658	5,765	5,871	5,973	6,075
	M&A	1,406	1,433	1,459	1,485	1,510
	합계	13,336	13,588	13,838	14,078	14,319
합계		882,128	898,780	915,346	931,215	947,104

<표 IV-18>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33,464	33,881	34,293	34,677	35,060
	인사·총무·홍보	50,466	51,095	51,717	52,296	52,873
	조사 연구·리서치	9,504	9,623	9,740	9,849	9,958
	IT/보안	32,303	32,707	33,104	33,475	33,845
	감사, 법무 등	17,380	17,597	17,811	18,010	18,209
	합계	143,117	144,903	146,665	148,308	149,945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436,939	442,393	447,772	452,787	457,786
	기업영업	80,615	81,621	82,613	83,538	84,461
	상품개발	10,494	10,625	10,754	10,875	10,995
	마케팅 등	70,843	71,727	72,599	73,412	74,223
	합계	598,891	606,365	613,739	620,612	627,464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21,946	22,220	22,490	22,742	22,993
	결제	9,636	9,756	9,874	9,985	10,095
	채권추심	14,830	15,015	15,197	15,367	15,537
	합계	46,411	46,991	47,562	48,095	48,626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914	10,038	10,160	10,274	10,387
	파생상품	4,286	4,340	4,393	4,442	4,491
	외환	2,458	2,488	2,519	2,547	2,575
	Alt. Investment	3,163	3,202	3,241	3,278	3,314
	합계	19,821	20,068	20,312	20,540	20,766
자산관리	신탁	5,149	5,213	5,277	5,336	5,395
	연금	2,529	2,561	2,592	2,621	2,650
	투자자문	1,059	1,072	1,085	1,098	1,110
	PB	15,586	15,781	15,973	16,151	16,330
	합계	24,324	24,627	24,927	25,206	25,484
보험	Claim관리	7,469	7,562	7,654	7,740	7,825
	언더라이팅	6,081	6,157	6,232	6,301	6,371
	손해사정	15,182	15,371	15,558	15,733	15,906
	보험계리	1,931	1,955	1,979	2,001	2,023
	합계	30,663	31,045	31,423	31,775	32,125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6,231	6,309	6,386	6,457	6,529
	기업금융	5,622	5,692	5,761	5,826	5,890
	M&A	1,397	1,415	1,432	1,448	1,464
	합계	13,251	13,416	13,579	13,731	13,883
합계		876,477	887,416	898,207	908,266	918,294

<표 IV-19>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33,248	33,442	33,622	33,766	33,901
	인사·총무·홍보	50,140	50,432	50,704	50,921	51,125
	조사 연구·리서치	9,443	9,498	9,549	9,590	9,629
	IT/보안	32,095	32,282	32,456	32,595	32,725
	감사, 법무 등	17,268	17,368	17,462	17,537	17,607
	합계	142,194	143,023	143,792	144,410	144,986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434,122	436,652	439,000	440,885	442,645
	기업영업	80,095	80,562	80,995	81,343	81,667
	상품개발	10,426	10,487	10,543	10,589	10,631
	마케팅 등	70,386	70,796	71,177	71,483	71,768
	합계	595,030	598,497	601,715	604,299	606,712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21,805	21,932	22,050	22,144	22,233
	결제	9,573	9,629	9,681	9,723	9,761
	채권추심	14,734	14,820	14,899	14,963	15,023
	합계	46,112	46,381	46,630	46,830	47,017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850	9,907	9,961	10,004	10,043
	파생상품	4,259	4,283	4,306	4,325	4,342
	외환	2,442	2,456	2,469	2,480	2,490
	Alt. Investment	3,142	3,161	3,178	3,191	3,204
	합계	19,693	19,808	19,914	20,000	20,080
자산관리	신탁	5,116	5,146	5,173	5,196	5,216
	연금	2,513	2,528	2,541	2,552	2,562
	투자자문	1,052	1,058	1,064	1,069	1,073
	PB	15,486	15,576	15,660	15,727	15,790
	합계	24,167	24,308	24,438	24,543	24,641
보험	Claim관리	7,421	7,464	7,504	7,536	7,566
	언더라이팅	6,042	6,077	6,109	6,136	6,160
	손해사정	15,084	15,172	15,254	15,319	15,380
	보험계리	1,919	1,930	1,940	1,948	1,956
	합계	30,465	30,642	30,807	30,939	31,063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6,191	6,227	6,261	6,288	6,313
	기업금융	5,586	5,618	5,648	5,673	5,695
	M&A	1,388	1,397	1,404	1,410	1,416
	합계	13,165	13,242	13,313	13,370	13,424
합계		870,826	875,900	880,610	884,392	887,923

마.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 한편 향후 5년간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학력별 인력비중이 2013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표 IV-20>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1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졸	180,911	184,326	187,723	190,978	194,237
전문대	112,929	115,061	117,182	119,213	121,247
대졸	524,785	534,691	544,547	553,987	563,440
대학원졸	63,503	64,702	65,894	67,037	68,180
합계	882,128	898,780	915,346	931,215	947,104

<표 IV-21>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2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졸	179,752	181,995	184,208	186,271	188,328
전문대	112,206	113,606	114,987	116,275	117,559
대졸	521,423	527,931	534,351	540,335	546,301
대학원졸	63,096	63,884	64,660	65,385	66,106
합계	876,477	887,416	898,207	908,266	918,294

<표 IV-22>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3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졸	178,593	179,634	180,600	181,375	182,099
전문대	111,482	112,132	112,735	113,219	113,671
대졸	518,061	521,080	523,882	526,132	528,233
대학원졸	62,689	63,055	63,394	63,666	63,920
합계	870,826	875,900	880,610	884,392	887,923

2. 금융인력 공급 전망

가. 금융인력 공급 추정방법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금융인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음.
 - 금융인력 수요는 금융업의 성장에 맞추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 성장 전망을 기초로 금융인력 수요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인력 공급규모는 금융업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전반의 인력공급구조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우선 금융인력 공급은 금융업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음.
 - 이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금융업이 제조업, 건설업 등 타 업종에 비해 성장성이 양호하다면 향후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금융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반면에 금융업의 발전가능성이 낮다면 금융업보다는 타 업종에서 구직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금융업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금융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상 어려운 작업임.
 - 즉 금융업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금융인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구직자들의 기대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는 현재 보고서 작성시점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금융인력 공급은 노동시장 전반의 인력공급구조와 연관되어 있음.
 - 이는 2013년 금융인력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회사들은 주로 경상대, 법대 전공자를 선호하는데, 만약 경상대 졸업자수가 줄어든다면 금융권에 취업가능한 구직자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금융인력 시장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이 금융인력 시장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노사관계, 고학력화 등이 전반적인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인력 시장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앞서 언급한 대로 금융산업의 성장을 감안하면 더욱 엄밀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향후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본 보고서는 우선 금융인력 공급은 주로 청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 물론 금융인력 공급은 장년층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전직 등을 통해 신규공급이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청년층에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청년층의 희망직종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학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교육부의 「교육통계 DB」**를 활용하였음.
 - *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조사」는 http://survey.keis.or.kr/survey_keis/에서 얻을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고용정보원 의 ‘청년패널 2007 5차(2011)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하였음. ‘청년패널 2007 5차(2011) 조사 기초분석보고서’는 고용정보원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교육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에서 이용가능하며 본 보고서는 이중 대학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청년패널 조사」는 2007년을 기점으로 당시에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통계임.
 -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는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음.
 - 이후 기존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계속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의 과제로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고용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공식승인을 받은 국가통계임.

- 한편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것의 한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금융권 구직자는 금융권에만 취업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 등에도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것이지 금융권에 취업되지 못하면 이들은 타 산업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금융인력 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

-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보고서에서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추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숫자라도 도출할 수 있다면 향후 금융인력 정책 및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 것임.

나. 금융인력 공급규모 전망

1) 전공 기준

-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사회계열 졸업자는 152,485명인 것으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는 89,298명, 전문대학에서는 55,595명, 대학원에서는 7,592명이 졸업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인력 전공은 주로 상경계열이 더 적절한 전공이지만 교육통계연보에는 사회계열 졸업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경계열 대신에 사회계열 졸업생 규모를 이용하였음.

<표 IV-23>

2013년중 전공별 졸업상황(최종)

(단위: 명)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인문계열	38,360	7,201	4,382
사회계열	89,298	55,595	7,592
교육계열	15,238	9,649	2,531
공학계열	68,719	40,369	12,928
자연계열	35,257	13,226	7,843
의약계열	15,041	27,386	5,780
예체능계열	33,039	31,391	3,179
총계	294,952	184,817	44,235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2010년 이후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나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됨.
-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0%씩, 석사는 2.4%, 박사는 6.5% 증가한 반면 전문대는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IV-24>

입학생 추이

(단위: 명)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1999	319,278	306,802	73,826	10,447
2000	321,399	318,135	82,374	11,705
2001	327,031	322,687	86,992	12,570
2002	320,534	311,304	89,557	13,227
2003	321,116	275,318	91,178	13,310
2004	329,509	259,182	88,763	14,494
2005	326,284	251,283	92,151	16,104
2006	335,581	254,433	93,907	17,005
2007	342,250	255,395	95,977	17,979
2008	342,916	249,291	95,183	18,188
2009	347,750	242,525	101,159	18,929
2010	358,511	249,144	105,731	21,227
2011	361,686	249,693	105,380	21,528
2012	372,941	238,952	102,788	23,328
2013	365,515	227,707	101,940	24,920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표 IV-25>

입학생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2000	0.7	3.7	11.6	12.0
2001	1.8	1.4	5.6	7.4
2002	-2.0	-3.5	2.9	5.2
2003	0.2	-11.6	1.8	0.6
2004	2.6	-5.9	-2.6	8.9
2005	-1.0	-3.0	3.8	11.1
2006	2.8	1.3	1.9	5.6
2007	2.0	0.4	2.2	5.7
2008	0.2	-2.4	-0.8	1.2
2009	1.4	-2.7	6.3	4.1
2010	3.1	2.7	4.5	12.1
2011	0.9	0.2	-0.3	1.4
2012	3.1	-4.3	-2.5	8.4
2013	-2.0	-4.7	-0.8	6.8
평균	1.0	-2.0	2.4	6.5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이와 같은 입학생의 추세적인 변화가 졸업생 규모에도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매년 152,663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152,494명, 2015년에는 152,541명, 2016년에는 152,625명, 2017년에는 152,748명, 그리고 2018년에는 152,908명으로 추정됨.

<표 IV-26>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 기준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급규모	152,494	152,541	152,625	152,748	152,908	152,663

2) 희망 직종 기준

□ 2011년 「청년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년중 31.2%가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가 여자는 34.5%가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7>

성별 희망직종 현황

(단위 : 명, %)

	전체	성별	
		남	여
전 체	746,759	386,350	360,410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	31.2	28.1	34.5
기술, 기능직종사자	20.4	33.0	6.9
교육, 법률관련직	12.4	10.7	14.1
의료, 사회복지, 종교관련직	12.3	2.3	23.1
문화, 예술, 스포츠관련직	6.7	6.2	7.3
서비스관련직	7.8	8.2	7.5
영업, 판매직	5.0	6.4	3.5
단순 노무직	3.5	4.2	2.6
기타	0.7	0.9	0.5

주 :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 2011년 「청년패널 조사」

- 이러한 경향이 매년 졸업생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매년마다 163,489명의 졸업생이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청년들의 희망직종이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로 조사되어 있어서 희망자중 일부는 금융이 아닌 경영이나 무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제시한대로 2013년 졸업생 524,004명중에서 294,952명이 대학에서 졸업하고, 184,817명이 전문대에서 졸업하며, 44,235명이 졸업함.
- 전체 524,004명 졸업생중 31.2%인 163,489명의 졸업생이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앞서 입학생이 1999년 이후 매년 0.12%씩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입학생이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졸업생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표 IV-28>

향후 5년간 졸업생 규모 추정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24,004	524,642	525,281	525,921	526,561	527,202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졸업생 규모를 추정해 보면 매년 164,087명(2014~18년간 평균치)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163,688명, 2015년에는 163,888명, 2016년에는 164,087명, 2017년에는 164,287명, 그리고 2018년에는 164,487명으로 추정됨.

<표 IV-29>

금융인력 공급규모 : 희망 직종 기준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급규모	163,489	163,688	163,888	164,087	164,287	164,487

- ☐ 이와 같은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청년들의 희망직종이 '경영, 금융, 무역 사무직'로 조사되어 있어서 희망자중 일부는 금융이 아닌 경영이나 무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희망직종은 구직자들의 희망을 나타낼 뿐 실제로 이들이 금융권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 지는 알 수가 없음.
 - * 금융업은 타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우수한 인재들이 취직하는 경향이 있음.
 -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체 청년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음.
 - 청년들의 희망직종 조사가 그들의 1순위만을 조사한 것으로 금융업이 2순위나 3순위인 청년들도 금융인력 공급규모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당년도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후 몇 년이 지난 다음 금융권에서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들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인력은 본 예측방법에서는 감안되어 있지 않음.
-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한 방식에 따라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방식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됨.
-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예측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 ☐ 이와 같은 전체 금융인력 공급규모에 업권별 인력 비중을 적용하여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 및 희망직종 기준에 따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30>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 전공 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72,226	72,248	72,288	72,346	72,422
보험	33,236	33,246	33,264	33,291	33,326
증권/선물	21,726	21,733	21,745	21,763	21,785
자산운용/신탁	2,908	2,908	2,910	2,912	2,915
저축은행	3,818	3,819	3,821	3,824	3,828
여신	13,485	13,489	13,497	13,508	13,522
신탁	5,096	5,097	5,100	5,104	5,109
계	152,494	152,541	152,625	152,748	152,908

<표 IV-31>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 : 희망 직종 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77,527	77,622	77,716	77,811	77,906
보험	35,675	35,719	35,762	35,806	35,849
증권/선물	23,321	23,350	23,378	23,407	23,435
자산운용/신탁	3,121	3,125	3,129	3,132	3,136
저축은행	4,098	4,103	4,108	4,113	4,118
여신	14,475	14,493	14,511	14,528	14,546
신탁	5,470	5,476	5,483	5,490	5,496
계	163,688	163,888	164,087	164,287	164,487

라.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 ☐ 이와 같은 전체 금융인력 공급규모에 직무별 인력 비중을 적용하여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 및 희망직종 기준에 따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32>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 전공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822	5,824	5,827	5,832	5,838
	인사·총무·홍보	8,780	8,783	8,788	8,795	8,804
	조사 연구·리서치	1,654	1,654	1,655	1,656	1,658
	IT/보안	5,620	5,622	5,625	5,630	5,636
	감사, 법무 등	3,024	3,025	3,026	3,029	3,032
	합계	24,900	24,908	24,922	24,942	24,968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6,021	76,044	76,086	76,148	76,227
	기업영업	14,026	14,030	14,038	14,049	14,064
	상품개발	1,826	1,826	1,827	1,829	1,831
	마케팅 등	12,326	12,329	12,336	12,346	12,359
	합계	104,198	104,230	104,288	104,372	104,481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818	3,819	3,822	3,825	3,829
	결제	1,676	1,677	1,678	1,679	1,681
	채권추심	2,580	2,581	2,582	2,584	2,587
	합계	8,075	8,077	8,082	8,088	8,097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725	1,725	1,726	1,728	1,730
	파생상품	746	746	746	747	748
	외환	428	428	428	428	429
	Alt. Investment	550	550	551	551	552
	합계	3,449	3,450	3,451	3,454	3,458
자산관리	신탁	896	896	897	897	898
	연금	440	440	440	441	441
	투자자문	184	184	184	185	185
	PB	2,712	2,713	2,714	2,716	2,719
	합계	4,232	4,233	4,236	4,239	4,243
보험	Claim관리	1,299	1,300	1,301	1,302	1,303
	언더라이팅	1,058	1,058	1,059	1,060	1,061
	손해사정	2,641	2,642	2,644	2,646	2,649
	보험계리	336	336	336	337	337
	합계	5,335	5,336	5,339	5,344	5,349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084	1,084	1,085	1,086	1,087
	기업금융	978	978	979	980	981
	M&A	243	243	243	244	244
	합계	2,305	2,306	2,307	2,309	2,312
합계		152,494	152,541	152,625	152,748	152,908

<표 IV-33>

직무별 금융인력 공급 : 희망 직종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6,250	6,257	6,265	6,272	6,280
	인사·총무·홍보	9,425	9,436	9,448	9,459	9,471
	조사 연구·리서치	1,775	1,777	1,779	1,782	1,784
	IT/보안	6,033	6,040	6,048	6,055	6,062
	감사, 법무 등	3,246	3,250	3,254	3,258	3,262
	합계	26,728	26,761	26,793	26,826	26,859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81,601	81,701	81,800	81,900	82,000
	기업영업	15,055	15,074	15,092	15,110	15,129
	상품개발	1,960	1,962	1,965	1,967	1,969
	마케팅 등	13,230	13,247	13,263	13,279	13,295
	합계	111,847	111,984	112,120	112,256	112,393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4,099	4,104	4,109	4,114	4,119
	결제	1,800	1,802	1,804	1,806	1,808
	채권추심	2,770	2,773	2,776	2,780	2,783
	합계	8,668	8,678	8,689	8,699	8,71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852	1,854	1,856	1,858	1,861
	파생상품	800	801	802	803	804
	외환	459	460	460	461	461
	Alt. Investment	591	591	592	593	594
	합계	3,702	3,706	3,711	3,715	3,720
자산관리	신탁	962	963	964	965	966
	연금	472	473	474	474	475
	투자자문	198	198	198	199	199
	PB	2,911	2,914	2,918	2,921	2,925
	합계	4,543	4,548	4,554	4,559	4,565
보험	Claim관리	1,395	1,397	1,398	1,400	1,402
	언더라이팅	1,136	1,137	1,138	1,140	1,141
	손해사정	2,835	2,839	2,842	2,846	2,849
	보험계리	361	361	362	362	362
	합계	5,726	5,733	5,740	5,747	5,754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164	1,165	1,167	1,168	1,169
	기업금융	1,050	1,051	1,052	1,054	1,055
	M&A	261	261	262	262	262
	합계	2,475	2,478	2,481	2,484	2,487
합계		163,688	163,888	164,087	164,287	164,487

마. 학력별 금융인력 공급 전망

- 이와 같은 전체 금융인력 공급규모에 학력별 인력 비중을 적용하여 업권별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 기준에 따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34>

학력별 금융인력 공급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	90,191	91,093	92,004	92,924	93,853
전문대학	54,483	53,393	52,326	51,279	50,253
대학원	7,820	8,054	8,296	8,545	8,801
합계	152,494	152,541	152,625	152,748	152,908

주 : 전공 기준

3.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

- 1절과 2절에 제시되어 있는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토대로 수급차를 전망하고자 함.
- 다만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1절의 금융인력 수요 전망은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금융인력인 반면, 2절의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금융권에 취업가능한 신규 인력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인력 수급차는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인력 수요를 현재 총인원이 아니라 신규수요 규모를 계산하여 금융인력 수급차를 제시하고자 함.
 - 즉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신규 공급 - 금융인력 신규 수요』로 정의함.

가.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공급을 전공기준으로 보면 2014년에는 시나리오 1의 경우 13.6만명, 시나리오 2의 경우 14.1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14.7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5>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전공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나리오1	135,766	135,889	136,059	136,879	137,019
시나리오2	141,417	141,602	141,834	142,689	142,880
시나리오3	147,068	147,467	147,915	148,966	149,377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 금융인력 공급을 희망직종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시나리오 1의 경우 14.7만명, 시나리오 2의 경우 15.3만명, 시나리오 3의 경우 15.8만명의 초과공급(수요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희망직종 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나리오1	146,960	147,236	147,521	148,418	148,598
시나리오2	152,611	152,949	153,296	154,228	154,459
시나리오3	158,262	158,814	159,377	160,505	160,956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나.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수요는 시나리오별로, 금융인력 공급은 전공 및 희망직종 기준으로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37>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1 & 전공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64,303	64,361	64,441	64,830	64,896
보험	29,590	29,617	29,654	29,832	29,863
증권/선물	19,343	19,361	19,385	19,502	19,522
자산운용/신탁	2,589	2,591	2,594	2,610	2,612
저축은행	3,399	3,402	3,406	3,427	3,430
여신	12,006	12,017	12,032	12,104	12,117
신협	4,537	4,541	4,546	4,574	4,578
계	135,766	135,889	136,059	136,879	137,019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38>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1 & 희망직종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69,605	69,735	69,870	70,295	70,380
보험	32,030	32,090	32,152	32,347	32,387
증권/선물	20,938	20,977	21,018	21,146	21,171
자산운용/신탁	2,802	2,807	2,813	2,830	2,833
저축은행	3,679	3,686	3,693	3,716	3,720
여신	12,996	13,020	13,046	13,125	13,141
신협	4,911	4,920	4,929	4,959	4,965
계	146,960	147,236	147,521	148,418	148,598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39>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2 & 전공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66,979	67,067	67,177	67,582	67,672
보험	30,821	30,862	30,912	31,099	31,140
증권/선물	20,148	20,175	20,208	20,330	20,357
자산운용/신탁	2,696	2,700	2,704	2,721	2,724
저축은행	3,541	3,545	3,551	3,572	3,577
여신	12,506	12,522	12,543	12,618	12,635
신협	4,725	4,732	4,739	4,768	4,774
계	141,417	141,602	141,834	142,689	142,880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0>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2 & 희망직종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72,281	72,441	72,605	73,047	73,156
보험	33,261	33,335	33,410	33,614	33,664
증권/선물	21,743	21,791	21,841	21,974	22,006
자산운용/신탁	2,910	2,916	2,923	2,941	2,945
저축은행	3,821	3,829	3,838	3,861	3,867
여신	13,496	13,526	13,556	13,639	13,659
신협	5,099	5,111	5,122	5,154	5,161
계	152,611	152,949	153,296	154,228	154,459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1>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3 & 전공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69,656	69,845	70,057	70,555	70,749
보험	32,053	32,140	32,238	32,467	32,556
증권/선물	20,953	21,010	21,074	21,224	21,282
자산운용/신탁	2,804	2,812	2,820	2,840	2,848
저축은행	3,682	3,692	3,703	3,730	3,740
여신	13,005	13,041	13,080	13,173	13,210
신협	4,914	4,928	4,943	4,978	4,991
계	147,068	147,467	147,915	148,966	149,377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2> 업권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 시나리오3 & 희망직종기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은행	74,957	75,219	75,486	76,020	76,233
보험	34,493	34,613	34,736	34,982	35,080
증권/선물	22,548	22,627	22,707	22,868	22,932
자산운용/신탁	3,017	3,028	3,039	3,060	3,069
저축은행	3,962	3,976	3,990	4,018	4,030
여신	13,995	14,044	14,094	14,194	14,234
신협	5,288	5,307	5,326	5,363	5,378
계	158,262	158,814	159,377	160,505	160,956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다.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

□ 금융인력 수요는 시나리오별로, 금융인력 공급은 전공 및 희망직종 기준으로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43>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1 & 전공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184	5,188	5,195	5,226	5,231
	인사·총무·홍보	7,817	7,824	7,834	7,881	7,889
	조사 연구·리서치	1,472	1,474	1,475	1,484	1,486
	IT/보안	5,004	5,008	5,015	5,045	5,050
	감사, 법무 등	2,692	2,695	2,698	2,714	2,717
	합계	22,169	22,189	22,217	22,351	22,373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67,682	67,743	67,828	68,237	68,306
	기업영업	12,487	12,498	12,514	12,590	12,602
	상품개발	1,626	1,627	1,629	1,639	1,641
	마케팅 등	10,974	10,984	10,997	11,064	11,075
	합계	92,768	92,852	92,968	93,529	93,624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399	3,403	3,407	3,427	3,431
	결제	1,493	1,494	1,496	1,505	1,506
	채권추심	2,297	2,299	2,302	2,316	2,318
	합계	7,189	7,196	7,205	7,248	7,255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536	1,537	1,539	1,548	1,550
	파생상품	664	665	665	669	670
	외환	381	381	382	384	384
	Alt. Investment	490	490	491	494	494
	합계	3,070	3,073	3,077	3,095	3,099
자산관리	신탁	798	798	799	804	805
	연금	392	392	393	395	395
	투자자문	164	164	164	165	166
	PB	2,414	2,416	2,419	2,434	2,437
	합계	3,768	3,771	3,776	3,799	3,803
보험	Claim관리	1,157	1,158	1,159	1,166	1,168
	언더라이팅	942	943	944	950	951
	손해사정	2,352	2,354	2,357	2,371	2,373
	보험계리	299	299	300	302	302
	합계	4,750	4,754	4,760	4,789	4,793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965	966	967	973	974
	기업금융	871	872	873	878	879
	M&A	216	217	217	218	218
	합계	2,053	2,054	2,057	2,069	2,071
합계		135,766	135,889	136,059	136,879	137,019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4>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1 & 희망직종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611	5,621	5,632	5,667	5,673
	인사·총무·홍보	8,462	8,478	8,494	8,546	8,556
	조사 연구·리서치	1,594	1,597	1,600	1,609	1,611
	IT/보안	5,416	5,427	5,437	5,470	5,477
	감사, 법무 등	2,914	2,920	2,925	2,943	2,947
	합계	23,997	24,042	24,088	24,235	24,264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3,262	73,400	73,542	73,989	74,079
	기업영업	13,517	13,542	13,568	13,651	13,667
	상품개발	1,760	1,763	1,766	1,777	1,779
	마케팅 등	11,878	11,901	11,924	11,996	12,011
	합계	100,417	100,605	100,800	101,413	101,536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680	3,687	3,694	3,716	3,721
	결재	1,616	1,619	1,622	1,632	1,634
	채권추심	2,486	2,491	2,496	2,511	2,514
	합계	7,782	7,796	7,812	7,859	7,869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662	1,665	1,669	1,679	1,681
	파생상품	719	720	721	726	727
	외환	412	413	414	416	417
	Alt. Investment	530	531	532	536	536
	합계	3,323	3,330	3,336	3,356	3,360
자산관리	신탁	863	865	867	872	873
	연금	424	425	426	428	429
	투자자문	178	178	178	179	180
	PB	2,613	2,618	2,623	2,639	2,642
	합계	4,078	4,086	4,094	4,119	4,124
	Claim관리	1,252	1,255	1,257	1,265	1,266
보험	언더라이팅	1,020	1,021	1,023	1,030	1,031
	손해사정	2,546	2,550	2,555	2,571	2,574
	보험계리	324	324	325	327	327
	합계	5,141	5,151	5,161	5,192	5,199
	구조화금융	1,045	1,047	1,049	1,055	1,056
투자은행	기업금융	943	944	946	952	953
	M&A	234	235	235	237	237
	합계	2,222	2,226	2,230	2,244	2,247
합계		146,960	147,236	147,521	148,418	148,598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5>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2 & 전공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399	5,406	5,415	5,448	5,455
	인사·총무·홍보	8,142	8,153	8,166	8,216	8,227
	조사 연구·리서치	1,534	1,536	1,538	1,547	1,549
	IT/보안	5,212	5,219	5,227	5,259	5,266
	감사, 법무 등	2,804	2,808	2,812	2,829	2,833
	합계	23,092	23,122	23,160	23,299	23,330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0,499	70,591	70,707	71,133	71,228
	기업영업	13,007	13,024	13,045	13,124	13,141
	상품개발	1,693	1,695	1,698	1,708	1,711
	마케팅 등	11,430	11,445	11,464	11,533	11,549
	합계	96,629	96,756	96,914	97,498	97,629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541	3,546	3,551	3,573	3,578
	결제	1,555	1,557	1,559	1,569	1,571
	채권추심	2,393	2,396	2,400	2,414	2,417
	합계	7,488	7,498	7,510	7,556	7,566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600	1,602	1,604	1,614	1,616
	파생상품	692	692	694	698	699
	외환	397	397	398	400	401
	Alt. Investment	510	511	512	515	516
	합계	3,198	3,202	3,207	3,227	3,231
자산관리	신탁	831	832	833	838	839
	연금	408	409	409	412	412
	투자자문	171	171	171	172	173
	PB	2,515	2,518	2,522	2,537	2,541
	합계	3,925	3,930	3,936	3,960	3,965
보험	Claim관리	1,205	1,207	1,209	1,216	1,218
	언더라이팅	981	982	984	990	991
	손해사정	2,450	2,453	2,457	2,472	2,475
	보험계리	312	312	312	314	315
	합계	4,947	4,954	4,962	4,992	4,998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005	1,007	1,008	1,014	1,016
	기업금융	907	908	910	915	916
	M&A	225	226	226	228	228
	합계	2,138	2,141	2,144	2,157	2,160
합계		141,417	141,602	141,834	142,689	142,880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6>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2 & 희망직종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827	5,840	5,853	5,888	5,897
	인사·총무·홍보	8,787	8,806	8,826	8,880	8,893
	조사 연구·리서치	1,655	1,659	1,662	1,672	1,675
	IT/보안	5,625	5,637	5,650	5,684	5,693
	감사, 법무 등	3,026	3,033	3,040	3,058	3,063
	합계	24,919	24,975	25,031	25,183	25,221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6,079	76,248	76,421	76,885	77,001
	기업영업	14,037	14,068	14,100	14,185	14,206
	상품개발	1,827	1,831	1,835	1,847	1,849
	마케팅 등	12,335	12,362	12,390	12,466	12,484
	합계	104,278	104,509	104,746	105,383	105,541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821	3,830	3,838	3,862	3,868
	결제	1,678	1,681	1,685	1,696	1,698
	채권추심	2,582	2,588	2,594	2,609	2,613
	합계	8,081	8,099	8,117	8,167	8,179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726	1,730	1,734	1,744	1,747
	파생상품	746	748	750	754	755
	외환	428	429	430	432	433
	Alt. Investment	551	552	553	557	557
	합계	3,451	3,459	3,467	3,488	3,493
자산관리	신탁	897	899	901	906	907
	연금	440	441	442	445	446
	투자자문	184	185	185	186	187
	PB	2,714	2,720	2,726	2,743	2,747
	합계	4,235	4,245	4,254	4,280	4,287
보험	Claim관리	1,300	1,303	1,306	1,314	1,316
	언더라이팅	1,059	1,061	1,064	1,070	1,072
	손해사정	2,643	2,649	2,655	2,671	2,675
	보험계리	336	337	338	340	340
	합계	5,339	5,351	5,363	5,395	5,404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085	1,087	1,090	1,096	1,098
	기업금융	979	981	983	989	991
	M&A	243	244	244	246	246
	합계	2,307	2,312	2,318	2,332	2,335
합계		152,611	152,949	153,296	154,228	154,459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7>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3 & 전공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5,615	5,630	5,647	5,687	5,703
	인사·총무·홍보	8,468	8,491	8,517	8,577	8,601
	조사 연구·리서치	1,595	1,599	1,604	1,615	1,620
	IT/보안	5,420	5,435	5,452	5,490	5,505
	감사, 법무 등	2,916	2,924	2,933	2,954	2,962
	합계	24,014	24,079	24,153	24,324	24,391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3,316	73,515	73,738	74,262	74,467
	기업영업	13,527	13,563	13,605	13,701	13,739
	상품개발	1,761	1,766	1,771	1,784	1,788
	마케팅 등	11,887	11,919	11,956	12,040	12,074
	합계	100,491	100,763	101,069	101,787	102,068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682	3,692	3,704	3,730	3,740
	결제	1,617	1,621	1,626	1,638	1,642
	채권추심	2,488	2,495	2,503	2,520	2,527
	합계	7,788	7,809	7,832	7,888	7,910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664	1,668	1,673	1,685	1,690
	파생상품	719	721	723	728	731
	외환	412	413	415	418	419
	Alt. Investment	531	532	534	538	539
	합계	3,326	3,335	3,345	3,369	3,378
자산관리	신탁	864	866	869	875	878
	연금	424	426	427	430	431
	투자자문	178	178	179	180	181
	PB	2,615	2,622	2,630	2,649	2,656
	합계	4,081	4,092	4,105	4,134	4,145
보험	Claim관리	1,253	1,257	1,260	1,269	1,273
	언더라이팅	1,020	1,023	1,026	1,033	1,036
	손해사정	2,547	2,554	2,562	2,580	2,587
	보험계리	324	325	326	328	329
	합계	5,145	5,159	5,175	5,211	5,226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046	1,048	1,052	1,059	1,062
	기업금융	943	946	949	956	958
	M&A	234	235	236	238	238
	합계	2,223	2,229	2,236	2,252	2,258
합계		147,068	147,467	147,915	148,966	149,377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표 IV-48> 직무별 금융인력 수급차¹⁾ 전망: 시나리오3 & 희망직종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6,042	6,063	6,085	6,128	6,145
	인사·총무·홍보	9,112	9,144	9,177	9,242	9,267
	조사 연구·리서치	1,716	1,722	1,728	1,741	1,745
	IT/보안	5,833	5,853	5,874	5,916	5,932
	감사, 법무 등	3,138	3,149	3,160	3,183	3,192
	합계	25,842	25,932	26,024	26,208	26,282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78,896	79,172	79,452	80,015	80,239
	기업영업	14,556	14,607	14,659	14,763	14,804
	상품개발	1,895	1,901	1,908	1,922	1,927
	마케팅 등	12,792	12,836	12,882	12,973	13,010
	합계	108,139	108,517	108,901	109,672	109,980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3,963	3,977	3,991	4,019	4,030
	결제	1,740	1,746	1,752	1,765	1,769
	채권추심	2,678	2,687	2,697	2,716	2,723
	합계	8,380	8,410	8,439	8,499	8,523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1,790	1,796	1,803	1,815	1,821
	파생상품	774	777	779	785	787
	외환	444	445	447	450	451
	Alt. Investment	571	573	575	579	581
	합계	3,579	3,591	3,604	3,630	3,640
자산관리	신탁	930	933	936	943	946
	연금	457	458	460	463	465
	투자자문	191	192	193	194	194
	PB	2,814	2,824	2,834	2,854	2,862
	합계	4,392	4,407	4,423	4,454	4,467
보험	Claim관리	1,349	1,353	1,358	1,368	1,372
	언더라이팅	1,098	1,102	1,106	1,114	1,117
	손해사정	2,741	2,751	2,761	2,780	2,788
	보험계리	349	350	351	354	355
	합계	5,537	5,556	5,576	5,615	5,631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1,125	1,129	1,133	1,141	1,144
	기업금융	1,015	1,019	1,022	1,030	1,032
	M&A	252	253	254	256	257
	합계	2,393	2,401	2,409	2,427	2,433
합계		158,262	158,814	159,377	160,505	160,956

주 : 1) 수급차 = 신규공급 - 신규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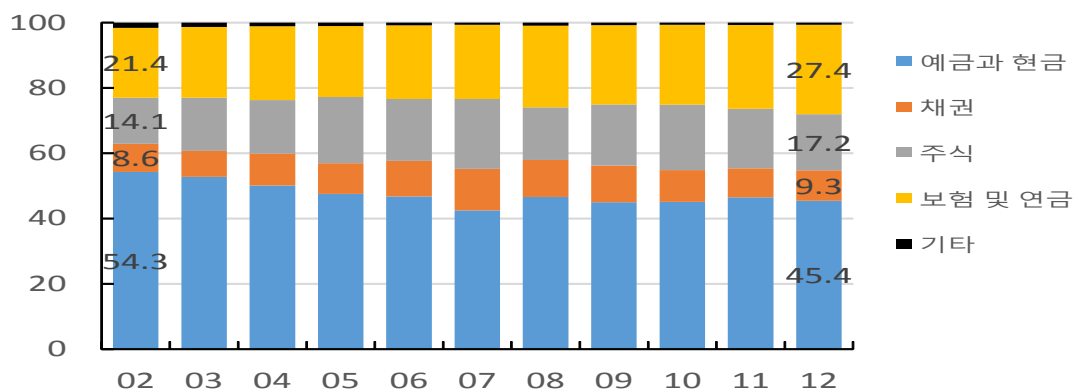
V. 시사점

1. 미래의 금융수요 변화를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을 중심으로 위험기피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또는 미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 금융자산의 45%를 예금 및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으로 27%, 주식으로 17%, 채권으로 9%를 보유
- 이처럼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을 예금 및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나, 예금 및 현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유의
 - * 2002년에는 예금 및 현금 비중이 54%였는데 2012년에는 45%로 약 9%p 하락한 반면,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02년에는 21%였으나 2012년에는 27%까지 상승
- 보험 및 연금 비중의 상승은 의료비 등 수명연장에 따른 지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V-1> 가계부문¹⁾의 금융자산 구성 연도별 추이

(단위 : %)



주 : 1) 자금순환표에서 가계부문은 가계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까지도 포함함.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청

□ 국가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예금 및 현금, 주식, 그리고 채권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금 및 보험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예금 및 현금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45%로 일본의 54%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이고, 주식비중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에 비해서는 높으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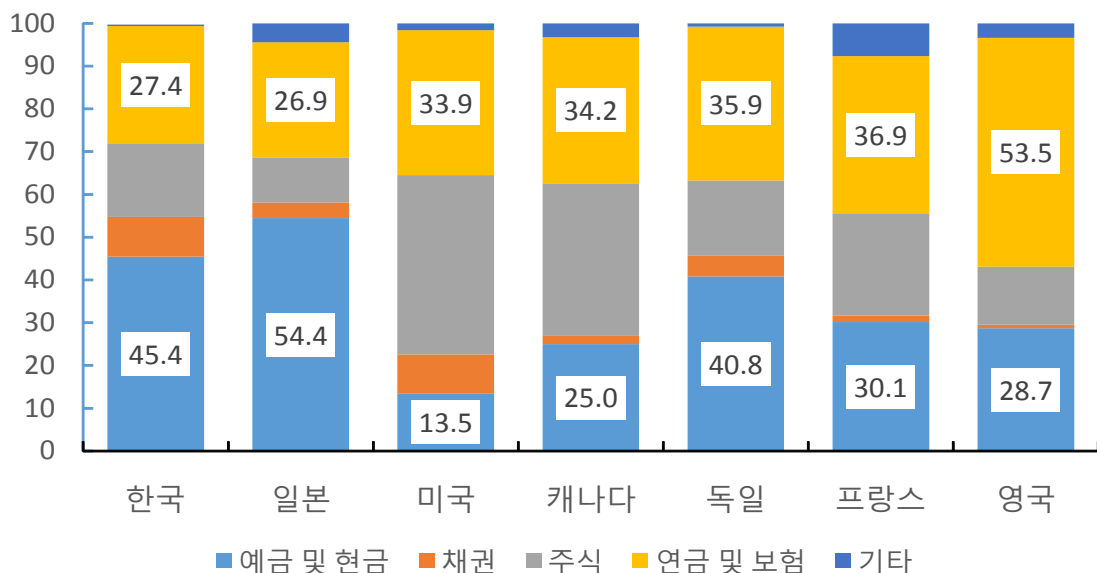
○ 그러나 연금 및 보험비중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상황임.

○ 즉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가 더 진전된 국가에서 대체로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V-2>

주요국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 %)



주 : 1) 2012년 Non-consolidated stocks 기준. 다만 일본은 2011년 기준이며 한국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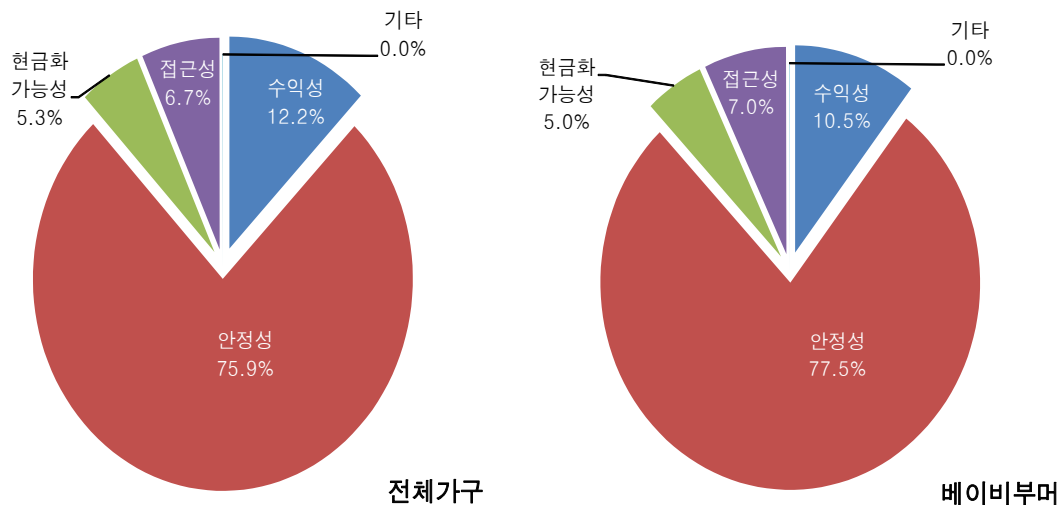
자료 : OECD, Financial Balance Sheets

□ 특히 고령층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주식, 채권 등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안전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가 모두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는 71%의 가구가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전체 가구의 응답비중인 67%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V-3> 베이비부머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 이와 같은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금융업권별로 다음과 같은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1의 경우 향후 5년간 8.2만명의 금융권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권별로는 은행에서는 3.8만명, 보험에서는 1.8만명, 증권에서는 1.2만명 등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V-1>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인력수요 전망¹⁾

(단위 : 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은행	38,697	25,052	10,668
보험	17,807	11,528	4,909
증권/선물	11,641	7,536	3,209
자산운용/신탁	1,558	1,008	429
저축은행	2,046	1,324	564
여신	7,225	4,678	1,992
신탁	2,730	1,767	753
합계	81,704	52,894	22,523

주 : 1)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취업자수 증감

자료 : 2012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업계 전체 금융인력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의 수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권별 인력의 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인력, 향후 비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표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인력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녹색성장, 창조금융 등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인력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전문대학원에 녹색금융, 창조금융 등 신성장동력 과정 신설을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단계에서부터 녹색금융, 창조금융 등에 필요한 업무·내용들을 관련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트랙·모듈을 구성하고 일정 인원을 녹색금융 및 창조금융 전문가로 양성

- 또한 향후 금융서비스의 수요변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감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금융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 증권사 M&A, 우리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개편 등 금융권의 M&A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 금융위는 우투증권(업계 2위, 자본기준) 매각 등을 통해 증권업 구조 개편의 전기 마련하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하여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할 계획임.
 - 노후대비 교육, 금융상품 가입, 증권투자 등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력
 - * 금융위는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기술평가 수요에 맞추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 설립이 추진중인데, 기술평가와 관련된 인력수요도 늘어날 전망
 - 진입·설립·운용규제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규제가 합리화되면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이 나타날 전망임.
 - * 금융위는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2.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금융기관들이 교육투자를 통해 필요 금융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스카우트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 증권사의 경우 고급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는 일부 대형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도 MBA 등 고급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 10명 정도에 불과한 형편
- 그러나 이는 필요인원의 신규 공급 없이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과당경쟁만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기존 전문인력의 과다 보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금융권은 외부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되, 내부 직원 중에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자체적인 또는 외부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는 직무중심의 사내 연수를 내실화하여야 함.
 - 사내 교육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무를 교육하기 때문에 가장 효용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은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금융인력을 자체 양성시킬 수 있도록 인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다수의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외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동 프로그램들은 금융기관 실무자의 단기적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금융연수원은 투자은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고양시키는 단기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따라서 이들 교육기관들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독특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제공할 필요
-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 받는 사람들과 금융기관 모두의 이익에 부합
 - 은행, 투자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기관의 성격이 상이하며 기관 내에서도 담당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특화된 트랙·모듈은 은행, 투자은행, 보험, 자산운용사의 특정 업무에 대해서 각기 설계 가능
 - 즉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 전문 금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과도 연계하여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즉 대학교육의 경우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기능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간 연계를 강화

- 고용계약형 학과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형으로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강점 분야를 특성화
 - 특히 비경력자를 채용하여 금융 실무를 기초부터 훈련시켜야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할 때, 산학협력은 대학, 학생, 금융기관 모두에게 바람직한 협력이라고 판단됨.
 - * 이는 대학교육이 학문적 교육에 치중하여 금융기관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임.
 - 금융기관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인턴 기회 제공 등 '교육 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 * 금융기관내 연수과정 등에 대학교수를 참여시켜 산업계의 수요를 학계에 전달함으로써 대학교육 내용의 개선을 유도
- 따라서 대학과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취업 희망인력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학문적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대학과 연계하여 인턴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 등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인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턴제는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인재들에게는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학과 긴밀한 협조 하에 설계된 교과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자를 해당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금융기관도 일반적인 신입사원 채용 후 on-the-job traini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자신이 제안한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유인이 존재함.
- 학생도 자신이 다루고 싶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이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우선적으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부서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습·진학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됨.

3. 국제적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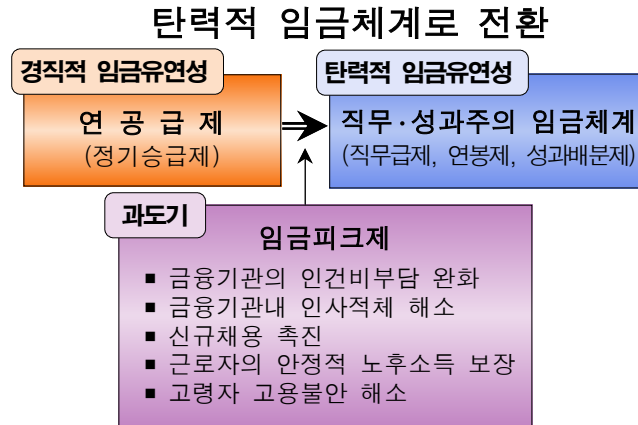
- 은행, 금융투자사 등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외진출관련 업무에 능숙한 인력은 배출·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해당 기관들은 해외진출 관련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
- 전문인력은 영어 및 진출국 언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진출국의 금융 법제, 비즈니스 문화, 전문 용어 등에 대해서도 능통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성공여부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감각을 갖춘 글로벌 국제전문인력의 확보에 있으나 이러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금융기관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 금융법제, 비즈니스 문화 등을 교육함으로써 해외진출 업무 전문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업무 적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당국가 언어인증제, 해외연수 등을 통해 현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지에서의 금융 실무에 필요한 현지어를 교육하고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평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현지어 수업 및 과제 수행을 진행
- 다만 이와 같은 교육은 특화 교육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노력과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공관, KOTRA 등 해외진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진출 업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권 자체 인력만으로 해외 현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에 따라 해외공관이나 KOTRA 등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해외진출관련 기관에서 실시중인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 ☐ 우선 금융기관은 교육투자를 경영여건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의 원천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그리고 금융기관은 인력관리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금융업계에서는 대부분 전공·자격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대졸 공채 위주의 단순한 채용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사 이후에도 대부분 3년 단위의 순환보직제가 보편화되고 있음.
- ☐ 그러나 금융업은 분야별로 고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어서 일정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노하우가 축적되는 산업임.
- ☐ 따라서 입사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순환제를 시행하더라도, 중간관리자 이상부터는 상당기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연공급 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생산성 연계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직적 임금체계로부터 탄력적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임금피크제는 인건비부담 완화, 인사적체 해소, 신규채용 촉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고령자 고용불안 해소 등 상당한 장점이 있음.

<그림 V-4>



5. 금융인력 인프라 구축

-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익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민관이 공동으로 육성해야 할 한시적 공공재라 할 수 있음.
- 이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 성장과실이 해당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전문인력은 국가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인력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인력양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인력구조와 직종별·수준별 인력수요에 대한 기초통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력수급전망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임을 인식하고 조사의 신뢰도 향상, 인력수급 전망능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재 금융인력전망조사는 전수 조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응답률이 낮아 통계적 오류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업체 또는 담당자에 대한 포상실시, 금융인력 조사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 부여 등을 통해 응답률을 높여 금융인력전망조사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도 있음.
- 또한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는 금융회사의 경영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인력 조사시 해당 금융기관의 현재와 미래의 경영 여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영 및 인력에 관한 장기시계열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만의 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의 정보까지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가채용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추가채용 뿐만 아니라 퇴직규모까지 함께 조사하여 금융기관 인력변동의 순증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은퇴, 타 업종으로의 전직, 유사금융기관으로의 전직 등 퇴직사유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부록> 금융인력 통계표 작성요령

1. 직무해설표

이번 금융인력 통계조사는 금융권 종사자의 직무를 업무 특성에 따라 종전 10가지 대분류에서 7가지 대분류로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금융기관의 직무분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그리고 업권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금융업 직무 해설표**(<표 1> 참조)에 기재하였으니 통계표를 작성하실 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계 조사표

통계 조사표 파일을 보시면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신입직, 경력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는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금융인력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는 향후 1년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입직 및 경력직 인력을 각각 조사합니다.

직무 해설표에서 제시한 직무 개념을 참조하여 각 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각 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계적 개념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① BG 이후 열은 점검을 위한 열입니다. 각 셀의 총합이 맞지 않다면 “총원, 고용 형태, 급여, 성별, 국적, 연령, 총근무기간, 학력”의 합계 중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한 사람이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는 중심업무 또는 비중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는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신입직),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경력직) 3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통계 조사표 작성 요령

1. **총원**이라 함은 금융회사에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원(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이나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됩니다.
2. **고용형태**에서 임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 내부적인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3.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세전)을 의미합니다. 급여 산정은 전년도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 인력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연령**은 만 기준입니다.
5. **총 근무기간**은 전·현직 직장을 포함하여 금융업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6. **현 직무 5년 연속 근무자**는 현재 직무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근무중인 직원을 의미합니다. 간헐적으로 현 직무에 근무한 총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직무연수**는 연수의 1회 지속기간이 사내와 외부연수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연수인 경우 3주 이상 연수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기적으로 받은 연수의 총합이 3개월(사내, 외부연수) 또는 3주(해외연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8. **학력**의 경우 ‘전산’은 전자, 전산,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수를 기재하고, ‘기타’는 인문/사회계열 등 여타 전공을 이수한 직원의 수를 명기합니다.
 -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졸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 MBA는 경영전문대학 출신자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한국형 MBA 졸업자 또는 해외 MBA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9.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합니다.
 - 영어능력의 경우 TOEFL과 TEPS의 성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해당 인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C	TOEFL			TEPS	OPIc	TOEIC 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 중국어, 일본어 등 여타 언어능력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각 외국어의 중급이상 기준을 나타냅니다.

외국어 중급이상 기준

구분 등급	중국어 HSK(구)	일본어능력시 험 1급	프랑스어 DALF/DELF	스페인어 DELE 중급	러시아어 토르폴	독일어 괴테어학원평가
5등급	7급	280점이상	DELF B1	60점 이상	기본단계	B2

* 신HSK 5급 195점 이상, JLPT N1 등급 이상

10. **자격증**의 경우 통계조사표 파일의 자격증 분류표(<표 2> 참조)를 토대로 각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 한 개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타 항목의 자격증을 복수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격증 보유 인력의 수를 “1”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분류표에서 법정 자격이라 함은 ‘국가자격 및 정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의미합니다.

11.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외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12. **해외금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해외 주재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파견자는 제외합니다.

(2) 금융인력 채용현황 조사표

1. 조사에 해당하는 채용기간은 조사 시점 이후 201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 채용인원 조사표 신입직의 경우 조사내용이 신입임을 고려하여 축약되었으며 연령 대 구간도 상이한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금융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보고서,” 2012
- 김경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포럼』 2008년 여름호, 한국경제학회, 2008.7
- 김순원,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한국의 고용구조』, 한국고용정보원, 2006
- 김승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연구: 2008 고용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10
- 남궁인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12
- 박강우·홍승제,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9.2
- 유경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이규용,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3
- 이시균·이주현, “고용안정성에 관한 특성 분석,” 『고용이슈』 2008년 9월 제1권 3호(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이장원,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와 정책추진 방향,” 『월간 노동리뷰』 제50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2
- 전승훈,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국회예산정책처, 2010.8
- 허재준, “일자리 대책 종합 평가와 2010년 일자리 정책 방향,” 『월간 노동리뷰』 제58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10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설계방안,” 2009

- Baccaro, Lucio, "Civil society, NGOs, and decent work policies: Sorting out the issues," Discussion Paper No. 127.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tudies, 2006
- Clark, A.E.,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n S. Bazen, C. Lucifora and W. Salverda (Eds.), Job Quality and Employer Behaviou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5
- Majid, Nomaan, "Economic growth, social policy and decent work," Employment Paper, No. 2001/19, Employment Sector. Geneva, ILO, 2001
- Merhan, Farhad, "ILO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for 10-14 years old versus UNESCO school enrolment ratios," in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Geneva), No. 3, 2000
-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10
- Sousa-Poza, A., "Job Stability and Job Security in Switzerland in the 1990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March, vol. 10, 1, pp. 31-49, 2004
- Takala, Jukka, "Decent work - Safe work. Introductory report to the XVIth World Congres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Vienna, 26-31 May, 2002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Nov. 2010